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일본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 일반

1. 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5
3. 경제현황	9
4. 정치	11
5. 주요산업	12

II. 무역

1. 수출입	13
2. 한국과의 수출입	22
3. 수출 유망항목	26
4. 무역협정	37
5. 수입규제 및 관세	39
6. 통관 · 물류	45

III. 투자

1. 투자환경	49
2. 외국인직접투자	57
3. 한국기업 투자	59
4. 투자진출방식	66
5. 외환	73
6. 노무	75
7. 세무	83
8. 지식재산권	87
9. 청산 및 철수	90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92
2. 비즈니스 에티켓	96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96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101

5.출입국 안내	104
6.유관기관	107
7.물가정보	110
8.출장정보	115
9.생활정보	117
10.KOTRA 무역관 안내	133
11.전시회 정보	150
	155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일본(Japan)
면적	377,975 km ² (자료원 : 국토교통성, 2024년 7월 기준)
수도	도쿄(Tokyo)
인구	123,941,000 명 (자료원 : 총무성, 2024년 10월 21일 공표)
민족(인종)	대화족(大和族: 야마토족) 99% 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언어	일본어
종교	신도(47.1%), 불교(42.9%), 기독교(2.7%), 기타(7.4%) (자료원: 문화청, 종교연감 2023)
기후	사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 기후 남북 길이가 약 3,300km로 지역별로 기후 편차가 심함 - 북부 : 아한대 - 중부 : 온대 - 남부 : 아열대, 열대몬순 (자료원: 기상청)
국가원수	- 일왕 : 나루히토(仁) - 내각총리대신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2024년 11월 11일 취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65-12-18 (자료원 : 외무성)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일 환경보호협력협정	1993-06-29	양국 간 환경보호분야 협력 유지 및 증진을 규정한 협정	
한일기본관계조약	1965-12-18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	같은 해 어업협정(6월), 청구권·경제협력 협정, 문화재·문화 협정,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등도 체결
한일항공협정	1967-08-01	항공업무에 관련된 일본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	1985-12-20	과학분야의 협력으로 상호이익 촉진을 위한 일본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	
한일신어업협정	1999-01-22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협정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2002-06-01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 내지 기타의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	
한일투자협정	2003-01-01	투자의 자유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일본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	
한일세관상호지원협정	2004-12-13	관세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서로 지원하고관세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세관 절차, 단속장비, 세관 직원의 훈련등 교류분야에서도 협력.	
사회보장협정	2005-04-01	사회보장에 관한 일본과 한국 간의 협정	

한일형사공조조약	2007-01-26	형사에 관한 공조에 대한 일본과 한국 간의 조약	
한일오픈스카이협정	2010-12-22	항공노선, 편수 등의 결정이 가능한 항공협정	
한일도서협정	2011-06-10	도서예 관한 일본과 한국 간의 협정	
한일원자력협정	2012-01-2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한일 간 협정	
한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	2016-11-23	안전보장을 위한 비밀정보를 공유 보호하기 위한 협정	
한일 통화스왑프 협정	2023-06-29	한일 각국의 중앙은행 간에 맺어지는 통화 안정을 위한 협정. 외화 부족 및 외환위기 등에 대비하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와 자국 통화 혹은 국제 통화 등을 서로 융통함.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2023년 6월 협정 재체결

한국교민 수

411,043 명 (자료원 : 출입국재류관리청 / 2024년 6월 말 기준, 2024.10.18.공표)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2023년 3월과 5월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각각 상대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는데, 두 차례의 회담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고 양국은 정부간 대화 채널의 복원·강화에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에 의한 상호 방문은 12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정상 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관계 즉, '서틀외교'가 복원되고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향한 움직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안보 분야에서 한일은 북한 위협 관련 한미일 간의 역지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의 3국간 실시간 공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GSOMIA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5월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의 추진 및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수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4월에 외교·국방 분야 국장급 한일안보정책협의회(2+2 외교안보대화)를 5년 만에 재개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10월에는 외교차관전략대화를 9년 만에 재개하여 한일관계 및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 정부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전제로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대응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등의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한 협력에 합의한 이후, 한국은 NATO와의 파트너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4개국 반도체 동맹), 퀴드 워킹그룹 등 미국 주도의 다자연대에서 일본과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관련 5월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시찰단의 파견을 수용하고, 7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장관은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기준치 초과 같은 이상 상황 발생시 방류 중단 및 우리 측에 즉시 통보 등을 포함한 필요 조치를 요청하였다. 8월 이후 일본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하였고, 양국은 모니터링 정보의 공유 등 관련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등 주변 지역의 농수산물 금수 조치의 유지, 국내 유통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의 공유 외에 우리 해역 및 일본 인근 공해상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역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우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를 추진했으며, 제3자 변제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라는 일본 측 논리가 힘을 잃고, 우리 대일외교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어 한미일 관계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군에 기지와 후방지원을 제공하는 일본과는 동 협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역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 사도(佐渡)광산과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 매년 반복되는 일본 측의 독도 관련 행사 및 교과서 기술, △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 △ 2018년 광개토태왕함 레이더 조사 및 일본 초계기위협 비행 관련 문제 등이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기시다 전 총리는 2024년 8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후 퇴임을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나면서 양국 간 신뢰관계를 재확인하였다. 2024년 9월 27일 자민당 총재선을 통해 이시바 시게루가 신임 총재로 당선되고, 동년 10월 1일 임시국회를 거쳐 총리로 공식 선출되었는데 이시바 내각은 한일관계에서 역사적 갈등을 억제하고 협력을 확대한 전임 노선을 확대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양국 정상은 2024년 10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ASEAN 정상회의에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전임 내각에서 개선시킨 양국 관계를 계승하여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제

2023년 3월과 5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그동안 누적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4년 간의 무역갈등이 종결되고 경제협력을 위한 일련의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되었다. 양국은 7월까지 화이트리스트의 복원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이는 경제활동의 환경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으로 되돌려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양국은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을 협의하고,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간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합의하였다. 6월에 한일재무장관회담이 7년 만에 재개되었고, 11월에는 8년간 중단되었던 한일통화스와프협정이 체결되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는 제15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를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일본에서 오노 케이이치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한국에서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양국의 관계부처 대표단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 협의는 1999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온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의 일환이었으나, 2016년 1월 이후 여러 현안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약 8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경제 정세, 국제사회 및 지역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경제안전보장 분야에서는 각각의 대책을 설명하고 중요 기술 및 공급망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양국은 다양한 국제 과제에서 중요한 파트너로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분야에서의 진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WTO, G20, APEC 등 다자간 구조와 기후 변화, 환경 분야에서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양국은 이러한 국제적 문제에 대한 협력과 제후를 강화해 나가기로 확인했다.

2024년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양국 재무당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2006년 시작되어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간 중단되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23년을 기점으로 양국관계가 해빙되면서 2023년 6월 도쿄에서 제8차 회의가 열렸으며, 2024년 6월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만나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통화가치 하락 및 급격한 환율 변동 등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 국제의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은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 2025년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

2023년 3월과 5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민간 교류 분야에서는 관광, 문화예술, 인적교류, 미래세대 교류 확대에 합의하였는데, 항공노선의 증편, 유학생 교류의 확대 방안이 포함되었다. 한일·일한 친선협회 등 정치인 교류, 예술인 교류, 청소년 교류, 지자체 교류 등이 활발해지고, 한일관계의 개선 분위기가 양국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지난 5월에는 1969년 이래 매년 개최되었던 한일경제인회의가 4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되어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긴박해질수록 한일협력이 더욱 절실한바, 한일의 공통과제를 연계·보완함으로써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에서 상대국 상품의 불매 운동이 사라지고, 패션, 자동차, 주류 등 소비가 회복되었다. 2024년 9월 누계 기준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 230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동 기간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646만 명으로 일본관광청이 통계발표를 시작한 2003년 이후 동 기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이 특히 Z세대(현재 10~20대)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 영화, K-pop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류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최대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는 한국 음식점, 케이팝 숍, 코스메틱 잡화점 등이 즐비해 한국 아이돌을 동경하는 Z세대로 붐비고 있다. 최근에는 케이팝 아이돌을 체험할 수 있는 포토 스튜디오도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는 169쌍으로, 지자체 국제화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현재 이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이었던 2005년부터 우호관계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 최대규모 민간 교류 행사인 '한일축제 한마당(日韓交流おまつり)'을 개최(2024년 9월 22일 서울, 9월 28일~29일 도쿄)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	-4.2	2.7	1.2	1.7	
명목GDP (십억\$)	5,054	5,040	4,272	4,220	
1인당 GDP (PPP, \$)	42,565	44,663	48,568	51,399	
1인당 명목 GDP (\$)	40,160	40,161	34,158	33,899	
정부부채 (% of GDP)	258.4	253.7	256.3	249.7	
물가상승률 (%)	-0.03	-0.2	2.5	3.3	
실업률 (%)	2.8	2.8	2.6	2.6	
수출액 (백만\$)	641,302	756,017	746,824	717,260	
수입액 (백만\$)	635,443	770,762	899,941	785,796	
무역수지 (백만\$)	5,859	-14,745	-153,117	-68,536	-
외환 보유고 (백만\$)	1,390,809	1,405,749	1,227,573	1,294,636	
이자율 (%)	-0.1	-0.1	-0.1	-0.1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106.77	109.75	131.5	140.49	

<자료원 : World bank, IMF, Global Trade Atlas, BIS>

나. 경제 동향

2023년 일본은 명목 GDP 4조 2198억 달러로 독일(4조 5270억 달러)에 추월당해 세계 4위로 밀려났으며, GDP 성장률은 명목 +5.7%, 실질 +1.7%(명목-실질 모두 3년 연속 플러스)다. 2023년을 되돌아보면, 33년 만의 춘계 노사교섭(춘투)에서 5% 이상의 임금 인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병법상의 5류 전환, 비용의 가격 전가 확산에 따른 기업 수익 개선 등 코로나 충격으로부터의 정상화 및 디플레이션 경제 탈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가 일본 경제에 나타난 전환점이 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회복 속도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이 발목을 잡고 내수가 약해 기대와 달리 완만했다. 실질 GDP 성장률(전기 대비)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3월기 +1.3%, 4~6월기 +0.7%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상반기에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7~9월에는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경기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하며 -1.1%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연말까지 연구개발 투자, 탈탄소 관련 투자, 디지털 및 노동력 절감 투자 등으로 설비투자가 견조한 반면, 개인소비는 여전히 부진하여 10~12월기 +0.1%로 국내 경기는 부양감이 부족했다.

2024년 들어서도 일본 경제는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내수가 압박을 받아 경기 회복이 더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질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1~3월기가 -0.6%를 기록했다. 인종 부정 문제로 촉발된 자동차의 대폭적인 생산 감소로 인해 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광범위한 수요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자동차 생산은 반등에 힘입어 4~6월에는 0.7% 증가하며 2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공장 가동 재개로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공급 제약 완화에 따른 승용차 판매의 큰 폭 증가와 수송용 기계 관련 투자 증가가 이뤄졌다. 자동차 관련 수요 회복으로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24년 4~6월의 플러스 성장은 1~3월의 부진에 대한 반동 측면이 강해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가계 부문의 부진이 심각해 민간소비, 주택투자는 2024년 4~6월기에 증가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2019년 평균)과 비교하면 각각 ▲1.2%, ▲11.9%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 경제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7~9월기 이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 경제 전망

일본의 경기 전망에 대한 주요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0.3%~+0.9%, 2025년 +1.05%~+1.2%의 범위에서 예상되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는 민간소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견조한 반면,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외수에 의한 상승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어 완만한 금리인상이 실시될 경우, 금리가 상승하여 설비투자는 일단 정점을 찍고 주택투자는 감소하여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국면이 예상되나, 개인소비는 임금 상승과 심리 개선에 따른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은 해외 경기 회복을 배경으로 증가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우려되는 것은 2024년 가을 기점으로 일본과 미국의 정치 변화에 따른 경기 전망의 불투명성이다. 일본의 경우 2024년 10월 말 중의원 선거에서 기존 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이 과반수 이상 달성에 실패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시바 정권의 불안정한 운영이 불가피하며 2025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유동적인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는 11월 대선 결과 4년 만에 트럼프 정권이 부활하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원: 내각부, 일본은행, IMF, 일본경제연구센터)

4. 정치

가. 정치체제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천황이 군림하나 직접적으로 통치하지는 않는다. 일본은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입법, 행정, 사법) 체제, 그리고 선거와 정치에 있어 일본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규정한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회는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의 양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2024년 11월 1일 현재 참의원 248명(선거구 148명, 비례대표 100명), 중의원 465명(선거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으로 구성된다.

정당별 의석수(2024년 11월 1일)를 보면 자민당이 제1당(참의원 의원 114명, 중의원 의원 191명)이지만, 중의원에서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여당이다.

일본 내각 총리는 국회 양원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 지명하며, 헌법상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2024년 11월 11일 특별 국회에서 지명되어 제103대 내각총리직을 맡고 있다.

나. 최신동향

참의원 임기는 6년, 중의원 임기는 4년이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는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제50회 중의원 의원 선거이다. 선거 결과, 여당인 자민·공명 연합정부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과반수 미달(279→215석)을 기록하였다. 반면, 야당은 의석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등에 실망한 일본 국민들의 표를 받아 의석 수가 크게 증가(98→148석)하였다. 그 밖에 국민민주당도 기존 대비 4배 증가(7→28석)하는 등 높은 상승율을 보였다. 2024년 11월 11일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103대 총리로 재지명되었지만, 중의원 내 지지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수여당 내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소수 여당이 구성한 내각은 정권 운영에 난항을 겪고 결국 단명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2025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 전에 이시바 내각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조기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정국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대외관계

일본은 미일동맹과 국제협력을 기본 외교정책으로 삼고 있다. 특히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외교·안보 정책 상 가장 중요한 위치로 자리잡고 있다.

러우 사태, 미중무역경쟁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동맹 관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수출입 총액의 20%(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핵심 동맹인 미국과 최대 시장 중국 사이의 균형 유지라는 딜레마가 심화되어 해외 생산거점을 다각화 하여 미중무역경쟁 속 공급망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특징

2022년 실질 GDP는 전년 대비 1.3% 증가,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행동, 입국 규제 완화로 관광, 외식 소비 등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방일 외국인 소비액은 5조 2923억 엔(2019년 대비 9.9% 증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라. 정책 · 법령

일본의 주요 법률은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6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법이 규정하는 법률의 제·개정 의결 순서는 ①법안을 국회에 제출→②중의원 또는 참의원 중 한 곳에서 심의(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③남은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심의 진행→④법안 성립이다. 다만, 일본 헌법은 입헌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의 최고법규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제·개정 등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참고로 전후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시바 총리는 2024년 10월 1일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지 불과 8일 만에 중의원 해산했다. 이후 중의원 선거를 거쳐 11월 11일 제103대 총리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1차 이시바 내각에서 행한 10월 4일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기존 공약이었던 아시아판 NATO 창설이나 임미 지위협정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물가를 웃도는 임금 상승 실현, 최저임금 인상, 원자력 발전 활용 등 경제 대책과 내정 과제에 치중했다.

5. 주요산업

가. 개요

일본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힘입어 성장해 왔으며 현재 GDP 세계 4위로 세계 주요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산업인 제조업에서 자동차, 전기, 기계, 화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이 중에서도 자동차산업과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품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도입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철강은 고품질의 강재로 유명하고 건축, 자동차, 전기 제품,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강도, 내구성, 방식성 등의 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화학소재는 자동차, 전자기기, 건축, 농업,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화학 산업도 에너지 절약 기술, 폐기물 삭감,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 성장은 고도의 기술력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품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 등에 기반을 두고,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와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각 나라의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은 새로운 이노베이션 창출과 기술개발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나. 주요 산업별 현황

○ 자동차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의 2023년 세계 생산량은 8개사 중 7개사(도요타, 혼다, 닛산, 마쓰다, 미쓰비시, 스바루, 스즈키)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부족의 영향이 완화되고 있는 점과 북미 등에서의 수요가 호조를 보인 것이 주요 요인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지난해 3월까지 생산을 중단한 미쓰비시 자동차를 포함해 현지 생산 5개사 모두 전년을 밀돌았으며, EV의 확대로 각 사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1위인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그룹 전체 세계 판매량은 약 1,123만대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4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최근 결산(2024년 3월 기준)은 매출액 45조 엔(전년 대비 21.4% 증가), 영업이익 5.3조 엔(약 2배)으로 모두 일본 기업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배경에는 '엔저로 인한 이익 증가(환차익)',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판매 호조', '소비자의 가격 인상 저항력 증가'가 있었다. 반도체로 대표되는 전자부품 등의 공급 제약이 완화되면서 세계 자동차 생산은 2019년 수준까지 회복했다. 자동차 제조는 국경을 초월하여 구축된 공급망을 전제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대두가 급속히 진행되어 미국과의 사이에 통상, 기술, 경제 안전 보장,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대립(디커플링) 등의 결과 세계적 공급망 분단을 초래하게 되었다. 각국의 자동차업체 및 부품업체 등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각 업체의 서플라이 체인(판매 전략, 조달, 생산 등)의 재검토에 주력된다.

○ 철강

2023년 일본 국내 조강 생산량은 8699만6000톤(전년 대비 2.5% 감소),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 5년 연속 1억톤을 밀돌았다. 조강 생산량이 처음으로 1억 톤을 넘어서 1973년 이후 가장 낮은 생산량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년(8318만6000톤)이며, 2023년은 리먼 쇼크 이후 2009년(8753만4000톤)에 이어 20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점을 찍었던 2007년(1억2020만톤)에 비해 3000만톤 이상 축소된 모습이다. 일본 조강 생산량 중 내수용이 60%, 수출이 40%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주요 판매처인 자동차용 강재는 반도체 부족 해소로 2022년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용은 국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강재 수요가 감소했다. 수출도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이 반영되어 전체를 끌어내렸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큰 폭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성장시장 해외사업 강화, 생산설비 집약, 철강재 가격 인상과 고급제품 판매 증가로 '양에서 질'로의 고수익 체질 전환 등을 추진한다. 해외사업 강화로는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 대기업 US스틸 인수, JFE의 인도 철강 대기업 JSW스틸과의 합작회사(방향성 전자기판 제조판매) 설립을 들 수 있다. '양에서 질'로의 전환은 일본제철이 강재 가격 인상과 고급 제품 판매 증가로 2023년 3월기 연결 순이익에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생산설비와 관련해서는 국내 고로 폐쇄와 환경 부하가 적은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전자 부품·반도체

2023년 전자부품·반도체의 수요 동향은 수요의 한풀 꺾임에 따라 민생 IT기기(PC, 스마트폰 등)의 출하량이 감소했고, 경기 불안에 따른 기업의 투자 억제에 따라 산업기기와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도 약세를 보였다. 또한, 일부 세트 메이커(판매처)에서 코로나 사태로 쌓인 부품 재고 조정을 실시한 것과 맞물려 전자부품·반도체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수요 반동 감소와 세트 메이커의 부품 재고 상황이 마무리되고 수요 회복 및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시장 규모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만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의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국내 제조기반 강화를 위한 반도체 신공장 건설 계획의 진전 여부가 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정책에 힘을 쏟기 시작한 2021년 이후 미국, 유럽, 한국, 대만 반도체 기업의 대일 투자액은 총 2조엔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1위 업체인 JSR 인수를 발표하는 등 업계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다. 반도체 신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제조 장비, 소재 등 공급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업 전반의 추가 확대가 기대된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일본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해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가공 무역이 지금까지의 일본 경제 성장을 지탱해 2023년에도 세계 제5위(1위:중국, 2위:미국, 3위:독일, 4위:네덜란드)의 무역대국이 되었다.

제조 및 수출품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1945년 이후는 경공업 및 잡화가 주를 이루었으나 1960년대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철강업·시멘트·비철금속·조선·화학공업이나 이와 관련된 장치산업 제품이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정밀기기와 전자기기가 수출 주력품이 되었고 일본의 무역수지는 2010년까지 흑자 지속으로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2011~2015년 무역수지는 적자를 이어갔고, 2016년과 2017년 자원 및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흑자로 돌아섰으나 2018년 이후 자원 가격 상승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영향으로 다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재무부가 발표한(2024.4.26) 2023년도 무역 통계 속보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3년 연속 적자인 5조 8765억엔을 기록했으나 자원가격 급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금액은 2022년대비 73.4% 대폭 축소로 전환되었다. 수출은 처음으로 100조엔을 넘어선 101조 8980억엔(전년대비 3.7%증가)을 기록했고, 수입은 108조 7745억엔(전년대비 10.3%감소)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액이 줄었으나 엔화 약세는 수입금액 전체를 끌어올려 엔저가 무역수지 적자를 견인하고 있다. 2024년도는 수출확대 및 수입감소 지속되고 자원수입 감소 등으로 무역적자 한층 더 축소될 것이라 전망된다.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재무부가 발표한(2024.4.26) 2023년도 무역 통계 속보에 따르면 2023년(점유율 기준) 일본의 상위 5개국 수출국은 1위 미국(20.0%), 2위 중국(17.6%), 3위 한국(6.5%), 4위 대만(6.0%), 5위 홍콩(4.5%) 순이었고, 상위 5개국 수입국은 1위 중국(22.1%), 2위 미국(10.5%), 3위 호주(8.3%), 4위 아랍에미리트(4.7%), 5위 대만(4.5%)로 집계됐다.

일본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2008년까지 50여 년간 미국이 독보적인 1위였으나 리먼쇼크에 의한 금융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기가 급격히 나빠진 결과 중국이 2009년부터 일본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 되었으나 2023년은 4년만에 미국이 1위를 탈환했다. 3위 이하의 수출국은 한국, 대만, 홍콩, 태국 등 아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해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을 살린 기계류 및 부품, 전기제품 등과 철강이나 비철금속 등이 주요 품목이다.

반면, 일본의 주요 수입 상대국은 중국이 1위로 2002년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 이것은 제품의 국제 가격 경쟁력을 위해 일본 기업들이 노동 임금이 싼 중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제조해 일본으로 수입하는 새로운 경제·무역 체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대만, 태국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신설해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가공 무역이 늘면서 아시아 국가와 지역이 상위권에 올랐으나 근년 자원 및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호주 및 중동 산출국이 상위로 등극했다.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41,645,328,050

2	미국	119,016,718,079
3	한국	44,919,876,848
4	대만	44,543,597,657
5	홍콩	32,255,196,995
6	태국	25,677,876,444
7	독일	17,989,145,463
8	싱가포르	17,935,949,415
9	베트남	17,306,799,267
10	말레이시아	13,081,593,439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64,581,623,314
2	미국	136,300,551,493
3	대만	54,728,908,175
4	한국	52,787,675,964
5	홍콩	35,665,973,136
6	태국	33,203,080,671
7	독일	21,139,078,085
8	싱가포르	20,290,302,724
9	베트남	19,475,256,317
10	말레이시아	15,984,552,583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44,675,047,756
2	미국	140,071,628,541
3	한국	54,272,035,173
4	대만	53,250,219,042
5	홍콩	33,736,245,130

6	태국	32,686,019,626
7	싱가포르	22,543,398,306
8	독일	19,909,305,815
9	베트남	18,642,069,985
10	말레이시아	17,064,219,765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45,455,290,435
2	중국	126,580,896,982
3	한국	46,802,111,317
4	대만	42,820,973,787
5	홍콩	33,266,412,567
6	태국	29,288,203,360
7	독일	19,730,046,321
8	싱가포르	18,728,780,479
9	베트남	17,204,795,255
10	호주	16,851,709,821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64,905,301,037
2	미국	71,971,767,525
3	호주	35,961,321,607
4	한국	27,022,798,244
5	대만	26,895,690,242
6	태국	24,115,929,392
7	베트남	22,271,771,437
8	독일	21,345,540,146

9	사우디아라비아	18,458,577,169
10	아랍에미리트	16,952,253,08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85,934,194,068
2	미국	83,096,681,403
3	호주	52,445,111,716
4	대만	33,807,750,607
5	한국	32,467,145,083
6	아랍에미리트	27,725,676,872
7	사우디아라비아	27,576,561,251
8	태국	26,743,151,509
9	독일	23,739,763,267
10	베트남	23,258,763,845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91,149,825,450
2	미국	90,796,245,676
3	호주	88,641,660,321
4	아랍에미리트	46,474,014,419
5	사우디아라비아	42,351,304,778
6	대만	39,480,040,482
7	한국	33,855,294,704
8	인도네시아	29,032,506,257
9	태국	26,943,693,585
10	말레이시아	26,810,409,737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173,753,632,099
2	미국	83,801,489,340
3	호주	64,988,597,981
4	아랍에미리트	36,971,838,711
5	사우디아라비아	34,682,643,331
6	대만	34,650,801,610
7	한국	30,239,592,570
8	베트남	25,352,010,596
9	태국	24,322,485,976
10	인도네시아	24,101,008,457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 부품품, 반도체 등 제조장치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및 조유, LNG(액화천연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통신기, 의류 및 동부속품 등이다.

2023년도 무역 통계 속보에 따르면 2023년(점유율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수송용 기기(23.4%), 일반기계(18.3%), 전기기기(16.6%)로 상위 3개 품목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품목 구조는 과거 7년간 변화가 없다.

반면,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24.9%), 전기기기(16.1%), 화학제품(10.5%)로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약 52%를 차지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에너지 및 자원 가격 급등과 함께, 원유 및 조유, 비철금속, LNG 등의 증가로, 2016년 이후 광물성 연료가 점유율을 넓히고 있으나, 2023년은 광물성 연료의 수량 감소와 가격 하락 및 화학제품인 코로나19 백신 감소가 계속되어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1,063,707,604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9,161,907,584

3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8,414,560,418
4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4,289,630,361
5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4,159,829,942
6	854232	메모리	12,311,600,011
7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2,042,499,808
8	854239	기타	11,193,130,702
9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7,433,404,741
10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013,193,630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0,382,947,256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9,398,856,241
3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9,350,650,989
4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8,378,544,153
5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7,064,501,256
6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5,478,287,288
7	854232	메모리	14,728,622,446
8	854239	기타	12,176,532,786
9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8,243,829,150
10	844399	기타	7,602,994,547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6,877,963,636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7,767,044,933
3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8,888,937,148
4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7,614,130,679
5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14,994,835,961
6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14,680,032,356
7	854232	메모리	13,388,371,357
8	854239	기타	13,043,643,545
9	271019	기타	12,172,462,881
10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9,218,694,054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6,354,844,381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8,582,503,770
3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24,692,220,030
4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18,794,036,456
5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5,561,509,361
6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13,495,517,469
7	854239	기타	13,488,641,783
8	854232	메모리	11,489,024,296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0,659,051,171
10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9,832,918,996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3,576,139,718
2	271111	천연가스	30,056,903,299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4,908,754,008
4	270112	유연탄	14,817,281,213
5	300490	기타	14,114,559,144
6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1,355,606,429
7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900,653,382
8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9,811,991,747
9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9,659,094,282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9,149,924,436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3,179,061,406
2	271111	천연가스	38,976,904,284
3	270112	유연탄	23,437,379,379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7,976,944,459
5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6,178,570,248
6	300490	기타	15,398,415,166
7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5,073,870,908
8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13,090,589,524
9	854239	기타	12,534,900,147
10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996,379,574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0,922,291,093
2	271111	천연가스	64,254,973,133

3	270112	유연탄	55,381,672,971
4	851713	스마트폰	17,310,502,108
5	854239	기타	17,281,206,424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6,358,749,173
7	300490	기타	14,983,498,325
8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14,137,215,239
9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13,718,132,992
10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3,024,090,628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0,884,609,986
2	271111	천연가스	46,409,861,710
3	270112	유연탄	38,869,486,061
4	851713	스마트폰	17,500,368,685
5	854239	기타	14,923,429,142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3,922,380,221
7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3,090,538,709
8	300490	기타	12,548,301,648
9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11,741,910,435
10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럭(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0,513,562,655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수출금액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19년 연속 3위, 2021년 4위로 하락했으나 2022년 3위로 수출을 확대해 2023년 역시 3위인 무역 상대국이다. 2024년 8월 누계 기준 3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 일본은 수출금액 기준으로 2021년까지 5위였으나, 2022년 4위로 등극해 2023년도에도 4위인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다만 2024년 8월 누계 기준으로는 5위로 순위가 1단계 하락하였다.

과거 일본과 한국의 교역은 일본이 기계나 원자재를 수출하고, 한국이 그것을 기초로 조립·가공하여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양국의 수직 분업 하에서 발전해 왔으나 한국이 소재·부품 등을 직접 제조해 수출하게 되어 제3국에서의 한일 경합은 치열해졌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산업구조가 비슷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부품산업과 자동차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과 수입 품목이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한일 무역의 주요 품목으로 일본은 한국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치, 철강판, 플라스틱 제품, 정밀화학 원료 등을 수출하고 한국에서 석유제품, 철강판, 반도체, 정밀화학 원료, 플라스틱 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반도체 품목의 경우, 일본이 자동차용 반도체나 큰 전류·전압 전동기를 취급할 수 있는 ‘파워 반도체 장치’에 강점을 가지는 반면, 한국은 ‘메모리’ 분야의 기억장치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 같은 품목에서도 특기로 삼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호혜관계를 가진다.

양국은 2016년 이후 정책대화가 끊겼으나 2019년 12월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가 3년 6개월 만에 재개되었고, 2023년에는 12년 만에 재개된 서틀외교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2023년 3월 16일 도쿄/ 2023년 5월 7일 서울)을 가져 양국 관계는 훈풍을 타고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재추진 및 희토류 대체기술 공동 개발 등 양국 경제 협력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2023년 3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실시되어 일본은 반도체 관련 3품목(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에 관련되는 조치 운용을 특별 일반 포괄 허가로 전환해, 같은 해 7월부터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상 국가 카테고리 그룹 A에 추가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이 재검토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무역 자유화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같은 경제협력 네트워크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근접해 각각의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RCEP 협정 발효로 많은 수출품에서 관세 불이익이 해소되어 무역을 통한 경제적 실리와 자유화로 양국의 교류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2023년 기준, 한국의 對일본 수출은 2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고, 수입은 477 달러로 -12.9% 감소한 결과 무역수지는 18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 3분기(1~9월) 기준, 한국의 對일본 수출은 2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고, 수입은 350억 달러로 -2.9% 감소한 결과 무역수지는 1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25,098	46,023	-20,925
2021	30,062	54,642	-24,580
2022	30,606	54,712	-24,106

2023	29,001	47,656	-18,655
2024	22,073	35,049	-12,97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2023년도 무역통계속보(2024.4.26.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6조 5968억엔(전년대비 6.8% 감소)였고, 대한국 수입은 4조 4294억엔(전년대비 0.1% 감소)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무역통계속보(2024.8.29.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3조3291억엔(전년동기대비 3.5% 증가)였고, 대한국 수입은 2조 2445억엔(전년동기대비 9.5%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수출입품목(MTI 4단위) 기준으로 2023년 한국의對일본 수출은 제트유및등유(5.02%), 휘발유(4.79%), 집적회로반도체(4.09%), 나프타(3.04%), 의약품(2.93%) 등의 수출 비중이 높았다.

한편, 2024년 9월 누계 기준은 휘발유(7.23%), 제트유및등유(6.20%), 나프타(4.24%), 화장품(3.36%), 경유(3.06%)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았다.

2023년 한국의對일본 수입은 집적회로반도체(10.61%), 반도체제조용장비(8.04%), 개별소자반도체(3.27%), 열연강판(2.97%), 기타플라스틱제품(2.53%) 등의 수입 비중이 높았다.

한편, 2024년 9월 누계 기준은 집적회로반도체(11.51%), 반도체제조용장비(8.49%), 개별소자반도체(3.39%), 기타플라스틱제품(2.91%), 열연강판(2.55%)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았다.

- 한국의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1	휘발유	1,389	397	992
2	1333	제트유및등유	1,456	22	1,434
3	1334	나프타	882	0	881
4	2273	화장품	802	154	647
5	1332	경유	804	4	800
6	1112	은	836	53	782
7	8311	집적회로반도체	1,187	5,055	-3,868
8	2140	합성수지	802	738	64
9	6134	아연도강판	758	140	618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729	952	-223

- 한국의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1	휘발유	1,596	192	1,404
2	1333	제트유및등유	1,368	19	1,349
3	1334	나프타	936	0	936
4	2273	화장품	742	110	632
5	1332	경유	676	1	675
6	1112	은	657	59	598
7	8311	집적회로반도체	638	4,034	-3,396
8	2140	합성수지	620	595	25
9	6134	아연도강판	606	129	477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17	673	-15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1,187	5,055	-3,868
2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206	3,831	-3,626
3	8313	개별소자반도체	110	1,559	-1,449
4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355	1,205	-850
5	6132	열연강판	672	1,414	-742
6	2110	기초유분	176	1,181	-1,005
7	2262	의약품	849	927	-79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729	952	-223
9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85	799	-515
10	2140	합성수지	802	738	6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311	집적회로반도체	638	4,034	-3,396
2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138	2,975	-2,837

3	8313	개별소자반도체	135	1,188	-1,053
4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69	1,019	-750
5	6132	열연강판	505	893	-388
6	2110	기초유분	275	768	-493
7	2262	의약품	486	682	-196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17	673	-156
9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35	659	-424
10	2140	합성수지	620	595	2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통신용 기기 및 부품

HS CODE	851762	수입액 (US\$백만)	6,854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52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는 아시아-태평양 주요 11개 도시 중 5G 다운로드 속도 7위, 업로드 속도 최하위권으로 다운로드 1위, 업로드 2위인 한국과 비교 시 2배에서 4배 차이 - 일본 민·관의 DX, GX 추진에 따른 통신 인프라 정비 수요 확대 중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년 日 통신기기 수요 총액은 4조 6,296억 엔으로 '21년 대비 30.3% 성장 전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 등 해외 기업들이 통신장비 시장의 80% 점유, 일본 기업인 후지쯔, NEC의 통신장비시장 점유율은 20% 수준 - 최근 통신 인프라 공유 움직임이 활발. 선도기업인 JTOWER는 '22년 NTT 도코모, NTT 동일본, NTT 서일본으로부터 최대 6,209개의 옥외 통신 철탑 매입을 합의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데이터센터 지방 거점 정비(10개소),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인프라 정비 등 정부 정책 수요 활용 필요 - 日 기업이 중시하는 5G 통신 '끊김 없음'과 '안정성'에 대한 납품 레퍼런스 준비 		

○ 무선통신 안테나

HS CODE	852910	수입액 (US\$백만)	357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4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산업의 DX 수요를 기반으로, Beyond 5G, 6G 도입을 위한 기업의 표준기술 개발 및 日 정부의 정책 추진 노력으로 차세대 무선통신 장비 수요는 확대일로 ('23년 말까지 5G 기지국 28만 개 정비)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 전파 관련 산업 규모는 '40년까지 112조 엔으로 성장 전망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키코교, NEC, 마스프로, 닛폰안테나 등의 기업이 무선통신 안테나 제조 중이며, 이 중 덴키코교가 일본 시장 점유율 40%로 업계 1위를 유지 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경제안전보장법에 따라 기간 인프라의 중요 설비는 특정 국가에서 제조되지 않고 사이버 보안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한국 기업에게 기회 특히 정부조달사업 등 추진 시에는 사업자와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 		

○ 시스템 반도체

HS CODE	854231	수입액 (US\$백만)	10,530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491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X를 통한 성장 및 사회 변혁을 도모하는 일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정비, AI 활용 등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 반도체 수요 지속 확대 중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일본 반도체 시장은 1조 145억 엔으로 전년 대비 36.9% 성장 - '23년 수요 조정 등으로 글로벌 시장 전반은 침체를 보였으나, '24년 이후 수요 회복 등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 전망 		

경쟁동향	- 일본은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졌다는 위기감으로 경제안보 중요 물자로 반도체를 지정하고 반도체 개발 및 양산 지원 중 * (TSMC) 규슈 공장 건설 중, 12조 엔 이상 지원 * (라피더스)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표 기업 8개 사가 함께 설립한 기업으로 1조 엔 이상 지원 전망
진출방안	- 시스템 반도체는 일본 최종 유저 기업의 니즈에 적합한 제품을 설계·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이므로, 기술력 있는 우리 기업이라면 충분히 진출 가능성이 있음 - 시장조사를 통하여 기업별 타깃팅할 일본 기업을 설정하고, 반도체 전문상사 등 통한 수출 도모 가능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HS CODE	848690	수입액 (US\$백만)	1,821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324
선정사유	- 일본은 반도체를 중요 물자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 이에 日 내 생산설비 도입 시장 비류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 '22년 기준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액은 3조 6,8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7% 증가. '23년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부진했으나, '24년은 메모리 투자가 회복되며 4조 엔대 이상 성장할 전망 (日 반도체제조장비협회(SEAJ)) - 장비 수요 증가에 따라 부품류 수요도 함께 증가할 전망		
경쟁동향	- 일본은 반도체 제조장비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 * (도쿄일렉트로닉) FPD코더, 디벨로퍼, 에칭장비 등 전 공정 제조장치가 강점인 글로벌 3위 기업 * (아드반테스트) 반도체 후공정 검사 세계시장 40% 차지 * (SCREEN) 세정장치(매엽식, 배치식), 스피ن 스크러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진출방안	-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사의 2차, 3차 벤더사를 통한 부품 납품 - 반도체 장비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일 기업 간 협업 등		

○ 산업용 협동로봇

HS CODE	847950	수입액 (US\$백만)	58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3
선정사유	- 인력 부족,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장 자동화 투자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 규모 확대 추세 - EV 산업 전환에 따라 정밀한 조립 공정이 다수를 이루면서 산업용 협동 로봇 수요가 증가세		
시장동향	- '22년 연간 수주액은 1.2조 엔(전년 대비 3.1% 증가), 생산액은 1.0조 엔 (전년 대비 8.7% 증가), 총 출하액은 1.1조 엔(전년 대비 9.2% 증가)으로 역대급 실적 기록 - 산업용 로봇(HS 8479.50) 수출도 '22년 기준 최근 4년간 연평균 23.6% 성장. 멕시코, 싱가포르, 미국 등 수출 진행		
경쟁동향	- 파낙, 야스카와전기, 가와사키중공업 등 제조 기업이 日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전기차/반도체 산업용 로봇 제조, 해외투자 등 추진 중		
진출방안	- 핵심 부품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日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기업 수요에 맞는 로봇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 필요		

○ 플라스틱 금형기기

HS CODE	8477	수입액 (US\$백만)	554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63
선정사유	- 내연 자동차의 EV 등 전동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라 해당 제품 내 부품으로 필요한 플라스틱 금형의 고부가가치화 진행 중		
시장동향	- '20년 기준 日 금형산업은 생산금액 약 1.5조 엔 수준이며, 고용 인원 7.6만 명 수준으로 추산 -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에서 수요의 약 75%를 보유, 최근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의료기기 등 산업의 수요도 증가		
경쟁동향	- 교와공업, 이케가미금형공업 등 자동차 산업 관련 플라스틱 금형 기업들이 존재 - 최근 중국, 태국 등지에서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3차원 CAD나 신형 공작기계 도입으로 기술력이 향상된 한국에서의 수입도 증가 추세		
진출방안	- 엔드유저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형 제작이 이뤄지는 관계로,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해야 함 - 금형의 단공정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정 및 후공정을 담당하는 日 현지 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해 경쟁력을 갖춰야 함		

○ 드론

HS CODE	8806	수입액 (US\$백만)	177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0
선정사유	- 트럭 운전사의 초과근무 규제가 강화되는 '2024년 문제'를 해결할 유망한 수단으로 드론 등 활용 무인 수송에 대한 수요 증가 - '22년 12월 개정 시행된 민간 항공법(Civil Aeronautics Act)으로 유인 지역에서 가시범위 이상 비행을 뜻하는 '레벨 4 비행'에 대한 금지가 해제되며 일본 내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 - 일본 내 여러 기업이 참여하며 드론 사업 본격화		
시장동향	- '22년 일본 국내 드론 비즈니스 시장 규모는 3,086억 엔으로 추정, '21년 대비 34% 증가, '27년에는 7,933억 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드론 제조사인 DJI를 대체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진행 중		
경쟁동향	- (ACSL) 방재·재해 사양 드론, 풍력 발전기 점검 드론, 굴뚝·보일러·조압 수조 점검 드론, 폐쇄 환경 점검 드론, 물류 드론 등 다양한 용도별 드론 개발 - (사가와 익스프레스) '25년까지 드론 배송 서비스 실용화 방침 발표 - (일본우편) 드론 메이커 ACSL과 함께 개발한 대형 물류 드론 발표('22.12), 우편물 최대 5kg까지 운반 가능, 최대 비행거리는 약 35km - (야마토 홀딩스) 해외 드론 개발 기업과 화물 드론 관련 연구 추진 - (트루비전) 日 스타트업으로 드론 전용 루트인 스카이 로드를 개발해 클라이언트에게 자동으로 최적 비행 루트를 제공 - (NTT그룹) NTT동일본을 주축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OPTiM, 드론 제조사 WorldLink &Company와 함께 드론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NTT e-Drone Technology 설립		
진출방안	- 일본 물류회사 및 상사와 파트너십 체결 및 협업이 효과적 - 무인·스마트 운송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고성능 드론 개발 사업 전개 등 국토교통성의 기체 인증 등이 필요 또한 비행 조작이 가능하려면 조종사 자격증도 필요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함		

○ 창고 관리 운반 로봇 (AGV/AMR)

HS CODE	842710	수입액 (US\$백만)	63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0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 고령화, 다품종 소량 생산 제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운반 로봇 보급 보편화 추세 - 물류·운송업 종사자의 초과근무 규제에 따른 노동력 부족 '2024년 문제' 해결 일환으로 창고/반송물품 관리의 무인화를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시장 전망 밝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무인 운반 로봇 시스템 도입은 821건(전년 대비 4.7% 증가), 납입 대수는 2,441대(전년 대비 6.6% 감소)로 추산 (일본산업차량협회) - 계속되는 노동력 부족과 설비투자 수요 회복을 토대로 AGV/AMR 시장은 '25년 도입 대수 9,950대, 시장 규모는 275억 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야노경제연구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마자키마작, 산토리프로덕트, 야마하 등 기업에서 자동지게차, 무인운반기 등 제조, 제조물품에 더해 실행 시스템을 함께 납품하여 비즈니스를 운영 중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자동화를 추진하지 못한 중소 창고 운영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소기업 시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유망 - AI 활용 창고 관리 시스템 등 물류 정보기술 서비스도 전망 유망 		

○ 수소연료 전지

HS CODE	850780	수입액 (US\$백만)	5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업계, 전동화가 세계적인 흐름 * 세계적인 탈탄소화 움직임과 환경 규제 등 각종 정책으로 '25년 이후까지 FCV 보급이 가속화될 듯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연료 관련 日 국내 시장, '30년 3,963억 엔 규모 전망, '19년의 34배 - 일본은 수소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해 수소 스테이션을 확충하고 있으며, 상용차 FCV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아이신, 파나소닉, 세이키 등 일본 대기업들이 제조 - (산업용) 미쓰비시 파워, 후지 전기, 교세라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암모니아 조달부터 공급망 구축 위한 양국 협력 강화 전망, 양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도 필요 - 일본 내 자동차업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련 동향 파악 및 거래처 확보 		

○ EV용 충전기

HS CODE	850440	수입액 (US\$백만)	2,989
수입관세율(%)		대한 수입액 (US\$백만)	41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35년까지 모든 신규 차량 판매를 전기차로 전환 예정 - EV 충전설비를 '30년까지 30만 구 설치할 예정, 그러나 현재 포함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175억 엔 보조금을 충전설비 촉진 위해 마련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용하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에 대한 기준 마련 - 완속 충전기는 J1772, 급속 충전기는 CHAdeMO 사용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요타, 닛산 등 완성차 업체에서 자사 브랜드 전용 충전설비 설치 - 파나소닉, 테라모터스 등 충전설비 설치 사업에 진입 - 니치콘, 하세텍, 토코타카오카, 신덴겐 등이 EV 충전기 시장을 이끌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도 최근 나타나는 추세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완속 충전기는 일본과 같이 J1772, 급속 충전기는 CHAdeMO에서 DC콤보(CCS1)로 바뀌는 추세 - 완속 충전기 부문에서 같은 모델을 공유 중이므로, 한국 시장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일본 충전시설 관련 벤더사와 네트워크 구축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EV 충전 인프라 도입 촉진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진출 기회를 모색 - 일본의 규격 및 제도에 맞는 제품을 제작하고, 내구성이 강한 설비 개발

○ 태양광 발전장치

HS CODE	854142	수입액 (US\$백만)	118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0
선정사유	- 지자체 중심으로 신규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 대응 움직임 활발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태양전지 시장규모는 6,277억 엔으로 '19년 대비 61.1% 증가 전망 - 도쿄도에서는 '25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의무화하는 방침 표명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프, 교세라, NEDO, JRE, 레노바 등 - CO2 배출 감소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향상도 가능하여 AEON, RICOH, Kawasaki, Hitachi 등 각종 분야에서 도입 중 		
진출방안	- 일본 국내 및 해외 진출한 일본 기업과 적극적 파트너링 통해 시장 진출		

○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액 (US\$백만)	1,071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398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일본의 화장품 수입국 1위는 한국 - '23년 1~7월 대한국 화장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 1위 유지 - 프랑스 등 경쟁국의 수출액이 감소하고 한국은 증가세 (HS 코드 3304 기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기회 증가, 인바운드 수요 회복으로 일본 화장품 시장은 2년 연속 확대 - 그동안 쌓인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각종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일본 혹은 해외 화장품이 차지했던 시장을 한국 화장품이 대체할 가능성이 큼 - 비건 화장품이 유망, '28년까지 10억 달러 이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화장품은 가격 경쟁력, '한류'라는 가치로 일본에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 일본 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도 한국 트렌드를 참고하는 추세임 - 경쟁 제품은 일본의 중저가 제품, 혹은 중국·태국 등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해외 화장품임 - 또한 한국에서의 실적이 일본 시장에서의 인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라이벌은 한국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보다는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Z세대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나 D2C(Direct to Customer) 브랜드에 대한 홍보 활동 필요 - 한국인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미용용품에 대해 지식이 많은 일본인 인플루언서도 홍보 시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함 - 화장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비건 화장품 등 유망. 아시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SDGs 등 착한 소비에 대한 의식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
-------------	--

○ 고령 반려동물용 상품

HS CODE	420100	수입액 (US\$백만)	64
수입관세율(%)	5.3 (WTO)	대한 수입액 (US\$백만)	2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내 반려동물 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식품 및 서비스 판매 확대 추세 - 반려동물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개의 평균 수명 '10년 13.87년 → '22년 14.76년으로 증가. 고양이도 14.36년 → 15.62년으로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의 수는 정체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한 마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식품 및 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것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 고양이의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구토'를 억제하는 제품으로 유명세를 탄 'Allwell사료'(유니참社)가 예상 매출의 두 배 이상을 기록 - 한류백화점 내 '한류 헬로 독' 펫샵, 노령 동물용 산소캡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며, 노령견을 위한 힐케어 대여 서비스도 제공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 필수 인증이 있는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함 - 주요 반려동물 용품점을 공략하는 것 외에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령 반려동물 요양시설(노견홈 등)도 타깃이 될 수 있음 		

○ 소형 정수기

HS CODE	842121	수입액 (US\$백만)	160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60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의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확대됨 - 고가의 정수기 구입 전 저렴하고 설치가 쉬운 탁상형이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통형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20년 일본 정수기 시장은 확대되었으나 그 반동으로 '21년, '22년은 모두 감소 ('22년 일본 정수기 본체 출하량은 약 427만 6,000대) - 그러나 정수기용 카트리지가 출하량은 확대, 재구매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2년 對한국 수입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288만 달러, 중국에 이어 2위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점유율 1위인 TORAY, 정수와 원수 전환하는 레버에 항균 수지를 사용한 수도꼭지 직결형 정수기 '트레비노 카세트 정수기'를 '23.5월부터 판매 중 * 곰팡이 냄새와 염소를 제거하는 '과립형 활성탄', 용해성 납을 제거하는 '이온교환체',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는 '중공사 필터'를 채용한 것이 특징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제품은 이미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으며,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꾸준한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직접적인 B2C(소비자와 직접 거래)가 필요함 -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Makuake 등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며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재활치료 솔루션

선정사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재활치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의료행정 디지털화 및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해 의료 산업의 DX화를 꾀하고 있다.
시장동향	2023년 8월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9.2%, 그 중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6.1%를 기록했다. 또한 고령자 타겟 서비스 시장 규모는 '25년 100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경쟁동향	병원 및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VR 활용 재활치료 솔루션도 등장하는 등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다.
진출방안	타겟과 니즈를 파악하여 수요를 발굴해야 하며, 직접 진입하는 것보다는 병원·요양시설 등 현지 파트너사를 경유한 현지화 및 시장 진입이 바람직하다.

○ 도시광산 시 분별 서비스

선정사유	금, 희토류 금속,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에서 폐가전 등으로부터 유용 금속을 재활용하는 이른바 '도시광산'에 시장의 주목과 정부 지원정책이 모이고 있다. 도시광산의 회수율(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동향	일본 환경성은 '30년까지 도시 광산을 통해 회수하는 금속 자원을 '20년 21만에서 '30년 42만으로 늘리기 위해 도시광산 분야의 육성 지원을 발표하며, 일본 정부는 지난 '23년 8월, ASEAN 과 손잡고 자원순환에 관한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ASEAN 지역에서는 전자제품 폐기물이 급증해 환경오염이 심각하나 이를 재활용할 기술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폐전자제품을 수입하여 도시 광산으로부터의 주요 광물을 확보하고자 한다.
경쟁동향	'23년 기준, 일본 국내 일부 스타트업이 이미지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기판 내 고부가가치 금속을 분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급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진출방안	일본은 대면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등 보수적인 문화가 있어, 한국 기업이 일본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선 현지에 거점을 두거나 일본 내 파트너를 통한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KOTRA의 스타트업 일본 진출지원 사업이나 현지 오픈 이노베이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 현장 지원 솔루션

선정사유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3년 4월, 생산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25년까지 모든 공공사업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CIM(Construction Information Modeling) 도입을 원칙화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노동인력 부족, 후계자 문제로 인한 기술 계승 어려움, 업무 효율화 등의 건설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드워크 지원 솔루션(현장작업 지원 서비스)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시장동향	건설 업계에서는 작업 정보의 입력업무 효율화, 설계·도면 정보의 공유, 작업 원격 지원, 공구 등 장비 관리의 효율화 등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23년 건설 서비스 시장규모(사업자 매출액 기준)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504억 엔 예측(야노경제연구소)된다. 또한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2년 12월 기준 일본에서 BIM을 도입한 기업은 약 48.4% 수준이었다. 일본 필드워크 지원 솔루션 수요는 '21년에서 '27년까지 연 평균 약 32.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2,700억 엔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쟁동향	실시간 영상모니터링을 통한 현장관리용 DX솔루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S사에 따르면, 타 산업은 물론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한 DX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본 스타트업 기업 간, 스타트업 기업과 대학 혹은 대기업이 제휴하는 사례는 있으나 해외기업이 참여한 사례는 많지 않다.
진출방안	메타버스, VR를 이용한 건설 현장 특화 현장지원 시스템 도입 수요 발굴이 가능하다. 건축 관련 현지 전시회에 참여하여 제품 소개 및 기술 시연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 스마트팜 솔루션

선정사유	후계자 문제, 글로벌 곡물 수요 증가, 에너지 가격 상승, 화학비료 원료의 국제 가격 상승 등 일본 농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과 로봇 농기계를 활용해 일본 농업을 매력적인 산업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23년 일본 스마트농업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322억 9,900만 엔이며, 2029년 708억 8,000만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동향	현재 시장에는 스마트 수류 관리 시스템이나 스마트 모심기 시스템, 재배 환경 변화를 파악해 생육지도를 작성하는 리모트 센싱 시스템 등이 보급 확대되고 있다. 5G에 의한 통신 환경의 정비로 고정밀도 화상 및 위치 정보가 활용 가능해져 재배 지원, 로봇 농기계 등 정밀 농업 전반에 걸쳐 농업의 스마트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동향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WAGRI)에 더해 생산부터 유통, 소매까지 연동한 스마트 푸드 체인 플랫폼(ukabis)의 운용이 시작되어 데이터의 공유화가 더욱 활발해져 향후 수급 매칭, 식품 폐기물 삭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진출방안	이미 일본에서 연구개발, 실증실험, 운영되고 있는 분야를 따라가기보다는 관련 시스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본 시장 진출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영상분석, 자동조종 기술, 드론 조종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 물류 플랫폼

선정사유	일본 정부의 DX 추진,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착된 EC(E-Commerce) 시장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일본 현지 물류시장 내 디지털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장동향	일본의 차세대 물류 시스템 시장은 2022년 전년 대비 7.4% 증가한 7,114억 엔을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2021년 대비 78.6% 증가한 1조 1,831억 엔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로봇의 활용과 라스트마일 배송 실현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물류업계 시간외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 따라 예상되는 '2024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DX의 움직임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동향	일본 물류기업(일본우정, 야마토운수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IT기업(NEC 등) 또한 시 기반 물류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출방안	일본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스타트업 피칭세션 등 매칭 행사에 참여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 AI 영상 솔루션

선정사유	코로나19를 계기로 비접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얼굴인식 분야 외에도 매장 방문 고객을 분석하는 마케팅 분야, 제조업에서 불량품을 판별하는 외관 검사 분야 등 AI를 활용한 이미지 분석 시스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높은 비용, 투자 효과의 불투명성 등의 사유로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향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동향	AI 영상 분석 기술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료 소프트웨어의 등장, 미국 IT 대기업의 범용 AI 소프트웨어 도입, 중국 등 아시아계 저가 소프트웨어 등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2022년 영상 분석 시스템 시장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60억 6,000만 엔으로 전망되며 인식률이라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한다면 2025년 106억 5,000만 엔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쟁동향	일본 IT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사와 엔드유저가 협업하면서 제품의 정밀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대형 감시카메라 제조사나 아이리스오야마, 세이피(safie) 등 신생 카메라 제조사들도 자사 장비에 이러한 AI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진출방안	현지 파트너사 발굴, 협업을 통해 자사 보유 솔루션의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하며, 판매 또한 현지 파트너사를 경유한 간접 시장 진입이 유리하다. 우리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실적을 만들어 그 실적을 일본기업에 어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	---

○ 스마트 플랜트 솔루션

선정사유	현재 일본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 또한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어 기기 갱신에 대한 수요가 있음. 인력 리소스 절감 및 시스템 자동화가 필요
시장동향	다양한 업종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장 및 가동 감시, 에너지 사용량 가시화 등 차세대형 유지관리 및 가시화 작업 시작, 또한 품질관리나 외관 검사 등 검사·생산 최적화·작업자 지원 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IT기술 활용 케이스가 증가 중. 최근 대형 설비에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 현장의 IoT 활용도 주목받고 있음
경쟁동향	소프트뱅크, 히타치, 파나소닉 등의 전자·통신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장 스마트화 관련 솔루션 사업을 추진 중
진출방안	각 주요 기업들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재 취약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진출이 효과적일 수 있음. 스마트 플랜트 이용 시 보안상으로 취약해질 수 있으며, 보안 문제 발생 시 공장 가동 안정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스마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제안 가능

○ 프로그래밍 교육

선정사유	일본은 현재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 정보교육 강화 및 인재 육성 환경 정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력 증대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내용 및 제도 변경 추진 중
시장동향	GMO미디어와 후나이총합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2030년 프로그래밍 교육 시장은 1,000억 엔이 넘을 것으로 예상.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프로그래밍에 관한 기술이 늘어날 예정
경쟁동향	초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로 일본 교육 및 IT업계 외에서(완구, 전철회사) 해당 분야 진출 시도가 계속되는 중으로, 소프트뱅크의 Pepper, LINE의 LINE entry, 도쿠주식회사의 Kids VALLEY 등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에 있으며, 시장 진입은 활발해질 예정
진출방안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 교육과정에 맞춘 현지화 작업이 필요함. 또한 현지 플랫폼 업체 및 현지 기업과 제휴 등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또한 현재 프로그래밍 전문 지식이 있는 교원이 적고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대한 공유도 과제로 남아 있어, 교원 스킬 향상 등을 위한 교육과정도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급여 이체 시스템

선정사유	일본 후생노동성, '23년 4월 1일 모바일 앱 간편 결제 서비스(페이)를 통한 급여 이체가 허용되며 일본의 모바일/핀테크 금융환경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23년 4월 1일 급여 디지털 지급이 가능해지며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고,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로의 이체도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후생노동성 지정을 받은 자금이동업체의 계좌도 수취인으로 더해짐. NTT 데이터 경영 연구소에 따르면 디지털 급여 규모는 최대 2조 5,000억 엔 정도로 추산됨
경쟁동향	스마트폰 결제를 비롯한 대형 자금 이동업체들은 디지털 지급이 가능해지자 후생노동성에 빠르게 신청하며 해당 시장 진출을 시작함. PayPay, Rakuten페이, KDDI(au PAY)뿐 아니라 결제 브랜드 'COIN+(코인 플러스)'를 다루는 리크루트 MUFG비즈니스도 후생 노동성에 신청함. NTT도코모 또한 참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진출방안	현재 규제는 해제되었지만, 기업이 도입하려면 사내 규정의 정비 등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이용할 만한 메리트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기업들은 디지털 급여 활용 확대를 위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확충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캐시리스 이용률이 높아지면 자금의 흐름이나 소비동향 분석이 가능해져 새로운 금융,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증권사/보험사/은행/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 이러한 일본 기관 및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은 금융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할 필요성 있음
-------------	--

○ 5G 로컬 서비스 및 IoT 솔루션

선정사유	한·일 양국의 기업이 같은 해외 현지 거점에 있으면 '5G 로컬 서비스 및 IoT서비스'를 통해 부품의 물류서비스 등 공급망을 디지털화 하여 관리가 가능함
시장동향	일본 내 로컬 5G 시장규모는 '21년 20억엔에서 '25년 470억엔으로 공장자동화 및 물류 관리 분야에서 빠르게 증가가 예상
경쟁동향	후지쓰, NTC, NS Solutions, 교세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 다수 통신관련 중소/ 대기업
진출방안	현재 국내 스마트 공장 등 IoT 서비스 및 통신망관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 일본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현지상담회 추진

○ 자동차 부품 R&D 서비스

선정사유	제 3국 진출 국내기업의 일본 완성차 및 Tier 1으로의 부품 공급시 마이너한 설계 변경시 필요한 R&D 서비스 수요 증가 (* 현지 공장의 경우, 연구개발파트가 없는 경우가 많이 R&D 서비스가 필요)
시장동향	R&D 서비스에 필요한 3D설계툴시장은 '22년 146억달러에서 '25년 228억달러로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 될 전망이다
경쟁동향	다쏘시스템 등 해외 솔루션 기업 및 일본 내 자동차 1·2차 벤더 기업들의 설계, 실험 등을 수탁받아 진행하는 중소 업체 다수 존재
진출방안	국내의 R&D서비스 기업과 해외진출 일본 기업에 공급이 확정된 현지 소재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과의 상담 등을 통한 진출 추진

○ AI 비대면 학습 앱

선정사유	일본 정부는 'Society5.0' 실현을 위해 시간·거리 제약 없는 원격 수업,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실현하는 새로운 교육 환경 구축에 박차
시장동향	'20년 일본의 비대면 학습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약 22.4%확대된 2,880억 엔이며, '26년도에 3,469억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일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플랫폼 '미래교실'에 등록된 에듀테크 기업수는 '21.10월 기준 총 185개사로 주요 기업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사 Libry, ICT교재 개발사 SuRaLa Net 등이 있음.
진출방안	공교육·교육기업의 학습 서비스, 기업 임직원 교육 등 B2B 영역을 중심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토익, 토플 등 자격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AI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본에서 더 큰 시장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

○ AI 멘탈 헬스케어 서비스 앱

선정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교류 제한 및 고립된 생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중
시장동향	'20년 일본의 멘탈·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14년 대비 약 2.6배 성장한 217.3억 엔으로 추정됨. 코로나 19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향후 기업이 멘탈·헬스케어 분야 투자가 꾸준히 확대될 전망.
경쟁동향	일본의 멘탈 헬스케어 분야는 카운슬링, 셀프 마인드 관리, 기업 임직원 스트레스 케어, 멘탈 헬스케어 커뮤니티 등 다양하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앱 개발사 'Lafool', AI 대화형 멘탈케어 서비스 제공기업 'emol' 등이 있음.
진출방안	일본 직장인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한국 직장인과 유사한 정신적 문제를 겪는 점에 착안, B2B시장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임직원 멘탈케어·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웹툰·웹소설 앱

선정사유	코로나 사태 이후 전자책,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 증가
시장동향	- '20년 전자책 시장은 4,821억엔, '25년에는 6,700억 엔으로 성장할 전망 - 그 중 '20년 웹툰 시장규모는 4,002억 엔(전년 대비 1,013억 엔 증가) - '20년 웹툰 앱 광고 시장은 260억 엔이며, 무료 웹툰 서비스 증가 추세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경쟁동향	'16.4월 카카오 재팬이 출시한 스마트 기기용 웹툰·웹소설 앱 Piccoma는 '21년에 '세로 스크롤 형식의 컬러 만화'를 제공하면서 신규 이용자가 급증, 월 60억 엔의 매출을 기록
진출방안	이용자의 취향을 반영한 작품 추천, 무료 열람 확대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일-싱가포르 EPA	싱가포르	2002-01-13	2002-11-30	2007년 9월 개정 의정서 발효
일-멕시코EPA	멕시코	2004-09-17	2005-04-01	2007년 4월 추가 의정서 발효, 2012년 4월 개정 의정서 발효
일-말레이시아 EPA	말레이시아	2005-12-13	2006-07-13	
일-칠레 EPA	칠레	2007-03-27	2007-09-03	
일-태국EPA	태국	2007-04-03	2007-11-01	
일-인도네시아 EPA	인도네시아	2007-08-20	2008-07-01	
일-브루나이 EPA	브루나이	2007-06-18	2008-07-31	
일-ASEAN EPA	ASEAN	2008-03-26	2018-05-24	200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효
일-필리핀 EPA	필리핀	2006-09-09	2008-12-11	
일-스위스 EPA	스위스	2009-02-19	2009-09-01	
일-베트남 EPA	베트남	2008-12-25	2009-10-01	
일-인도 EPA	인도	2011-02-16	2011-08-01	
일-페루 EPA	페루	2011-05-31	2012-03-01	
일본-호주 EPA	호주	2014-07-08	2015-01-15	
일-몽골 EPA	몽골	2015-02-10	2016-06-07	
CPTPP11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2018-03-08	2018-12-30	
일-EU EPA	EU	2018-07-17	2019-02-01	
일-미 무역협정	미국	2019-10-07	2020-01-01	
일-미 디지털 무역협정	미국	2019-10-07	2020-01-01	2020년 1월 1일 발효
RCEP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2020-11-15	2022-02-01	2022년 2월 1일 발효
일-영 EPA	영국	2020-10-23	2021-01-01	

<자료원 : 외무성>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일-콜롬비아EPA	콜롬비아	교섭 진행 중(최근 교섭 2015년 9월)	
한중일 FTA	한국, 중국	교섭 진행 중(최근 교섭 2019년 11월)	
일-터키 EPA	터키	교섭 진행 중(최근 교섭 2019년 10월)	
일-GCC(Gulf Cooperation Council) FTA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교섭 진행 중(2024년 교섭 예정)	
일-방글라데시 EPA	방글라데시	교섭 진행 중(최근 교섭 2024년 5월)	
한일 EPA	한국	2011년 이후 교섭 중단	
일-캐나다 EPA	캐나다	2014년 이후 교섭 중단	

<자료원 : 외무성>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진행상황)	규제대상국	최종판정결과(부과기간)	최종판정결과(관세율)
1	281520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반덤핑(규제중)	중국, 한국	○ 부과기간 : 2016.8.9 ~ 2026.8.13	○ 판정결과 · 중국 : 73.7% · 한국 : 49.5%
2	721720	아연도금철선(Hot-dip galvanized iron wire)	반덤핑(규제중)	중국, 한국	○ 부과기간 : 2022.12.8 ~ 2027.12.7	○ 판정결과 · 중국 : 26.5% ~ 41.7% · 한국 : 9.8% ~ 24.5%
3	283640	탄산칼륨(Dipotassium carbonate)	반덤핑(규제중)	한국	○ 부과기간 : 2021.6.24 ~ 2026.6.23	○ 판정결과 : 30.8%

수입금지품목

관세법 69조 제1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기 품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된다.

- 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각성제 원료, 아편 흡연기구
- ② 지정 약물 (의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은 제외)
- ③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 부품
- ④ 폭발물
- ⑤ 화약류
- ⑥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 ⑦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관한 의료 법률 제6조 20항에서 규정하는 1종 병원체 및 21항에서 규정하는 2종 병원체 등
- ⑧ 화폐, 지폐 혹은 은행권, 유가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⑨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
- ⑩ 아동 포르노
- ⑪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 ⑫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행위를 조성하는 물품

관세법 이외 식물방역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의약품·의료기기법에 따라라도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또한 불법이 아닌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허브, 아로마 오일, 입욕제 중에는 마약이나 지정약물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JIS 제도

JIS(일본산업규격)는 일본에서 공업 표준화 촉진을 위한 공업표준화법(1949년)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규격이다. JIS 마크 표시제도는 1949년의 공업표준화법 제정 이래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일본 광공업제품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4년 6월 9일에 공업표준화법이 개정됐으며, 2005년 10월 1일부터 JIS 마크 표시제도가 새롭게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국가가 실시해오던 JIS 마크의 인정은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인증기관)이 실시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대폭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됐다. 구 JIS 마크 제도의 경과 조치 기간은 2008년 9월 30일에 종료됐으며, 2008년 10월 1일부터는 신 JIS 마크 제도로 전면 변경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아래 IoT와 AI 등 정보기술 혁신이 진행되면서 ①데이터,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화 대상 확대 ②JIS 제정 등의 신속화 ③JIS 마크에 의한 기업간 거래의 신뢰성 확보 ④관민의 국제표준화 활동의 촉진 도모에 따라 2019년 7월 1일에 공업표준화법은 산업표준화법으로, JIS(일본공업규격)은 JIS(일본산업규격)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경과조치로는, 구 JIS법에 근거한 JIS는 신 JIS로 간주되며, 구 JIS법에 근거한 JIS 마크 인증과 영문 표기(Japanese Industrial Standards)는 계속 유지된다.

- JIS 인증 대상 품목: 토목, 건축, 기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펄프, 종이, 관리 시스템, 생활용품, 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업, 데이터, 서비스 등의 분야
- JIS 인증 획득 요구사항: JIS 마크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사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계속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JIS 마크 표시인증 취득 흐름: JIS 마크를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국가에 등록된 등록인증기관 관련 정보는 일본공업표준조사회(<http://www.jisc.go.jp>)의 홈페이지 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등록 인증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개별 인증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등록인증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등록인증기관은 「해당 JIS」, 국가가 정한 「인증지침」 및 등록인증기관에서 정한 「인증 수속」을 이용해 심사하고 있다.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일본국내 외), 수입업자(일본국내), 판매업자(일본국내), 수출업자(해외)이다.
-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158개 품목은 한국에서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바, 품목 리스트를 참고
- 참고
 - 한국표준협회 JIS 획득 지원 안내 및 품목리스트 (https://www.ksa.or.kr/ksa_kr/879/subview.do)
 - 경제산업성 JIS 법 개정 관련 홈페이지(www.meti.go.jp/policy/economy/hyojun-kijun/jisho/jis.html)

2) JAS 제도

JAS 제도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JAS 법)에 근거해 농림물자의 ① 품질 개선, ② 생산 합리화, ③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④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농림수산물 대신이 제정한 일본 농림 규격(JAS 규격)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인정하는 ‘JAS 규격 제도’와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농림수산물 대신이 제정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무화하는 ‘품질 표시 기준 제도’의 2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자는 등록 인정 기관(농림수산물 대신의 등록을 받은 기관으로 제조 시설, 품질 관리, 제품 검사, 생산 행정 관리 등의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사업자(인정 사업자)가 된다.

JAS는 규격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평준화규격 JAS이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과 같이 특색있는 JAS인 유기농 제품이 대상이 되는 유기 JAS, 지속가능한 생산을 배려한 제품 등이 포함되는 특색 JAS로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대상 품목은 모든 음료 및 식료품이다. 2024년 11월 기준 53개의 음료 및 식료품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가공식품의 예를 들면, ① 명칭, ② 원재료명, ③ 내용량, ④ 유효기간 ⑤ 보존 방법, ⑥ 원산국 명, ⑦ 수입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이다. 한편 JAS 마크는 식품 종류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다르다.

2022년 5월 25일부로 JAS법이 일부 개정·공포되었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JAS법이 시행되고 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JAS법의 개정 내용은 일본산 농림 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1)JAS규격 제정 대상

에 유기 주류(有機酒類) 추가, (2)외국등급 표시 부착에 관한 틀 정비, (3)등록인증기관 간의 정보공유에 관한 규칙 정비, (4)동등성 교섭 실시 및 JAS규격의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 규정 등이다.

○ 참고

- 농림수산성 JAS 제도 (<https://www.maff.go.jp/j/jas/index.html>)
- 농림수산성 JAS 품목 (https://www.maff.go.jp/j/jas/jas_standard/)

3) PSE 마크

전기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2024년 11월 기준 약 457품목의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지정,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도구다.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모든 전기제품은 아니며 전기용품 안전법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특정전기용품(116개)와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으로 분류된다.

동 법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용품 수입사업 신고서에 의해 소정의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경제산업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한 사업자(신고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경제산업성이 정하는 규격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

특정전기용품은 일본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에 합격해 적합성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도 자주 검사(일본국가가 정한 검사방식에 의한 검사로 등록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가 필요하다. 2024년 5월 기준 등록검사기관 수는 일본 국내 9개 기관, 해외에 6개 기관이 있다.

○ 참고

- PSE Information Center 홈페이지 (<https://www.pse-info.com/pse.html>)
- 경제산업성 전기용품안전법 관련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index.htm>)
- 일본 국내외 PSE 등록검사기관 안내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cab_list.html)
- 특정전기용품 리스트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non_specified_electrical.html)

4) PSC 마크

소비생활용 제품 중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맞는 PSC마크가 없으면 판매가 불가하다. PSC 마크가 필요한 품목은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자기확인 및 자주적 검사의 실시,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돼 있는 '특정제품'과 그 가운데 특히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특별특정제품'으로 분류된다.

대상품목은 특별특정제품이 유아용 침대,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 목욕용 온수 순환기, 라이터 등이다.

특별특정제품 이외의 특정제품은 등산용 로프, 가정용 압력솥/압력냄비, 승차용 헬멧, 석유등유기, 석유 온수 보일러, 석유난로가 있으며, 2023년 6월 19일 자석 오락 용품, 흡수성 합성 수지제 완구가 추가되었다.

○ 인증 가능 기관(등록 검사 기관) : 일본 국내외 총 7개 기관 (일본 국내 6개, 중국 1개)

- 유아용 침대: 일반재단법인 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소(一般財団法人日本文化用品安全試所)
-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 일반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一般財団法人日本品質保機構), (주)UL Japan
- 목욕용 온수 순환기: 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一般財団法人電安全環境研究所), 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一般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査協), (주)UL Japan
- 라이터: 일반재단법인 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소(一般財団法人日本文化用品安全試所), 일반재단법인 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一般財団法人日本燃機器査協), 중국 Ningbo Zhongsheng Shanpin Cexun Gongsi(寧波中盛產品測有限公司)

○ 참고 : 일본경제산업성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shouan/act_outline.html)

5) PSTG 마크

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용 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4가지 품목(가스 순간 급탕기, 가스 온수 난방기, 가스스토브, 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 목욕용 버너)은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TG마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하다. PSTG마크가 요구되는 품목에는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자기확인 및 자주적 검사의 실시,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돼 있는 가스 용품'이 있으며, 구조, 사용조건, 사용 상황 등으로 보아(특히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특정가스용품'이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특정 가스용품(반 밀폐 연소식 가스 순간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 목욕용 버너)와 특정 가스용품 이외의 가스용품(개방연소식 혹은 밀폐연소식 혹은 옥외형 가스순간 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달린 목욕탕용 보일러·가스 레인지)이 있다.

- 인증가능기관 : 一般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査協(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 참고 : 일본경제산업성 가스사업법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gasji)

6) PSLPG 마크

액화석유가스(LPG)용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기기' 및 '특정액화 석유가스기기'는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LPG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 중 '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는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 돼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기(휴대용 가스버너(레인지), 반밀폐식 액화석유가스 순간 급탕기, 반 밀폐식 액화석유가스용 스토브, 욕실용 보일러 등),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기 이외의 액화석유가스기기(일반가스풍로, 개방식 혹은 밀폐식 또는 옥외식 액화석유가스용 순간 온수기·스토브)가 있다.

- 인증가능기관 : 一般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査協(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 검사협회), 一般財団法人日本エルピー一ガス機器査協(재단법인 일본LP가스기기검사협회)
- 참고 : 일본경제산업성 석유화학 가스 사업법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ekiseki/index.html)

7) J-MOSS 마크

전기전자기기에 함유된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JIS규격(JIS C 0950)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7개 품목제품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6가지 물질이 함유율 기준치를 넘는 경우 J-MOSS 마크(오렌지색)의 표시와 함께 함유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지정된 7개 품목인 PC, 유닛형 에어컨, TV 수신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가 있다.

전기·전자기기의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표지 방법(JIS C 0950)에 따라 각 사업자가 표시해야 한다. 특정 화학물질은 납[Pb]·수은[Hg]·카드뮴[Cd]·육가 크롬[Cr (VI)]·폴리브롬화 비페닐[PBB]·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이다.

- 참고 :
 - 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home.jeita.or.jp/eps/epsJmoss.html>)
 - J-MOSS마크 문의처: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리사이클추진과 상무정보정책국 정보통신 기기 부문 (전화번호 +81-3-3501-1511)
 - 제품 포함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 (https://www.meti.go.jp/policy/recycle/main/3r_policy/policy/j-moss.html)

8) 가정용 계량기 마크

일본 계량법에 규정된 기준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로 이 계량기 마크가 없는 관련 제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다. 대상품목은 체중계, 조리용 계량기다.

- 인증가능기관 : 각 제조업자가 경제산업성이 제정한 기준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자기확인
- 참고 : 경제산업성 계량기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economy/hyojun/techno_infra/12_gaiyou_keiryoubi.html)

9) 검정인(印), 기준적합인

거래 증명 등에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도도부현 지사 등이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검정인이 없는 계량기는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시에 검정기관이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는 검정 증인과 지정제조사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아 계량기를 제조한 경우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적합증인(검정증인과 같은 효력)이 있다.

대상품목은 업무용 계량기, 가스미터기, 수도 계량기기, 혈압계, 압력계, 체온계, 택시 미터기 등이다.

- 인증가능기관 : 각 도도부현의 계량검정소
- 참고 : 동경도 계량검정소 계량 검정에 관한 홈페이지 (www.shouhiseikatu.metro.tokyo.jp/keiryoi/)

10) 특정 보건용 식품 마크

특정 보건용식품(조건부 특정보건식품 포함)은 식품이 지닌 보건 효과를 표시해 판매되는 식품을 일컬으며,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마다 식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 정부로부터 표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섭취로 특정 보건 목적에 효과가 있음이 인정된 특정 보건용식품과, 특정 보건용식품에 요구되는 유효성의 과학적 근거 기준에는 못 미치나 일정 수준의 유효성이 확인된 조건부 특정 보건용식품이 있다.

대상품목은 특정 보건용 식품(신체의 생리학적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보건기능성분을 함유하는 식품.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을 정상수치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거나, 장애 좋은 식품 등 특정한 보건효과가 있는 보건식품)이다.

○ 인증가능기관 : 특정 보건용식품으로 인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청 식품위생과, 소비자 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등의 행정조직에 의한 다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절차의 한 단계로서 식품 성분분석에 관해서는 이하의 외부 시험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 一般財団法人 日本食品分析センター(일반재단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 一般財団法人 食品環境査協(일반재단법인 식품환경검사협회)
- 一般財団法人 食品分析開センター SUNATEC(일반재단법인 식품분석개발센터 SUNATEC)
- 一般財団法人 日本食品査(일반재단법인 일본식품검사)
- 地方立行政法人 大阪健康安全基盤研究所(지방독립행정법인 오사카건강안전기반연구소)

- 참고 : 소비자청 특정 보건용 식품마크 홈페이지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for_specified_health_uses/)

TBT

공업 분야의 일본 국가 공업규격 JIS가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건축기준법, 고압가스보안법, 소방법, 약사법 분야에서는 해외표준규격과 상관없이 법률이 강제적으로 JIS 규격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각종 업계단체 및 컨소시엄 등이 독자적으로 정한 '업계규격'이 존재해 일본시장진출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로봇공업회 규격 : <https://www.jara.jp/various/standard/index.html>
- 공작기공공업회 규격 : <http://www.jmaa.or.jp/japan/kikaku.html>

- 전기공업회 규격 : <https://www.jema-net.or.jp/Japanese/standard/>
- 전선공업회 규격 : <https://www.jcma2.jp/jcs/index.html>
- 조명공업회 규격 : <https://www.jlma.or.jp/led/kitei.htm>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일본 법률상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외표준규격이 일본 내에서 통용되지 않고 있다. 2014년 11월 약사법 대 개정으로, 법률명이 약사법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이라고 개칭됐다. 의약품 의료기기법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각 분류는 심사기관 및 허가, 인가 등으로 국가로부터의 인증 방식이 다르다.

- 일반의료기기(클래스1) : 체외진단용기기, X선 필름, 치과 기공용 용품 등, 리스크는 낮음. 신고가 필요. 자기인증
- 관리의료기기(클래스2) : MRI, 전자식혈압계, 전자내시경, 초음파진단장치, 치과용 합금 등. 리스크 비교적 낮음. 승인 또는 인증. 인증 기관은 PMDA 또는 RCB
- 고도관리의료기기(클래스3) : 투석기, 인공 뼈, 관절, 인공호흡기. 리스크는 중간에서 높음. 승인 또는 인증. 인증 기관은 PMDA 또는 RCB
- 고도관리의료기기(클래스4) : 페이스메이커, 인공심장. 리스크는 중간에서 높음. 승인. 인증 기관은 PMDA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관세법】

※관세율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3년 법률 제6호)

공포일: 2024년 3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1일

잠정관세율 적용기간 연장, 개별 품목(루이부스) 관세율 재검토, 수입 절차 편의성 향상을 개정한 법률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재무성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https://www.mof.go.jp/about_mof/bills/213diet/ka20240206g.htm)

- 정부 전자 법령 데이터베이스 'e-Gov '(https://laws.e-gov.go.jp/law/143AC0000000054/20220401_504AC0000000005)

관세율 알아보는 법

분류 품목별로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분류 중 자사의 품목이 해당되는 HS Code 2자리를 확인한다. 확인한 분류 품목에 링크된 세율 버튼을 클릭해, 중분류 소분류에 기재돼 있는 상세내용에서 분류 품목과 해당 품목의 HS Code 6자리를 확인 후, 관세를 확인한다.

○ 일본 관세청 관세율표

- (영문) : 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4_04_01/index.htm

- (일문) : https://www.customs.go.jp/tariff/2024_04_01/index.html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HS Code 검색이 어려울 경우, 현행 HS Code 6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므로, 한국 관세청이 운영하는 '관세 법령 세계 포털 3.0' 페이지에서도 품목별 해당 HS Code가 확인 가능하다.

- 한국 관세청 '관세법령 세계 포털 3.0'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한국 관세청 고객센터 : 125(해외에서는 +82-2-3438-5199)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운송량

○ 일본의 주요 무역항 및 운송량

일본 전국에는 약 993개의 항만이 존재하며, 일본의 주요 무역항은 5대 국제전략항만으로 불리는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항 등 일본 주요 거점과 연계된 무역항이 있다. 그 외 카타, 시미즈, 기타큐슈 등 18개 국제거점항만이 존재한다. 각 대도시 항만을 통해 도착한 화물은 철도, 트럭 등 내륙 운송을 통해 일본 각지로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취급량은 2023년 기준 도쿄항 4,570,856TEU, 요코하마항 3,021,068TEU(2023년 기준), 고베항 2,835,128TEU, 나고야항 2,698,118TEU, 오사카항 2,130,411TEU(2022년 기준)로, 수도권(도쿄, 요코하마) 및 관서 지역(나고야, 고베, 오사카)을 중심으로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 對한국 주요 무역항 및 운송량

한국과의 주요 교역항은 하카타,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고베, 나고야항 등으로, 일본의 주요 항만 이외에도 하카타항, 기타큐슈항 등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한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무역항별 대한민국 컨테이너 운송량은 도쿄항 2,055,345TEU(2023년 기준), 요코하마항 1,256,874 TEU(2022년 기준), 오사카항 4,159,387 TEU(2022년 기준)이다. 2023년 해상 운송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21,760,082TEU로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과거 6번째로 높은 물동량을 기록하였다.

2) 주요 공항 및 운송량

○ 주요 공항: 일본의 주요 국제공항은 나리타, 관서, 도쿄(하네다), 주부(나고야) 등으로, 일본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그 외,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로 공항이 존재하고 있어 국내 화물 운송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활주로 길이가 2,000m 이상인 공항 수는 일본 전국에 66개소 존재한다.

○ 주요 공항 운송량: 2023년 국제화물 항공 운송량은 136만 2,090t으로, 전년대비 12.2% 감소하였다.

3) 물류 관련 기타 참고사항

국제 물류비용은 코로나19 사태 및 세계적 물류난으로 인해 비용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원거리 항로를 중심으로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은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 한국-일본간 해상운임은 한국 부산 출발-일본 도쿄 도착(수출) 635(단위 : 천원/2TEU), 일본 출발-한국 도착(수입) 1,336(단위 : 천원/2TEU)이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 절차

수입 신고는 수입자(송장에 기재된 수취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 업체에 대행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화물로 수입한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일본에 화물 도착 후 선박회사(항공사) 혹은 대리점에서 도착통지(Arrival Notice)가 온다.
- 통지를 보낸 곳에 가서 운송 관계 서류(납품 주문 등)를 받는다.
- 송장(Invoice), 운임 명세서 등 통관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다.
-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 허가서와 납품서를 창고에 제시해 화물을 받는다.

○ 통관에 필요한 서류

- 수입(납세)신고서
- 인보이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 필요에 따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료명세서,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기타 법령 관계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 관세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화물이 있을 경우, 화물 종류에 따라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증(식물방역법 등), 특허원산지증명서(특혜관세를 받을 경우), 감면세명세서(감면세를 받을 경우) 등 세관에서 수입 허가를 받기 전에 관련 법령 담당 부처에서 해당 법령에 의거한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개인 통관 절차

○ 일반화물로 수입

상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항공사 등으로부터 제품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송장, 운임 명세서 등 수입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화물 보관 관할 세관에 가서 수입 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수입

국제 택배를 이용한 경우의 통관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한다.

○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과세 방식)

-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의 수입(납세)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진행한다.
- 우편물(수입품)은 통관 교환국에 보관되어 수입자에게 4가지(도착보고, 통관 위탁증, 통관 업무 규약, 답변용 봉투)가 보내진다.
- 통관 절차는 일본 우편 혹은 임의의 통관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심사 후 통관 교환국에서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서, 통관 요금 청구서 등이 온다. 해당 요금 지불 등을 끝마치면 수입품은 우편물로 배달된다.

○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 이하의 경우(부과 과세 방식)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하의 경우: 받는 사람에게 과세 통지서와 우편물이 배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초과 30만 엔 이하의 경우: 우편 사업 주식회사에서 전화 연락이 온다. 배달을 희망하고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 세금의 합계액이 30만 엔을 넘는 경우: 우편물 배송은 불가하며, 송부된 과세 통지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우체국 등에 가서 납부서를 받아 은행 창구 등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통관 시 유의사항

개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는 경우와 통관업자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모두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국내 법률로 인한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에는 예를 들어, 판매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것, 판매를 위한 규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것, 정해진 표시 없이 판매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현재는 국제화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통관 업무는 컴퓨터 시스템(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NACCS)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통관업체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통관 절차는 수입 신고 외에도 검사 및 신고 등 각종 신고 혹은 신청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을 고려하면 통관업자에게 위탁하는 쪽이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어 유리하다.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일본통운(日本通運)

주소	東京都港東新橋1丁目9番3
전화번호	+81-3-6251-1111
홈페이지	https://www.nittsu.co.jp/
비고	문의처: https://www.nittsu.co.jp/contact/web/?link=top_mega_navi_6

○ 히타치물류(日立物流)

주소	東京都中央京橋2丁目9番2 日立物流ビル
전화번호	+81-3-6263-2800
홈페이지	http://www.hitachi-transportssystem.com/jp/
비고	문의처: https://www.hitachi-transportssystem.com/jp/faq/

○ 킨테츠 익스프레스(近エクスプレス)

주소	東京都港南2-15-1 品川インターシティA棟24階
전화번호	+81-3-6863-6440
홈페이지	https://www.kwe.co.jp/
비고	문의처: https://www.kwe.com/jp/queries/

○ 세이노 로지스틱스(セイノロジスティックス)

주소	浜市西みなとみらい2丁目3番地1 クイーンズタワーA11階
전화번호	+81-45-682-5311
홈페이지	http://www.logix.co.jp/
비고	문의처: https://www.logix.co.jp/contact

○ 미츠이창고(三井倉庫)

주소	東京都港海岸3丁目22番23 MSCセンタービル
전화번호	+81-3-6400-8011
홈페이지	https://www.mitsui-soko.com/
비고	문의처: https://www.mitsui-soko.com/contact/

○ 알프스물류(アルプス物流)

주소	神奈川県横浜市港北新羽町1756
전화번호	+81-45-531-4133
홈페이지	https://www.alps-logistics.com/
비고	문의처: https://www.alps-logistics.com/jp/inquiry/cargo/index.html

○ 국제익스프레스(際エクスプレス)

주소	東京都品川東品川4丁目12番6 品川シーサイドキャナルタワー14階
전화번호	+81-3-6748-0600
이메일	japan@ks-exp.com
홈페이지	https://www.kokusaexpress.com/jpn/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일본의 대내 직접 투자 관리 제도
 - 근거법규: 외국인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
 - URL: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4AC0000000228
 - 정의: 하기 URL 참조 (외환법 Q&A 대내 직접투자·특정취득 편 1p)
 - URL: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data/tn-qa.pdf>
 - 법 개정 (2020년 6월)
 - URL: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data/t_naito.pdf
 - 변경 내용: 국가안전 보장의 강화 및 안전한 투자촉진을 위해 ①사전신고 면제 제도 도입(외국금융기관, 일반투자가 및 품목에 따라 적용) ②사전심사 대응을 강화(신고 기준 10%→1% 이상으로 엄격화)
 - 규제방식: 외환법은 안정보장 등의 관점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 투자가가 대내 직접 투자 등을 행할 때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투자내용의 변경 혹은 중지 권고·명령할 수 있다. (외환법 26조, 27조)
 - (핵심업종) 국방, 에너지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로,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 (핵심업종 외 지정업종)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사전 신고는 면제되지만 사후 신고가 필요하다.
 - 심사주체: 재무성 및 사업소관성청
 - 대상 분야·업종: 국가의 안전·공공질서 등의 관점에서 무기·에너지 사업 등을 규제
 - 벌칙: 무신고 투자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100만 엔 초과 시, 목적물의 3배 이하)
- 투자신고 절차
 - 사전신고
 - 사전신고는 거래 혹은 행위를 이행하려는 날의 40일 전까지, 직접투자 명령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일본은행을 경유해 재무대신 및 사업소관대신 앞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외환법 27조 1항, 직접투자명령 3조 3항). 제출 부수는 재무대신+사업소관대신 수+2통(직접투자명령 3조 3항).
 - 대내 직접 투자의 사전신고는 재무 대신 및 사업소관 대신이 일본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심사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신고서를 수리한 날부터 계산해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신고한 거래 혹은 행위를 이행할 수 없다(이 기간을 금지 기간이라 부름). 즉, 심사 기간이 업종 및 투자 내용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외환법 2조 2항, 직접투자명령 10조 2항).
 - ICT기술을 활용한 행정수속 추진을 위해 일부 법개정 실시.
 - 일본은행에 제출하는 대내 직접 투자 사전신고를 일본은행 외환법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짐.
 - URL: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t-denshi/index.htm>
 - 사후 보고
 - 사후보고는 거래 혹은 행위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익월 15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까지) 직접투자 명령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일본은행을 경유해 재무대신 및 사업소관대신 앞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외환법 55조 52항, 직접투자 명령 6조 31항). 또한 제출 부수는 재무대신+사업소관대신 수(직접투자 명령 6조 2항)로 준비해야 한다.
- 외국투자가 정의
 - ① 비거주자 개인

- ②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외국에 주요 거점을 둔 법인 또는 단체
- ③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진 의결권 비율이 50%를 넘은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④ 조합 및 조합유사단체의 출자비율 50% 이상을 보유하는 조합원 또는 관련 조합원의 과반수가 특정외국투자가인 경우
- ⑤ 법인 및 단체에서 (① 비거주자 개인이 임원 또는 대표권한 보유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

투자인센티브

- 일본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화된 우대조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화된 것은 없지만 외국인 투자기업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존재한다.
- 「지방거점강화세제」에 의한 세금우대조치
 - URL: <https://www.chisou.go.jp/tiiki/tiikisaisei/sakusei.html>
 - 대일 직접투자를 통해 도쿄권 이외의 지방도시(일부 대상 외 지역도 있음)에 일본 지사 및 연구소 등의 본사기능을 개설, 확충한 경우 또는 도쿄 23구에 본사기능을 가진 외자계 기업이 도쿄 23구로부터 본사기능을 도쿄권 이외의 지방도시로 이전한 경우 지방거점 강화 세제에 의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 지방에 있어 본사기능을 개설, 확충한 경우
 - 설비투자 감세(오피스 감세)
 - 대상 : 특정업무시설(본사기능)의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 취득가액 : 2,500만 엔 이상 (중소기업 1,000만 엔 이상)
 - 세제조치 : 특정업무시설의 취득가액에 대해 특별상각 15% 또는 세액공제 4% (확충형 사업의 경우)
 - 고용촉진 세제
 - 고용자 증가 1명에 대해 최대 90만 엔을 세액 공제
 - 2018년도 이후 적용요건이 완화됨
- 이외 외국인 투자기업도 대상이 되는 일본 내 인센티브 중에는 특구, 샌드박스제도(신기술 등 실증제도), 연구개발 세제, 외국으로부터 고도 인재 도입 우대조치, 재해부흥지원 관련 인센티브 등이 있다.
 - ※ 인센티브 예시
 - 의약품 개발 벤처 생태계 강화 사업
 - 백신 생산 체제 강화를 위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 거점 등 정비 사업
 - 데이터센터 지방 거점 정비
 - 포스트 5G 정보통신 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 사업
 - 첨단 반도체 국내 생산 거점 확보
 - 청정에너지 자동차·인프라 도입 촉진 보조금
- ※ 상세 내용은 경제산업성 '외국계 기업도 이용 가능한 기업용 인센티브' 참조
<https://www.meti.go.jp/policy/investment/index.html>
- 한편 지방자치체의 경우 외자계 기업만 대상으로 한 우대조치가 존재한다.
 -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 예
 -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외자계기업등 보조금"
 - URL: <https://www.invest.indus.pref.ibaraki.jp/>
 - 거점설립에 드는 경비(시장조사비, 등기비용 등)을 2분의 1 이내 (200만 엔 이내)보조
 - 임대개시로부터 12개월 이내 사무소 등의 임대료를 2분의 1 이내 (240만 엔 이내) 보조
 - 연구개발비(인건비, 외주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등)을 4분의 1 이내(200만 엔 이내) 보조
 - 카나가와현 "셀렉트 카나가와 NEXT 기업유치촉진 임대료 보조금"
 - URL: <https://www.pref.kanagawa.jp/docs/pw3/selectkanagawanext/index.html#menu>
 - 현내 재투자하는 외자계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연구소, 사무소 등의 임대료 보조(3분의 1, 600만 엔 상한)

- 치바현 "외국계기업 임대료 보조금"

·URL: <https://www.pref.chiba.lg.jp/rich/gaishi-yuuchi/gaishi-chinryou.html>

·임대료 보조(임대료 연액 3분의 1 또는 보조 한도액 중 낮은 금액. 보조한도는 사업 종사자 5인 미만은 60만엔, 5인 이상은 180만엔)

※ 그 외 상세 내용은 하기 URL 참조 'JETRO 외국·외국계 기업용 인센티브 등'을 참고: <https://www.jetro.go.jp/invest/support.html>

제한 및 금지(업종)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진출이 가능하며 사후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 일부 업종은 사전신고를 하거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 업종으로는 하기 업종이 해당한다.

- 방위 관련(무기, 항공기 등)
- 군사 전용 가능한 화물 관련(수출관리 대상품의 제조업)
- 공익사업(전기, 수도, 방송 등) 등

※ 상세내용은 하기 URL 1p 외환법 Q&A 대내 직접 투자·특정취득 편 참고: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data/tn-qa.pdf> (2021년 10월 개정)

사전신고 대상 업종이 엄격화되어 지정 업종 중 핵심업종에 해당된 것은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 사전심사 대상 업종 : 국가의 안전·공공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무기·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핵심 업종

·핵심업종① (2020.06.07. 부 적용) :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군사전용 가능 제품, 사이버 보안, 전력, 가스, 통신, 수도, 철도, 석유업의 총 12개 분야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press_release/kanrenshiryou01_20200424.pdf

·핵심업종② (2020.07.15. 부 적용) : 의약품·고도관리의료기기

<https://www.meti.go.jp/press/2020/06/20200615001/20200615001-1.pdf>

·핵심업종③ (2021.10.5. 부 적용) : 광물 자원

<https://www.meti.go.jp/press/2021/10/20211005005/20211005005-1.pdf>

·2023년에는 특정주요물자(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지정) 관련 업종도 사전심사 대상에 추가

* 안보심사 대상 분야

: 무기, 항공기(무인 항공기 포함), 우주개발·원자력 발전 제조·수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범용품 제조업, 감염병 관련 의약품 제조업, 고도관리 의료기기 제조업, 주요 광물자원 관련 금속광업 및 제련업, 특정 섬 지역 항만 설비 정비 건설업, 비료(염화 칼슘 등) 수입업, 영구자석 제조업 및 소재 제조업,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제조업, 반도체 제조장치 등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및 소재 제조업, 선박 부품(엔진 등) 제조업, 금속 3D 프린터 제조 및 금속분말 제조업, 사이버 보안 관련 업종, 인프라 관련 업종, 경비업, 농림수산업, 피혁 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해운업 등

<사전심사면제제도>

- 특정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제도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단, 핵심 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제도 이용 범위가 제한됨과 동시에 준수 필요 요건 가중

1) 면제 기준

- 외국투자가 자신 혹은 그 관계자가 임원으로 취임 불가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양도·폐지를 주주총회에서 제안 불가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기술정보 접근 금지

2) 가중 기준

- 지정 업종 중 핵심 산업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이사회 혹은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집행하는 위원회 참석 불가
- 지정 업종 중 핵심 산업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이사회 측에 기한 내 회답 혹은 행동을 요청하는 서면 제안 불가

* 핵심 산업이란 지정 업종 중 국가 안전 등의 관점에서 별도로 추가 관리하는 업종(예시) 무기, 항공기, 광물자원 34종 관련 사업, 의약품 및 고도관리 의료기기 등

4) 사후 보고

- 사전심사면제제도를 이용한 경우, 투자 후 45일 이내에 면제 기준 준수를 서약하는 취지를 담은 사후보고서 제출 필요
- 사전심사면제제도를 이용한 외국투자가가 추후 외국 정부 혹은 그 피지배 기업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투자는 사전심사 누락으로 조치 명령(주식 판매 등) 혹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대상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일본은 한국과 같은 외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산업단지 지역 등을 특별히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마다 공업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가전략특구 등은 존재한다.

○ 국가전략특구

-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이 「국가전략 특별구역(이하, 국가전략 특구)」이다. 해당 특구 한정으로 의료와 농업, 도시개발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산업과 고용을 창출, 지역 활성화를 지향하는 제도이며 부처 및 업계 단체 등의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岩盤規制 : 규제 혁신이 어려워 뚫기 어려운 돌과 같다는 의미)」를 타파하는 비장의 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근거법인 국가전략 특별구역법은 2013년 12월에 성립, 2014년 5월에 6구역(1차 지정)이 선정된 이후 2015년 8월 추가로 3구역(2차 지정), 2016년 1월에 3구역(3차 지정), 2022년 4월 3개 지역(슈퍼시티 디지털전원 건강특구 지정)이 추가되어 2023년 현재 총 12개 지구가 지정됐다.(참고: 존 추가 시 등의 집약으로 인한 단순합과는 다름)

- 규제개혁 분야로는 2022년 4월 기준, 11개(도시재생, 창업, 외국 인재, 관광, 의료, 간호, 보육, 고용, 교육, 농림 수산업, 가까운 미래 기술샌드박스, 전국적 실현) 특구 중점 항목의 64개 사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57개 사항 등으로 총 121개 사업이다. 규제개혁 사항 활용 사업(구역 계획)을 구역회의에서 결정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내각총리 대신이 인정하는 것이 기본 흐름으로, 2023년 3월 시점에서 규제 개혁 사항 활용 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437개에 이른다.

○ 기존의 특구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 일본에는 아베 정권의 국가전략특구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구조개혁특구」와 「종합특구」라는 기존의 특구가 존재하고 있다. 「구조개혁특구」는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23년 4월 기준, 각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국가 규제 특례를 인정하여 지역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구조개혁특구계획(인정)이 1,402건에 이른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나라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4월 시점 구조 개혁 특구 계획(인정된 것)은 1,377건 존재한다.

- 한편 「종합특구」는 민주당 정권 때인 2011년에 시작된 제도로 정부의 신성장 전략에 기초하여 선진적 대처를 하는 구역에 정책자원을 집중시키는 제도이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힘을 향상시킬 목적의 「지역활성화종합특구」(41 지역)과 국제경쟁력을 갖고 산업을 육성할 목적의 「국제전략종합특구」(7 지역)의 2종류가 있다.

- 기존의 특구와 국가전략특구의 차이는 기존의 특구는 지정 대상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가전략특구는 구역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의 특구는 규제 완화나 배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신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나, 국가전략특구에서는 구역에서 나온 제안을 기반으로 정부 주도로 방침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총리가 의장이 되는 자문 회의가 설치된 것에도 국가 주도의 특구라는 색채를 반영하고 있다.

* 참고 : 내각부 국가전략특구 홈페이지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index.html>)

○ 지역대상 대일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

- 2018년 5월, 일본정부가 개최한 "대일직접투자 추진회의"에서 지역특색을 내세운 지자체별 외투기업 유치전략 「지역대상 대일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사무국: 경제산업성, JETRO) 운영 실시를 결정하였다.

- 이후, 구체적인 유치활동 지원을 프로그램 참가 각 지자체가 실시했다. 현재 삿포로(2020년 7월), 히가시 히로시마(2021년 3월)를 비롯한 총 30곳의 지자체가 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각 지자체가 특색이 있는 투자입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 참고 : JETRO '지역대상 대일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 (https://www.jetro.go.jp/invest/jetros_support/localgovernments/)"

산업단지

○ 우츠노미야 니시 핵심 공업단지(宇都宮西中核工業地)

규모	142ha
위치	토치기현 토치기시, 카누마시(木市, 鹿沼市)
임차료	416~522엔/㎡/년(양도단가: 13,530~16,980엔/㎡, 조성 후 가격)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치기현 토지개발공사 사무부(木土地開公社業務部) - 전화: +81-28-622-6597 - 홈페이지: https://www.tochigi-tkk.or.jp/

○ 키타우라호 복합 단지

규모	192ha
위치	이바라키현 나메가다시 나가노에, 산와(行方市長野江, 三和)
임차료	임대 가능, 상담 필요(양도단가: 12,500~12,800엔/㎡, 조성 후 가격)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바라키현 산업전략부 산업기반과(茨城産業略部産業基盤課) - 전화: +81-29-301-2752 - 홈페이지: http://www.pref.ibaraki.jp/kikaku/jisui/jisui.html

○ 시모노베 공업단지

규모	48ha
위치	시즈오카현 이와타시(磐田市)
임차료	임대 불가(양도단가: 100,000~120,000엔/평방, 조성 후 가격, 유효택지 면적)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타시 산업정책과(磐田市産業政策課) - 전화: +81-538-37-4904 - 홈페이지: http://www.city.iwata.shizuoka.jp/index.html

○ 미나미하라 공업단지

규모	59ha
위치	나가노현 카미이나군 미노와마치 나가조네(上伊那郡箕輪町中根)
임차료	상당 가능(양도단가: 8500엔/㎡)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미노와마치 산업진흥과(箕輪町産業振興課) - 전화: +81-265-79-3111 - 홈페이지: http://www.town.minowa.lg.jp/front/

○ 카즈사 아카데미아 파크(かずさアカデミアパーク)

규모	278ha
위치	치바현 키사라즈시 카스가카타마리(千葉木更津市かずさ鎌足)
임차료	○ 상담필요 - 분양단가 : 9,000엔/㎡~ - 임대단가 : 연간 470엔/㎡~481엔/㎡
관할기관 및 연락처	치바 상공노동기업입지와 기획·유치진출반(千葉商工部企業立地課企誘致推進班) - 전화 : +81-43-223-2444 - 홈페이지 : https://www.pref.chiba.lg.jp/rich/ashisuto/sougoupamphlet.html
비고	교통 : 히가시 관동 자동차 타테야마선 키사라즈키타IC에서 5km (東東自動車道館山線「木更津北IC」から約5km)

○ 치토세 린쿠 공단(千臨空工業地)

규모	약 433.8ha
위치	치토세시 이즈미사와 (千市泉)
임차료	상담필요(분양 및 임대가능) - 9,000 엔/㎡(약 29,752 엔/평당)
관할기관 및 연락처	치토세시 산업진흥부 산업지원실 기업지흥과(千市産業振興部 産業支援室 企業振興課) - 전화 : +81- 123-42-0522 - 홈페이지 : https://www.chitose-yuuchi.jp/guide/guide_rinkuu.html
비고	교통 : 국도 36호선까지 7.1 km, 고속도로 신치토세 공항IC에2.6km 소요된 입지. 토마코마이 까지 24.2 km 소요됨

○ 기타카타 아야가네 공업단지(喜多方綾金工業地)

규모	10.04ha
위치	후쿠시마현 기타카타시 토요카와마치(福島喜多方市豊川町綾金地)

임차료	분양단가: 6,634엔/㎡ (임대 불가) *후쿠시마현 세금 면제 제도 및 기타카타시 설비·고용 등 보조금 제도 있음
관할기관 및 연락처	기타카타시 산업부 상공과 기업입지·기업지원 추진실(喜多方市 産業部 商工課 企業立地・企業支援推進室) - 전화 : +81-241-24-5247 - 메일 : syoukou@city.kitakata.fukushima.jp - 홈페이지 : https://www.city.kitakata.fukushima.jp/site/syoukou/
비고	분양 가능 단지 규모: 3.8ha 교통: JR Iwagoe Nishi Line 기타카타역에서 2.7km (후쿠시마공항에서 약 100km)

〈자료원 : 일반재단법인 일본입지센터〉

주요 지역별 여건

○ 시즈오카현

- 공장입지 건수: 제1위(9건), 공장입지 면적: 제3위(972,000㎡)
- 외국계 기업 공장입지 건수: 제1위(41건), 부지 면적: 제1위(554,000㎡)
- 인구 377만명, 면적: 7,777km², GDP: 약 17조 444억엔, 공업용 땅 가격(1㎡당, 평방): 47,600엔
- 주요산업: 유송기기 및 기계, 전기 기계, 화학공학, 음료 및 식품, 종이/펄프
- 특징: 지리적으로 일본의 거의 중심에 위치, 반경 300km 권내에 수도권 및 나고야권, 킨키권이 있음. 국내 운송 대동맥인 신 토메이 고속도로가 정비되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보유. 또한, 야마하 발동기, 스즈키 자동차, 카와이 악기, 로랜드, 하마마츠 호토닉스, 스즈요, 야자키 창업 등 일본 및 세계 점유율 탑을 겨루는 제조업이 폭넓은 분야에서 거점을 설치.
- 참고자료: 시즈오카 현 기업입지 가이드
· <http://www.pref.shizuoka.jp/sangyou/sa-530/index.html>

○ 이바라키현

- 공장입지 건수: 제5위(46건), 공장입지 면적: 제5위(872,000㎡)
- 외국계 기업 공장입지 건수: 제2위 (24건), 부지 면적: 제3위 (482,000㎡)
- 인구: 297만명, 면적: 6,097km², GDP: 약 13조 567억엔, 공업용 땅 가격(1㎡당, 평방): 18,200엔
- 특징: 도쿄 도심이 30~150km로 대 소비지이자 본사 거점이 모이는 수도권에 대해 절호의 위치이며, 저렴한 지대가 큰 매력. 교통 인 프라도 충실해 현을 남북으로 달리는 조반 자동차도, 동서로 달리는 북관동 자동차도, 수도권중앙연결자동차도, 수도권 3번째 공항인 이바라키 공항, 철도도 츠쿠바 익스프레스 및 JR 조반선 등이 있음.
- 참고 자료: 이바라키의 공업단지
· <https://www.indus.pref.ibaraki.jp/index.html>

○ 나가노현

- 공장입지 건수: 제7위(39건), 공장입지 면적: 제12위(452,000㎡)
- 외국계 기업 공장입지 건수: 제3위(21건), 부지 면적: 제4위 (315,000㎡)
- 인구: 215만명, 면적: 13,561km², GDP: 8조 2,723억엔, 공업용 땅 가격(1㎡당, 평방): 22,000엔
- 주요 산업: 전기·전자, 정보, 기계, 식품, 관광제품, 관광
- 참고자료: 나가노 현 산업입지 가이드
· <http://www.nagano-ritti-navi.jp/>

○ 토치기현

- 공장입지 건수: 제8위(38건), 공장입지 면적: 제4위(967,000㎡)
- 외국계 기업 공장입지 건수: 제4위(18건), 부지 면적: 제2위(488,000㎡)
- 인구: 179만명, 면적: 6,097km², GDP: 약 9조 1,513억 엔 공업용 땅 가격(1㎡당, 평방): 15,700엔
- 주요 산업: 자동차/항공우주, 의료 기계, 광학, 환경, 식품
- 참고자료: 기업입지에 관한 안내
· <http://www.pref.tochigi.lg.jp/kogyo/>

○ 후쿠시마현

- 공장입지 건수: 76건, 공장입지 면적: 511,000㎡ (2019년 기준)
- 인구: 180만명, 면적: 13,780km², GDP: 약 7조 9,054억 엔 공업용 땅 가격(1㎡당, 평방): 3,300~15,000엔
- 주요 산업: 화학, 기계, 금속제품, 운반기계, 식품, 목재 등

- 참고자료: 후쿠시마현 기업입지 가이드
- <http://www4.pref.fukushima.jp/investment/>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2023년 일본의 대내직접투자는 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4% 감소하였다.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러우사태, 미중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일본 내부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에 따른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 장벽을 점차 높임에 따라 FDI 투자 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대외직접투자는 1,8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다. 중국과 유럽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위축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 검토가 활발하였다.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주요 투자건으로는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에 반도체 제조 자회사 설립이 있는데, 구마모토 제1공장은 2024년 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마모토 제2공장 건설도 발표하였으며, 2027년 말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일본 국내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미국계 기업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가 히타치제작소의 자회사 히타치물류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베인캐피털은 올림푸스의 자회사로 산업용 현미경 등을 취급하는 에비던트를 인수하였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외에도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투자도 잇따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이다. 생성형 AI의 보급으로 데이터 통신은 급증하고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미국 IT 대기업들이 일본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데이터센터를 가동하였으며 구글 또한 일본 내 첫 데이터센터 가동을 2023년 시작하였다. 미국계 부동산 투자개발업체인 APL 그룹은 규슈에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발표하였다.

2024년에 접어들면서 더 큰 규모의 투자계획이 발표되고 있는데,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23년 ~2027년 5년간 일본에 약 2조 3,000억엔을 투자하여 데이터센터 증설 및 운영체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화형 AI 'Chat GPT'를 개발한 Open AI가 아시아 최초의 사업 거점을 도쿄에 개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39958	62579	35018	48045	19991

<자료원 : JETRO 직접투자 통계, JETRO 세계무역투자보고 2024>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잇따랐으며 주요 사례로는 다케다약품공업이 미국의 님버스 세러뷰틱스의 자회사 님버스 락슈미를 60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시노오기 제약은 항균제 개발에 강점을 가진 큐펙스 바이오팜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미국 내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거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의약품 외에도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레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2% 증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소재분야에서는 덴소와 미쓰비시전기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코히런트의 SiC 사업에 자본 참여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헬스케어 분야의 활발한 투자를 보였는데 스미토모화학의 자회사인 스미토모제약은 영국의 마이오반트 사이언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EV와 관련해서는 닛산자동차가 영국 북부의 EV 생산 거점에 약 3680억 엔의 추가 투자를 발표해 신형 EV 차종의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동 거점 내 거대 배터리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하였는데 중국에서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감소의 배경으로는 미중무역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커플링, 디리스팅 움직임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부진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JETRO가 2023년 11~12월 실시한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기업의 비율은 33.9%로 2013년 12월 조사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중국 내 사업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27.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258276	150103	209620	175015	182078

<자료원 : JETRO 직접투자 통계, JETRO 세계무역투자보고 2024>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 2023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815.1억 달러) 대비 22.2% 감소한 63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신규법인 수는 2,816개 사로 전년(2,603개사) 대비 8.2% 증가
- 아시아지역 투자액은 106.6억 달러로 전년대비 47.3% 감소하였으며, 대일본 투자의 경우 투자액은 전년대비 41.2% 감소한 6.7억 달러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투자신고 건수는 871건으로 코로나 이후 2년 연속 회복 성장세를 이어감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396	94	1,016,580	419	973,755
2022	676	151	1,069,184	749	1,009,582
2023	871	237	628,798	953	572,39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 2023년 주요 업종별 전체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광업 투자액이 33.8억달러로 전년대비 유일하게 40.1% 증가한 반면, 그 외 업종 투자액은 전 업종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그 중 부동산(42.4억달러/-42.6%), 제조업(202.5억달러/-19.7%)의 감소세가 뚜렷함
- 한국기업의 대일본 투자의 경우, 주요 투자 업종이었던 금융및보험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이 전년도 투자액 대비 각각 -52%, -58%, -71% 감소를 나타냄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	1	24,276	3	23,355
도매 및 소매업	124	29	102,749	145	101,197

운수 및 창고업	6	2	2,204	6	2,205
숙박 및 음식점업	14	3	7,278	12	7,246
정보통신업	136	31	161,222	133	134,545
금융 및 보험업	30	16	639,452	30	636,1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	4	50,126	38	46,35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	3	15,765	23	13,348
교육 서비스업	4	2	9,289	4	5,15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	3	4,219	25	4,20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61	35	61,651	312	44,87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439	1	43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	2	318	2	330
도매 및 소매업	134	48	320,751	159	315,335
운수 및 창고업	7	4	679	7	536
숙박 및 음식점업	17	2	3,845	10	3,647
정보통신업	138	34	186,536	139	196,754
금융 및 보험업	22	5	394,996	18	388,39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	10	33,415	41	35,02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	0	9,534	10	1,466
교육 서비스업	15	1	1,525	12	1,2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	33,874	0	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6	8	21,585	37	21,54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1	1	36	1	3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93	32	64,994	359	52,54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1	37	2	3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	1	93	2	90
도매 및 소매업	199	83	137,877	225	133,518
운수 및 창고업	17	7	2,214	14	1,762
숙박 및 음식점업	50	13	13,208	38	12,504
정보통신업	147	45	55,109	155	57,050
금융 및 보험업	40	13	253,349	34	185,49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	20	19,250	43	17,84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5	10	4,042	25	4,039
교육 서비스업	12	2	1,105	12	1,1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2	28,270	2	62,8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8	49,228	41	43,54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1	0	22	1	2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SK하이닉스재팬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반도체
모기업명	SK하이닉스

○ 포스코재팬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철강, 금속, 화학 등
모기업명	(주)포스코

○ 라인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IT서비스
취급분야	IT솔루션, 서비스
모기업명	NHN(주)

○ 대한항공

진출연도	1969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항공운송업
모기업명	대한항공

○ 삼성전자재팬(주)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CJ재팬(주)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가공식품 등
모기업명	CJ(주)

○ LG화학재팬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종합화학
취급분야	석유화학(NCC.고무, 특수수지, PVC 등), 정보전자재료(편광판, 배터리 등)
모기업명	LG화학

○ 셀트리온헬스케어재팬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법인

업종	바이오헬스케어
취급분야	바이오시밀러
모기업명	셀트리온헬스케어

○ 현대머티리얼재팬(주)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
취급분야	철강제품, 철강원재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세아베스틸 일본사무소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철강
취급분야	특수강 전반
모기업명	세아베스틸

○ (주)삼양재팬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법인
업종	식품
취급분야	즉석라면
모기업명	삼양식품

○ Kakao piccoma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법인
업종	웹툰
취급분야	웹툰 Piccoma 운영
모기업명	카카오

○ Contents Lab. Blue Tokyo

진출연도	2022
진출형태	법인
업종	웹툰
취급분야	웹소설을 통한 IP 개발, 웹툰
모기업명	콘텐츠랩블루

<자료원 : 보도자료, Kakao piccoma 홈페이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현지 법인(자회사)]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외국 기업이 출자자가 되어 일본에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격이 부여되기에 자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회사의 활동으로 생긴 채권 채무는 그대로 자회사에 귀속되며, 외국 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회사 유형에서 설립할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회사법상 주식회사(KK), 유한책임회사(LLC),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는 4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출자자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한 금액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이사는 경영을 책임진다. 주식회사는 전 주주에 의해 구성되는 주주총회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결의하는 이사회, 회사의 회계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가 있다.

회사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제한을 둔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사회설치가 임의로 되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의 설치 의무가 아닌 임의로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소규모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으며 회계참여라는 기관이 신설되어 이사와 공동으로 회사의 회계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도

주식회사 설립 개요 결정 -> 정관 작성 -> 모회사의 등기증명서 등 취득 및 모회사의 개요 및 대표자 서명에 관한 선서공술서 준비(선서공술서에 대해서는 본국 공증인에 의한 인증 필요) -> 정관의 일본 공증인에 의한 인증 -> 발기인 혹은 설립시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자본금 송금 ->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 선임 -> 법무국에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설립일), 회사 인감 신고 -> 등기사항증명서 및 회사 인감증명서 취득(약 2주 소요) -> 은행에서 회사명의 계좌 개설 -> 일본은행에 주식 취득 신고(업종에 따라서는 회사 설립전 신고 필요한 경우 있음)

2) 합동회사(일본판 LLC)

원칙으로는 출자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며,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이익의 배분이 가능하여 내부자치가 자유로운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로 자본금이 소액으로 수속도 비교적 간단하다. 다만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합자회사와 같이 설립과 운영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그 책임도 무한책임이 되므로, 설립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사

[지점]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지점은 일본에 설치된 외국 기업의 영업소라고 볼 수 있다. 주재원 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하기에,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점으로서 가장 간편한 것이 지점이다. 지점으로서의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지점 대표자를 정해서 필요사항을 등기하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지점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도 가능하다. '현지 법인'도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한 거점이라는 점이 지점과 같지만, 다른 점은 지점은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외국 기업의 법인격에 내포되는 외국 회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점의 활동에 의해 생긴 채권 채무는 결국 외국 기업에 직접 귀속된다. 비영리 법인, 금융기관 등 법인 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단기 철수를 전제로 일본 기업이 코스트 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에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지점설치절차

- (1) 일본에 있어서의 대표자(지점장)를 선임
- (2) 영업소의 설치
- (3) 등기 신청

영업소를 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 일본 내 대표자의 일본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하기의 등기사항과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한다.

- 등기에 필요한 사항
 - 외국회사의 설립 준거법
 - 일본 내 대표자 성명 및 일본 내 주소
 - 설립준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방법
 - 일본 내 공고 방법
 - 한국본사의 설립일자 등
- 등기 시의 첨부서류
 - 본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일본 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회사의 정관 외에 외국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위의 등기사항 등에 대한 증명문서로서 선서공술서를 작성하여 한국의 관할관청 또는 일본 내 주일 영사관의 영사 또는 그 외에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는다.

여기서 관할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등 한국에서의 공증인 등을 말하며 선서공술은 한국본사의 대표이사 또는 일본 내 대표자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에 있는 주일 한국영사관에서 선서공술을 하는 경우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선서공술서의 인증에 필요한 서류
 - 한국본사의 등기부등본
 - 한국본사의 인감증명서
 - 한국본사의 의사록
 - 일본의 대표자의 임명장 등

선서공술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법무국에 가서 등기신청을 하면 보통 1~2주 정도에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가 있다. 대표자 등의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 신청에는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에 신청하면 된다. 지점설립 이후에 등기사항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한국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는 등 본사의 결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지점설치에 드는 비용
 - 등록면허세 : 90,000엔
 - 그 외 기타비용(회사 도장 등) : 10,000~20,000엔

2) 지점 개설 후 신고 사항

지점 등기 후에는 각종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대상은 세무서, 광역지자체(都道府 - 특별시, 광역시, 도에 해당) 세사무소, 기초지자체(市町村 - 구, 읍면리에 해당)의 담당부서,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사회보험사무소 등이 있다. 각각 제출 기간이 있으므로 누락 없이 신고를 해야한다.

연락사무소

[주재원 사무소]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주재원 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행위를 실시하는 거점으로서 설치된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물품구입, 광고 등을 할 수 있으나, 직접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 설치 시 등기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임차가 불가능하므로 외국 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으로 이들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본격 사업 전개 전에 시운전·시장조사 등 제한적인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설치절차

주재원사무소의 경우 회사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무소의 규모(예를 들어 사무실이 일본대표자의 거주지 등)등은 대표자의 체류자격과 밀접하게 결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우선 주재원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정이 되면 그 대표자가 일본에 와서 사무실을 정한다. 그 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입국관리국에 가서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한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서 비자(사증)를 취득하여 일본에 입국하게 된다. 입국 시 공항 등에서 체류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주거지의 신고, 은행 계좌 개설 등 일본에서 필요한 수속을 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2) 설치 후 신고사항

주재원사무소의 경우 사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다. 주재원사무소에서 일하는 주재원과 일본에서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현지직원의 급여에 관해서 원천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의 경제 대국임과 동시에, 달러 및 유로화에 더불어 엔화도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어 투자환경이 매우 안정적이며, 국가부도의 위험이 낮은 편이다. 일본의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024년 5월 현재 24.18로 주요 선진국만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수치가 낮을수록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계 혜택 및 스타트업 비자 지원 등 외국기업의 일본 투자 진출 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신뢰 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FDI 신뢰 지수는 3.0점 만점에 2.127점을 기록해 일본의 FDI 투자 매력도는 조사 대상 25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최근 일본내 법인 등기 후 주요 3대 은행(MUFG, SMBC, MIZUHO)에서의 계좌개설이 많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본내 한국계은행 또는 지방은행이나 온라인뱅크를 통한 초기 법인계좌개설이 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자회사): 외국기업이 출자자로 일본에 독립 법인(자회사)을 설립할 경우, 일본 내 자회사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는 그대로 자회사에 귀속되며, 외국기업은 법률상 규정된 출자자로서의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국적에 상관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사람 중 한 명은 반드시 일본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일본인이나 적정한 체류자격(『투자·경영』 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이사나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자본을 취득해 주주 또는 사원이 된 경우에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에 의거, 외국자본규제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 및 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지점(외국 회사): 일본 내 지점 설립 시 정관을 새로 만들어 인증받을 필요가 없고 자본금 및 이사 선임 등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나, 일본 내 대표자와 영업소는 따로 정해 등기해야 한다. 또한 일본 내 대표자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일본 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점 등기 후에는 각종 관공서(세무서, 광역 지자체 세무서, 노동기준 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사회보험사무소 등)에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각각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지점으로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사내의 기관 운영이나 회계 처리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 본사의 사업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지점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개설이나 부동산 임대 가능하나, 최근 현지 3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지점 명의 통장개설을 불허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연락사무소(주재원 사무소): 주재원 사무소는 일본 회사법상 법인의 개념이 아니므로 등기 신청이나 결산공고 등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일본 국내의 거래처 기업과의 계약 업무나 대금 지불 시 주재원 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계약 및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는 부동산 임대 계약이 불가하므로 외국기업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해야 한다. 은행 통장개설 또한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 개설이 불가하므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p>3) 분쟁 해결 현재 일본무역투자진흥기구(JETRO)에서 일본 내 거점설립 또는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창구인 대일 투자·비즈니스 지원센터(IBSC)를 일본 주요 6개 지역(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에서 운영하고 있다. 투자 진출에 필요한 정보 문의 및 진출 시 애로사항 등은 JETRO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JETRO 홈페이지 문의처 : https://www.jetro.go.jp/form5/pub/jab/investjapan 전화 문의처 · 법인 설립 및 사업 확대 관련 상담 : +81-3-3582-4684 · 그 외 대일 투자 관련 상담 문의 : +81-3-3582-5571</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 자본금: 1엔 이상
- 출자자 수: 1명 이상
-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출자자/본사 책임: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출자지분의 양도: 원칙은 자유. 정관으로 '주식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함' 같은 취지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필요한 임원 수: 최소 1명(주식양도제한회사의 경우)

- 법정 임원 임기: 10년 이내
- 정시 주주(사원) 총회: 원칙 매년 개최
- 주식(출자지분) 공개 가능 여부: 가능
-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합동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 손익분배: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 이익에 대한 과세: 주식회사의 이익 및 주주의 이익 배당에 대해 과세

유한책임회사

- o 합동회사(일본형 LLC)
 - 자본금: 1엔 이상
 - 출자자 수: 1명 이상
 -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출자자/본사 책임: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출자지분 양도: 원칙 자유. 정관으로 '주식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함' 같은 취지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필요한 임원 수: 법정 임원 규정 없음. 원칙상, 사원 전원이 업무집행자가 되지만 정관에 이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법정 임원 임기: 임기 없음
 - 정시 주주(사원)총회: 개최 필요 없음
 - 주식(출자지분) 공개 가능 여부: 불가
 -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가능
 - 손익분배: 정관으로 출자비율과 다른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이익에 대한 과세: 합동 회사의 이익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 대해 과세

개인사업자

- 자격: 재류 자격에 문제가 없고,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외국인도 일본 국내에서 개인사업주로서 사업이 가능하다.
- 자본금: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설립절차: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 개업 신고서'(개업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개인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 12월 31일을 결산 일자로서 수지결산을 정리해서 익년 3월 15일까지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그 외 세금: 일반적으로 소득세 외에 개인 주민세, 개인 사업세 및 소비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참고사항: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초과 누진과세로 계산되므로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상승. 한편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일정하므로 소득이 어느 수준을 초과할 경우 법인 형태가 유리하다.

지점

- 자본금: 기준 없음.
- 회사에 대한 출자자/본사 책임: 한도액 없음.
- 출자지분 양도: 출자지분 없음.
- 필요한 임원 수: 일본에서의 대표자 1명 이상
- 법정 임원 임기: 임기 없음.
- 정시 주주(사원) 총회: 개최 필요 없음.
- 주식(출자지분) 공개 가능 여부: 출자지분 없음.
-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불가. 지점 폐쇄 및 모든 일본에 있는 대표자의 퇴임 등기와 주식회사 설립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 이익에 대한 과세: 원칙적으로는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송국제행정서사사무소(宋際行政書士事務所)

전화번호	+81-45-263-8916
주소	神奈川県市中太田町6-79-202
홈페이지	www.yokohama-korean.bi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행정서사)

○ 일본경영월 세무회계법인(日本ウヰル理士法人)

전화번호	+81-6-6868-1311
주소	大阪府豊中市寺2-13-3 日本ビル
홈페이지	https://nkgr.co.jp/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회계사)

○ 변호사 법인 오르비스(弁護士法人オルビス)

전화번호	+81-3-5425-4488
주소	東京都港虎ノ門3丁目20番4 虎ノ門鈴木ビル6階
홈페이지	http://www.legal.ne.jp/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 SCS 국제 컨설팅(SCS際コンサルティング)

전화번호	+81-3-6441-3248
주소	東京都港虎ノ門2-2-5 共同通信館4階
홈페이지	http://www.scsglobal.co.jp/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회계사)

○ 니시무라아사히법률사무소(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전화번호	+81-3-6250-6200
주소	東京都千代田大手町1-1-2 大手門タワー
홈페이지	www.nishimura.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일본 외환법은 "외환, 외국 무역 그 외의 대외 거래가 자유롭게 행해지기 위함을 목적으로 대외 거래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리 또는 조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대외 거래의 정상적인 발전,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 수지의 균형 및 통화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환법은 1949년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으로서 제정되었으나, 당시에는 일본 및 주변 환경을 반영하여 "대외거래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였다.

이후 1980년 개정에 따라 대외거래를 원칙 자유화하였으며, 1998년 개정을 통해 사전 허가·신고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외국환율공인은행제도, 환전상거래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우며 신속한 대내외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 발맞추어 대외거래 환경을 정비해왔다.

2001년 미국의 테러발생 이후, 국제사회에 있어 테러 자금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2002년 금융기관 등의 본인확인 의무화 등을 적용하였다.

2017년에는 안전보장을 위해 대내 직접투자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제3자(외국인 투자자)로부터의 비상장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대내직접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대내 직접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주요분야 기업의 주식 매입 시(1% 이상)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내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4AC0000000228

외환 규제

외환법(외환 및 외국 무역법)상, 무역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3,000만 엔이 넘는 금액의 송금 및 수령의 경우 일본은행 앞으로 "지불 또는 수령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일본은행에 사전 신청 후,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보고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금융기관에서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대신 앞으로 제출된다.).

외국 투자자가 일본기업(155개 지정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보유지분율이 1% 이상이 된다면 일본은행을 통해 사전신고를 시행해야 한다.(신고 후 30일간 매입이 불가)

특히, 그 중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업종인 경우는 사전신고 시 각 관할관청의 심사가 시행되며, 심사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다.

* 핵심업종(22.5 기준)

- 무기, 항공기, 원자력, 항공우주, 군사용 범용품 제조, 사이버보안, 전력, 가스, 통신, 방송, 수도, 철도, 여객운송, 항공운수, 해운, 생물학적 제제 제조, 의약품 제조(감염증 관련), 의료기기 제조, 농림수산, 석유 등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한 지불 등 규제>

- 1)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 목적지로 하는 모든 화물의 수입 또는 중개무역에 관련된 것(06년 10월 14일, 17년 6월 18일 시행)
'북한의 핵 관련 계획 등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자본거래 규제(17년 7월 7일 시행)
인도 목적 및 10만엔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에 주소 등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지불 금지(16년 2월 26일 시행)

2) '이란의 핵 활동 등에 관련된 활동'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자본거래 규제(16년 1월 22일 시행)

3) 22년 4월 12일부로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목표 및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서 러시아 연방 관계자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일 외무성이 고시한 러시아 연방 관계자(398개인·28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지급 및 자본 거래 규제)과 22.5월 12일 이후에 개시되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신규 직접투자 금지 조치이다.

4) 자본거래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암호화 자산에 관한 거래를 자본 거래 규제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암호화 자산 사업자(암호화 자산 교환 업무 수행)에게 자산 동결 조치에 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외환법이 일부 개정되었다.(22년 5월 10일부 시행)

- 23년6월1일 자율규제단체인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업계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칙(트래블 룰)을 도입함. 가상화폐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거래소 양측에 고객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자금흐름의 입구와 출구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본 외에는 미국, 캐나다, 홍콩, 한국 등 20개 국가와 지역이 적용 대상. 해당 규칙 도입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업체 간 송금은 줄어들 전망이나 업체를 거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허점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외환법에 관한 수속절차 :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index.htm/>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54.32 엔(2024년 5월 16일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758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082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7
비고	<p>○ 2023년 신졸 학력별 임금 (2024년 3월 기준 최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졸업자 : 216.6천엔 - 고등학교 졸업자 : 189.2천엔 * 참고URL : chrome-extension://efaidnbmninnibpcjpcglclefindmkaj/https://jsite.mhlw.go.jp/tokyo-roudoukyoku/content/contents/001787911.pdf * 코로나 증식 이후 전세계적인 고물가와 슈퍼 엔저 현상이 이어지며 일본내에서도 실질임금의 급격한 감소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로 떠오르며 일본 기업들도 줄지어 직원 임금 인상을 발표하는 추세 <p>○ 2023년 10월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액(2024년 5월 확인 최신자료)</p> <p>* 참고URL :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minimumichiran/index.htm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평균 1,004엔 · 도쿄도 1,113엔 · 카나가와현 1,112엔 · 치바현 1,026엔 · 사이타마현 1,028엔 · 오사카부 1,064엔 · 교토부 1,008엔 · 홋카이도 960엔 · 미야기현 923엔 · 아이치현 1,027엔 · 히로시마현 970엔 · 효고현 1001엔 · 후쿠오카현 941엔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은 일정한 기일에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그 전액이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노동기준법 제24조). 다만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정직원(무기한고용 풀타임 근로자)과 비정규고용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기한부 고용 근로자·파견 근로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등 대우(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 복리후생 등)를 없애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동일근로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적용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며, 이 가이드라인 등에 위반하여 불합리한 차등 대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료원 : 후생노동성>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근로조건 명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고용계약을 맺는다. 노동 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은 무효이며, 고용자는 다음의 조건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해야 한다.(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시간제 근로자 및 기간제 고용 근로자도 이에 해당하며(파트타임 노동법 6조) 2020년 4월부 적용한다.

- 계약 기간(기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그 사유)
- 기간을 정한 계약의 경우, 갱신의 여부와 갱신의 기준
- 근무의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 내용
- 출퇴근 시각, 초과근로의 유무,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 임금의 결정, 계산 및 지불에 대한 내용
- 퇴직에 관한 사항 (해고사유 포함)

2) 고용계약 기간

고용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사업 완료)를 제외하고는 3년이 상한이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 단, 고용계약의 기간의 첫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언제든지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통산하여 5년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바뀌게 된다(이른바 '무기 전환률'). 또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넘어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3) 수습기간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 그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판별하기 위한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을 인정한다.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이나 그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같은 것이 되기때문에 정식 채용 거부 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4) 배치 및 전근

일본기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과 전근이 빈번히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고용자는 업무의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회사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다.

근로시간

1) 근로시간 규정

일본은 노동기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 40시간까지 동조 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까지 노동시간 상한(법정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시간 외 노동협정 (노동기준법 제36조) 등을 이용하면 사실상 노동시간에 상한은 없었다. 그러나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연장근로 시간, 과도한 잔업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나 과로사,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논의가 심화, 2018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의결,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휴일 노동 미포함)의 상한은 원칙 월 45시간, 연 360시간이 되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도 "시간 외 노동은 720시간 이내", "시간 외 노동과 휴일노동은 월 100시간 미만, 2~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로 한다. 따라서 월 45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가능한 것은 연 6개월까지라는 점이 포인트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노동기준관계법령위반에 관한 공표사항"으로 매년 블랙 기업(노동환경이 열악한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게재기업은 약 1,500개사를 넘는다.

한편 2018년 6월에 성립한 "일하는 방식개혁 관련법" 중에서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것이 "특정 고도전문업무, 성과형 노동제", 통칭 "고도 프로페셔널제도"라는 것이 있다.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업무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을 확보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

도록 하는 제도로, 고도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금융상품 개발업무, 금융상품 거래업무, 애널리스트 업무, 컨설턴트 업무, 연구개발 업무 등)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대상업무 및 연수 등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보급 및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2) 법정 노동시간

노동기준법(1947년 4월 7일 법률 49호) 제32조(노동시간)에 따르면 일본의 법정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이다. 그러나 특례사업장 예외, 특종 직종에 대한 예외, 변형 근로 시간제를 도입해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특수 직종 등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 10명 미만의 다음 업종은 주간 44시간까지 법정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특례사업장 예외).

- 상업: 도매, 소매, 이·미용, 창고, 주차장·부동산 관리, 출판업(단 인쇄 부문 제외)
- 영화 연극업: 영화 촬영, 연극, 그 외 흥업 등 (단 영화 작성, 비디오 제작 제외)
- 보건위생업: 병원, 진료소, 치과의원, 탁아소, 양로원, 목욕탕(단 개인실 목욕탕 제외) 등
- 接客 오락업: 여관, 음식점, 골프장, 공원 유원지 등

또한 특정 직종에 대한 예외로, 농업,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 관리감독자, 기밀사무 취급자, 일직 근무자 등은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형 근로 시간제는 일정 기간 평균적으로 주당 노동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법정 노동시간으로 보는 제도이다.

휴가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속 출근하고 전 노동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서 노동일 기준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단, 근로자의 유급휴가 신청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속 연수와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날짜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 근속 연수 : 부여 날짜
- 6개월 : 10일
- 1년 6개월 : 11일
- 2년 6개월 : 12일
- 3년 6개월 : 14일
- 4년 6개월 : 16일
- 5년 6개월 : 18일
- 6년 6개월 이상 : 20일

연차 유급휴가의 권리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즉, 그해에 취득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다음 해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월분과 신규 취득한 유급휴가를 합쳐 최대 40일(근속 연수가 7년 6개월 이상의 사람)까지 유급휴가 취득이 가능하다.

연휴 부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휴가 중 최소 연 5일은 사용자가 계절을 지정하여 연휴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노동기준법 제39조 제7항)

또한 연차 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나, 노사협정을 체결할 경우 1년에 5일을 한도로 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서는 상기의 유급휴가와와는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자의 결혼, 근친자의 사망, 배우자의 출산 등에 있어서는 상기와는 별도로 며칠 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일본의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습이다.

근무일수가 적고 1주간의 근무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는 소정의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또

한 사용자는 유급휴가 이외에 근로자의 출산, 육아, 개호(부모의 간병, 수발 등을 의미함) 등에 맞추어 법정 휴가와 휴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1.6월부터 육아·개호 휴직법이 개정되어 22.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한 아이의 출생 직후의 시기에 있어서의 유연한 육아 휴업의 틀 마련 (22년 10월 1일 부)
- ②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쉬운 고용 환경으로 정비 및 임신·출산 신청을 한 노동자에 대한 의향 확인 조치 의무화(22년 4월 1일 부)
- ③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22년 10월 1일 부)
- ④ 육아휴직 사용 상황 공표 의무화(23년 4월 1일 부)
- ⑤ 유기 고용 노동자(사업주와 6개월~1년 등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의 육아·개호 휴직 사용 요건 완화(22년 4월 1일 시행)

해고

1) 해고절차와 조건

해고에는 보통해고, 정리해고, 징계해고의 종류가 있다. 기간의 규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직(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것)하는 경우는, 2주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취업 규칙 등에 의해 퇴직 예정일의 2주일 이상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을 경우는 확정된 판례는 없지만 1개월 이내이며, 1개월 이상의 사전 통보 의무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해고(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퇴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것)는 몇 가지의 요건을 채워야 한다.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노동 계약법 제16조).

【정리해고】

회사 경영의 악화를 이유로 인원 정리를 위해 행해지는 해고를 말한다.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다수의 재판례에 따라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고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① 인원 감축의 필요성
- ② 해고 회피의 노력
- ③ 피해고자 선정의 합리성
- ④ 해고 절차의 타당성

【징계해고】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징계의 하나로서 행해지는 해고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취업 규칙 등에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행위와 처벌, 사회 통념상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실제의 해고에는 미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2)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여야 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가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 규칙 등에서 가능한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고의 유효성 판단이 매우 어려우므로 노동법 전문가(변호사, 사회보험 노무사 등) 등에게 사전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정리해고(기업경영 악화 때문에 실시하는 해고)의 경우는 많은 판례가 있으며 이하 4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해고의 필요성 : 기업이 인원 정리를 해야 할 만큼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 해고를 막으려는 노력: 배치전환, 희망 퇴직자의 모집 등 해고를 막기 위해 경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인선의 타당성: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 해고 절차의 타당성: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3)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

노동자의 국적,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해고,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업무를 쉬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 여성 노동자가 산전 6주간(2인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는 14주간), 산후 8주간 쉬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가 제한된다.

4) 해고 수속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해고 의사를 표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와 동시에 30일분의 임금(예고 급여)을 지불해야만 한다(노동기준법 제20조 제1항). 단, 아래의 경우와 같이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소장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고 예고나 예고 급여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
- 근로자의 책임으로 해고돼도 어쩔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내에서의 절도, 횡령, 상해 등 형사상의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 현저한 풍기문란으로 직장 규율을 어겨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고용 시 경력을 사칭했을 경우
- 2주 이상 정당한 이유 없고 무단결근해, 출근의 독촉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해, 몇 차례에 주의를 받아도 고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일본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대부분의 일본기업은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노동자의 퇴직에 대해 기업이 근속연수, 퇴직 이유 등에 따라 일시적 지불을 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고 동시에 급여와 비교하여 세제상 우대도 받고 있다. 게다가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채운 다음, 퇴직금의 적립으로서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손실금 경리도 할 수 있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 건강보험·개호보험제도

- 적용 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 사업소.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 기업의 일본 지점·영업소는 법인으로 취급되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 사업소로 취급됨)

-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모든 종업원. 다만, 단시간 노동자에 한해서는 노동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 이상인 사람. 해외 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된다. 다만,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스위스, 룩셈부르크, 헝가리에서 일본으로 파견되는 사람이 자국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일본에서의 가입이 면제된다.

- 피부양자: 피보험자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손자, 형제도 이 보험의 지급 대상이 된다.

- 개호(간호)보험: 40세 이상 65세 미만, 1.79%의 보험료를 적용한다. (사업주와 피보험자 절반씩 부담)

- 치료비: 보험 적용 의료기관(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 일본 내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여기에 해당함) 치료에 필요로 한 비용 중 7할은 보험자로부터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되고, 3할은 피보험자가 부담. 치과 의료에도 적용된다.

- 해외 치료비: 해외 체제 중 또는 여행 중에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귀국 후 신청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일본의 의료비로 환산한 금액의 7할이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됨. 외국인인 피보험자가 모국, 그 외의 나라에서 의료혜택을 받았을 경우도 적용된

다.

- 고액 치료비: 피보험자가 동일한 달(역월)에 동일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의 액수 등의 금액이 일정액을 넘었을 때는 고액 치료비로 지급된다.

- 보험료: 전국건강보험협회에서 밝히고 있는 건강보험 일반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 월 금액(상한 139만 엔) 및 표준 상여액 수(연간 합계 상한 573만 엔)의 9.87%(도교 기준), 개호 보험료율은 1.79%로 피보험자 및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함(2020년 4월부터 적용). 조합 관장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의 설정에 있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 신고: 보험 관계 성립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관할 사회보험 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 적용 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건강보험)

- 적용: 상기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주거지의 시·구·읍·면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 지급: 국민건강보험의 지급 기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과 동일

- 보험료: 일정한 범위에서 각 지역에 의해 결정된 보험료

일본에서는, 상기와 같이 공적인 건강(의료)보험제도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외국에서 민간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일본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 지급 내용이 일본의 건강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1년 건강보험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22.10월부 육아 지원의 확충 차원에서 '단기 육아휴직 사용에 대응하여, 1개월 내 2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 면제, 상여에 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건강보험 및 개호보험 담당 기관>

- 국민건강보험협회: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문의를 처리합니다.

- 각 시·구·읍·면 사회보험사무소: 주소지 관할 사회보험사무소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협회: <https://www.kyoukaikenpo.or.jp/>

각 시·구·읍·면 사회보험사무소: 거주지 관할 사회보험사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확인

고용보험

○ 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 근로자에 적용한다. 단, 단시간 근로자에 한해서는 주간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고용할 예정인 자에 한하며, 해외 본사 등으로부터의 부임자는 가입이 면제된다.

○ 지급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했을 때 전직의 이유, 피보험자인 가입 기간, 연령 등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기간의 실업급여금이 지급된다. 또한, 그 외 고용안정과 관계되는 각종의 지급도 시행하고 있다.

○ 보험료 : 노동자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보험료로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일부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0.9%를 적용, 고용주가 0.6%, 피보험자가 0.3% 부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신고 : 보험 관계 성립이 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해야 한다.

2020년, 신형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사업주의 휴업으로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기본 수당의 지급 일수 연장 및 고용 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 담당 기관>

- 각 지역 고용센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관련 문의를 처리합니다.

산재보험

- 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사업주 등도 신청에 따라 특별 가입이 가능하다.
- 지급 :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통근 중의 재해에 의해 생긴 부상·질병·상해·사망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다.
- 보험료 : 원칙적으로 근로자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최고 8.8%(금속광업 등)에서 최저 0.25%(금융업 등)까지 보험료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다.
- 신고 : 보험 관계 성립이 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노동 기준 감독청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 담당 기관>

- 각 지역 고용센터: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산재보험 관련 문의를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일본의 공적연금에는 후생연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로 구성된다. 후생연금 가입 대상자는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보험료는 월별 급여에 대한 정률('22 기준 18.3%)이며, 실제 납부액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한편,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일본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이다. '22년 기준 매달 보험료는 . 납부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진다.

- 후생연금보험의 제도
 - 적용 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 사업소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이다.(외국 기업의 일본 지점·영업소는 법인으로 취급되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 사업소로 취급)
 -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모든 종업원(70세 이상 제외)이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상시 노동 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 이상인 사람은 피보험자에 해당(종업원수 501명 이상의 법인/사무소)하며, 해외 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된다.
 - 노령 연금: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 기간과 보험료 면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으로, 65세 이상일 경우, 지불한 보험료와 지불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이 지급된다.
 - 장애 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장애의 정도, 지불한 보험료의 액수, 보험료를 지불한 기간 등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 또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 유족 연금: 피보험자, 상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자 가운데 중증의 장애인 등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 요금률과 부담: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 월액 (상한 65만 엔) 및 상여 액수(상한 150만 엔)의 18.3%를 피보험자와 사업주 절반씩 부담한다.
 - 연금 협정: 현재, 일본은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퀘벡주 제외), 호주,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및 헝가리, 인도, 룩셈부르크와 각각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이러한 나라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파견되는 경우 연금 사무소 신고로 일본 연금보험제도 가입이 면제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중국, 이탈리아 및 필리핀은 발효 예정으로, 그 외 스웨덴과 터키는 정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 탈퇴 일시금: 외국인이 연금을 수취하지 않고 귀국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지불한 기간과 지불한 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반환된다.
 - 신고: 보험 관계가 성립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사회보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 적용 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연금)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상기 후생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노령 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생연금보험과 같이 탈퇴 일시금이라는 제도도 있다. 매달 보험료는 정액(2022년도 기준: 16,590엔)으로 소득 상황에 따라 면제, 일부 면제, 납부유예 등이 가능하다. 추가로 부가보험료 제도가 있는데, 이는 정액 보험료 외에 월 400엔의 보험료를 추가해 납부하는 것으로 장래의 노령연금 지급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

<담당 기관>

- 일본연금 사무소: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 관련 모든 문의를 처리합니다.
- 일본연금 사무소 홈페이지: <https://www.nenkin.go.jp/>

[기타 사회보장제도 관련 문의]

- 후생노동성: 일본의 노동 및 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정부 기관이며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일본에서 법인활동에 따른 과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되어 있으며, 법인 3세라 불리는 법인(소득)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의 3개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 이외에 지방 법인세, 소비세 등이 존재한다.

한편,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는 지방법인특별세가 폐지되고 특별법인사업세가 국세로 이관 창설되었다. 단, 지방법인세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별법인사업세 관련 세부사항은 도쿄도주세국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쿄도주세국:

<https://www.tax.metro.tokyo.lg.jp/oshirase/2019/tokubetsu.html>)

단, 법인세는 시기에 따라 적용세율에 변동이 있는바, 수시 확인이 필요하다.

1) [국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그 외 회사가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 법인세는 2014년에 공포된 지방법인세법에 따라 창설된 세금으로 명칭만 보면 지방세라 착각하기 쉽지만 국세다. 모두 회사의 수익 상황이 적자일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국세: 법인(소득)세, 지방 법인세

-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 [세율] = [법인세액]

· 과세소득금액은 「이익금 - 손해금」으로 계산한다. 단, 회계상의 이익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세율은 자본금 1억 엔 이하로 과세소득 800만 엔 이하는 세율 15%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 800만 엔 초과는 세율 23.2%

(2019년 4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가 대상)

- 지방 법인세: [법인 세액] × [세율] = [지방 법인세액]

· 세율은 4.4% (2019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한 과세사업연도에 대해서는 10.3%)

법인주민세는 「법인도도부현민세」와 「법인시읍촌민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도도부현민세」와 「법인시읍촌민세」에 각각 「법인세할」과 「균등할」을 지불하게 된다(법인주민세 = 법인세할 + 균등할). 「법인세할」은 법인세에 따라 일정 세액이 과세되는 것이고, 한 편 「균등할」은 이익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정액이 부과(자본금·종업원 수에 기반)된다.

2) [지방세] 법인주민세

- 법인도도부현민세(= 법인세할 + 균등할): [법인세액] × [세율] = 지방도도부현민세액(법인세 할분)

· 법인세할의 계산에 사용하는 세율은 도쿄도(불균일과세적용법인의 세율 <표준세율>)의 경우 7.0%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사업연도 대상) 도쿄도의 경우, 구민세(하기 법인시읍촌민세에 해당)도 포함해 도가 과세하고 있어, 계산은 일원화된다.

· 균등할분은 자본 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도쿄도의 경우 자본금 1,000만 엔 이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의 경우 7만 엔이 부과된다.

- 법인시읍촌민세(= 법인세할 + 균등할): [법인세액] × [세율] = 지방법인세액

3) [지방세] 법인 사업세

- [과세소득금액] × [세율] = 사업세액

· 세율은 도쿄도의 경우 자본금 400만 엔 이하이고, 과세소득 400만 엔 이하는 세율 3.5% (2019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사업연도 대상), 400만 엔 초과 800만 엔 이하는 세율 5.3%, 800만 엔 초과는 세율 7.0%를 부과한다.

자료원: 오사카 외국기업 유치센터(O-BIC) 회사 설립, 세제 관련 한국어 안내(<https://o-bic.net/k/setup/tax.html>)

개인소득세

모든 개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중 개인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한편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일본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에 대해 소득 원천지를 따지지 않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 중 일본 국적이 아니며, 과거 10년간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 혹은 체재한 자는 비영주자로 본다. 비영주자의 과세범위는 거주자의 과세범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지불당하거나 일본으로 송금되지 않는 한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의 신고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세다.
즉, [소득세] = [소득금액] x [해당 구간의 세율] - [해당 구간의 공제액] 이다.

※ 과세소득금액의 구분: 세율

- 1,000엔 이상 ~ 1,949,000엔 이하: 5% (공제액: 0엔)
- 1,950,000엔 이상 ~ 3,299,000엔 이하: 10% (공제액: 97,500엔)
- 3,300,000엔 이상 ~ 6,949,000엔 이하: 20% (공제액: 427,500엔)
- 6,950,000엔 이상 ~ 8,999,000엔 이하: 23% (공제액: 636,000엔)
- 9,000,000엔 이상 ~ 17,999,000엔 이하: 33% (공제액: 1,536,000엔)
- 18,000,000엔 이상 ~ 39,999,000엔 이하: 40% (공제액: 2,796,000엔)
- 40,000,000엔 이상: 45% (공제액: 4,796,000엔)

[예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7,000,000엔의 경우,
[소득세] = [소득금액] x [해당 구간의 세율] - [해당 구간의 공제액] 이므로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 = 7,000,000엔 x 0.23 - 636,000 = 974,000엔

자료원: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60.htm>)

부가가치세

일본 국내 거래 및 수입거래(한국기업들의 일본으로의 수출)에 대해서, 비과세인 일정 거래를 제외하고 소비세가 부과되며,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10%(지방소비세 2.2% 포함)로 인상되었다.

* 단, 주류·외식을 제외한 식음료,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의 경우 경감세율 8% 적용

○ 소비세 적용 거래

- 일본 국내 거래: 일본 국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대가를 얻고 행하는 자산의 양도, 자산의 대부, 역무 제공
- 수입거래(한국기업들의 일본으로의 수출): 보세지역에서 거래된 외국화물

○ 소비세 비적용 거래

- 비과세: 금융거래, 자본거래, 의료, 복지, 교육 분야
- 면세: 수출거래 및 국제 통신, 국제운송 등의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으로, 세금의 납부주체와 세율은 세금의 종류와 규정,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 표기를 통해 대상 항목을 소비하는 자가 지불하게 되며 판매자는 이를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형태가 된다. 이러한 특별소비세의 적용범위나 세율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도입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일본의 국세청이나 지방세청과 같은 정부 기관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주류세 (Liquor Tax)

- 주류에 대한 세금으로, 주로 양조주, 증류주, 맥주 등에 적용
- 납부주체: 주류 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자
- 세율: 주류의 종류 및 알콜 도수에 따라 다르며, 리터당 일정 금액이나 비율로 책정

2) 담배세 (Tobacco Tax)

- 담배에 대한 세금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
- 납부주체: 담배 제조업체 또는 도매업자
- 세율: 판매 단가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판매 단가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담

3) 담배특별세 (Special Tobacco Tax)

- 담배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특별세로, 담배에 대한 소비를 제어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음.
- 납부주체: 담배소매업자 또는 소비자
- 세율: 판매 단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담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휘발유세 (Gasoline Tax)

- 자동차용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 및 다리 건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 납부주체: 유가 소매업자
- 세율: 리터당 일정 금액으로 책정되며, 도로 건설과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

5) 지방휘발유세 (Local Gasoline Tax)

-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지방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
- 납부주체: 유가 소매업자
- 세율: 리터당 일정 금액으로, 지방 도로 건설과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

6) 석유가스세 (Kerosene Tax)

- 석유가스에 대한 세금으로, 난방 및 조명 용도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
- 납부주체: 유가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
- 세율: 리터당 일정 금액으로, 난방 및 조명 용도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

7) 항공기연료세 (Aviation Fuel Tax)

- 항공기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항공 운송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 납부주체: 항공 운송사 또는 연료 공급자
- 세율: 리터당 일정 금액으로, 항공 운송 산업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8) 자동차중량세 (Automobile Weight Tax)

- 자동차의 중량에 기반한 세금으로, 대형 차량 등에 부과
- 납부주체: 자동차 소유자
- 세율: 자동차의 중량에 따라 책정되며, 중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

9) 국제관광여객세 (International Tourist Tax)

- 국제 관광객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국제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부과될 수 있음
- 납부주체: 국제 관광객 또는 관광업체
- 세율: 국제 관광객이 호텔 등 숙박 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

10) 지방담배세 (Local Tobacco Tax)

-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담배세로, 지방 예산 지원을 위해 사용
- 납부주체: 담배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
- 세율: 지방 정부에 따라 다르며, 지방의 예산 지원을 위해 사용

11) 골프장이용세 (Golf Course Usage Tax)

- 골프장 이용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레저 및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
- 납부주체: 골프장 이용자 또는 운영자
- 세율: 골프장 이용 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데, 레저 및 스포츠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12) 경유인수세 (Diesel Fuel Tax)

- 경유에 대한 세금으로, 자동차 및 다른 운송 수단에 사용되는 연료에 부과
- 납부주체: 유가 소매업자
- 세율: 리터당 일정 금액으로 책정되며, 자동차 및 기타 운송 수단에 사용되는 경유에 부과

13) 자동차세 (Automobile Tax)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 유지 및 도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 납부주체: 자동차 소유자
- 세율: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르며, 차량 유지와 도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14) 경자동차세 (Light Vehicle Tax)

- 경량 차량에 대한 세금으로, 작은 크기의 차량에 부과
- 납부주체: 경량 차량 소유자
- 세율: 차량의 종류, 배기량,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르며, 경량 차량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

자료원: 일본 국세청(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dition/a01.htm)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을 두고, 지식재산권을 '발명, 고안, 식물의 신품종, 의장, 저작물 기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상표, 상호 기타 사업 활동에 이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및 영업 비밀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 영업비밀, 상호, 상품 표시, 상품 형태가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의 경우와 달리 심사관에 의한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 구체적인 실체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일본은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구성에 따라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외에도 소리 기타 정령으로 규정하는 표장은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나, 상표권자의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저작권은 언어 저작물, 음악 저작물, 무용 저작물, 미술 저작물, 지도, 도형 저작물, 영화 저작물, 사진 저작물, 프로그램 저작물, 건축 저작물, 2차 저작물, 편집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 저작물의 완성 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상표 출원 건수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말까지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을 6.5개월로 함으로써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8개월이 될 수 있도록 상표심사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일본 지식재산권 동향

1) 특허/실용신안 분야

① COVID-19 지속으로 인한 출원 감소

2020년 4월 첫번째 긴급 사태 발령으로 급격하게 경제 활동이 저하되면서 일본 특허 출원 건수는 4, 5월에 월간 데이터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0% 정도 감소했다. 그 후 긴급 사태 해제를 거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이 보였으나, 결국 제2파가 발생한 2020년 8월 이후에는 제1파 때의 감소 분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0년 일본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4%(잠정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이른바 리만 쇼크 직후인 2009년의 -10.9% 이래로 가장 큰 하락 폭에 해당한다.

② 침해 소송에서 제3자(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도입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변론주의(당사자 책임)를 완화하여 제3자 전문가(법조계, 학계, 업계,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1.3.2 일본 국무 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정) 또한, 상기 내용은 실용신안법에도 반영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③ 관리자가 특허를 정정/포기할 때에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 삭제

특허에 있어 다수의 실시권자(라이선스)가 존재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특허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 내용을 정정 또는 포기할 때의 통상 실시권자 동의 요건이 삭제되었다(2021.3.2 일본 국무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정) 또한, 상기 내용은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도 반영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④ 권리자 불명의 작품

2023년 3월, 권리자 불명의 작품이거나 허락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면 잠정적으로 2차적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 상표 분야

① 상표 출원량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상표 심사 기간 증가

일본에서는 2017년경부터 상표 출원이 크게 늘어나, 개별 심사를 착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길어졌다. 이는 일본 특허청이 상표 심사관의 신규 보충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이후로는, 그 전에 비해 연간 출원 수가 20%가량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첫번째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② 개인 수입의 브랜드 모방품 등에 대한 세관 제재 시행

전자 상거래 거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방품 및 해적판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해적판인 경우, 개인 사용이라는 이유에서 현행법으로는 모방품 등을 판매한 해외 사업자를 제재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해외의 모방품 및 해적판 등을 판매하는 자가 일본 국내로 우송한 경우에도 일본 국내 상표권의 침해로 규정하였다(2021.3.2 일본 국무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정). 또한, 상기 내용은 디자인법에도 반영하여 디자인 모방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문화청은 해적판 등 피해로 인한 배상액이 낮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판매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액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이 공제 부분 중 원칙상 저작권자에 지불해야 할 라이선스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 (2022.12.5 일본 문화청 발표)

③ 메타버스 내 모방품 금지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정 예정

2023년 1월, 일본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대상을 디지털 공간을 넓혀 메타버스 내 모방품 판매·양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등의 행사를 인정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2023.1.17)

3) 디자인분야

① 개정 디자인법이 순조롭게 시행 중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개정 디자인법은 i) 화상 디자인(물품성을 요구하지 않음), ii) 건축물의 외관, iii) 건축물의 인테리어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디자인의 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보호 대상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이미 800건 이상이 출원되었다.

② 개정 디자인법 중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항

구체적으로는, 복수 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의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헤이그(Hague)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1 디자인 1 권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데, 심사 및 권리 부여는 각각의 디자인 별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종래와 같이 따로 발생한다. 또한, 물품명의 기재에 있어 구분이 완화되어, 종래에는 시행 규칙상의 물품 구분표에 준하여 물품의 명칭을 기재해야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물품 구분"표"를 삭제하는 대신에 물품명 기재의 기준을 명시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 2022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2년 11월 협상을 시작해 2020년 11월 15일 서명되었다. 그 후, 2022년 1월 1일,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NZ의 10개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한국은 2월 1일 발효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3월 18일 발효되었다.

- RCEP에는 상표·특허·디자인 등 분야별로 총 83개 지적재산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상표 브로커가 기업의 상표를 해외시장에서 선점하고자 할 경우,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할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제11.27조).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명을 타인에게 선점당한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제11.55조). 또한 국가명을 사용하여 '○○산'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제11.57조). 아울러 특허출원을 한 지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제11.44조), 물품의 전

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디자인 권을 허용하는 '부분 디자인제도'의 도입근거도 설정되었다. (제11.49조제5항)

-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시스템과 출원등록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것(11.22조제2항)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상품분류를 따르도록 의무화하며(11.21조), 특히나 디자인도 세계지적소유권기관의 분류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11.47조, 11.52조)는 조항이 반영되었다.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등기상 지점 철수 방법으로 대표자 전원의 퇴임 등기와 일본 지점 철수가 있다. 일본 지점 대표자의 등기가 있으면 일본에서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표자 전원이 퇴임하지 않는 한, 일본 지점의 등기부는 철수되지 않으며, 반대로 일본의 모든 대표자가 퇴임할 경우에 일본 지점이 철수된다.

실무상 일본 대표자 전원의 퇴임 등기만 하는 방법이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을 등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수속이 필요하다.

○ 대표자 전원 퇴임등기 수속의 일반적 절차

- 외국 기업에 의한 지점철수·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 결정
- 지점철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신청을 개별 통지 및 관보공고에 따라 최고(催告)
- 세무관청에 납세 관리인 신고
- 지점철수(위의 통지 및 공고 1개월 이후)
- 지점철수·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에 대한 선서 공술서 작성
- 주일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선서공술서 인증
- 법무국에 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등기 신청
- 철수 등기사항 증명서 취득(등기 신청 약 2주 후)
- 세무관청 등에 지점철수 신고

한편, 지점의 채권자가 지점 철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간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영업거점을 지점에서 자회사(일본법인)로 변경할 경우에도 지점의 철수 수속을 할 필요가 있다. 지점을 주식회사나 합동회사 형태로 바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점 철수 수속과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수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지점의 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자회사(일본법인)의 자산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모든 대표의 퇴임등기를 한 경우, 지점의 철수일은 기재되지 않고 등기부는 철수된다. 일반적으로 선언 공술서에 지점 철수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지점 철수일을 등기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1) 지점의 철수, (2) 일본 대표자 전원의 퇴임등기를 모두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대표자의 주소와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이 다를 경우, 대표자의 주소 관할 법무국에 영업소 이전등기 등의 신고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일본지점 폐쇄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사무대행회사 A의 사례)

- 수수료(선서 진술서 등 서류작성, 일당·교통비 등) : 약 5만 엔
- 관보공고게재 및 수수료(서류작성, 일당·교통비등) : 약 5만 엔
- 등록면허세(수입인지대) : 3만 엔
- 상업 등기부 등본 1통(등기인지대) : 600엔
- = 합계 : 약 130,600엔

한편 자회사(일본법인)를 철수 및 청산 절차는 지점 철수 절차보다 복잡하며 채권자가 자회사 청산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일본법인)의 순 자산액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아래와 같은 자주적인 청산 수속이 불가능하며, 재판소 주도 하의 특별 청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청산 비용은 법인의 규모, 자산규모, 채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청산 기간은 법인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수속의 일반적 절차

- 주주총회 등에서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인 선임을 결정
- 법무국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인 선임등기 신청
- 세무관청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인 선임신고
- 자회사(일본 법인) 청산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신청을 개별 통지 및 관보 공고에 따라 최고
- 철수 시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작성
- 위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주주총회 등에서 승인(합동회사의 경우는 사원들에게 통지)
- 잔여재산의 확정 및 분배
- 주주총회 등에서 청산결료의 승인결의(위의 개별 통지 및 공고 2개월 후)
- 법무국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청산결료 등기 신청
- 철수 등기사항 증명서 취득(등기 신청 약 2주 후)
- 세무관청 등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청산결료 신고

○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 청산비용은 약 아래와 같다. (사무대행회사 B의 사례)

- 수수료(서류작성, 일당·교통비 등) : 약 5만 엔 ~ 7만 엔
- 관보공개비용 : (10행일 경우) 약 35,000엔 (1행 3,589엔)
- 등록면허세 : 41,000엔 (해산등기 : 30,000엔, 청산인선임등기 : 9,000엔, 청산완료등기 : 2,000엔)
- 등기사항증명서 발행수수료 : 1통 600엔
- = 합계 : 약 150,000엔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액)

○ 주의점 :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약법에 따라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노동계약법 16조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

- 종업원이 장기간에 걸쳐 무단 결근을 여러 번 반복했다.
- 종업원이 간단한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해, 재3 지도를 해도 전혀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
-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
- 종업원이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수감됐다

반면 어쩔수 없는 사정에 의한 구조조정은 '퇴직권장'의 방법이 취해지고 있으며, 이에 응할지 여부는 직원의 권한이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퇴직추천에 응한다는건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수당'이나 '패키지'와 같은 퇴직금+위로금이 함께 제안 합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제가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원정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도 퇴직 추천의 형태가 사용되기도 한다.

○ 참고

- ①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선서공술서 안내 관련 (http://overseas.mofa.go.kr/jp-ko/wpge/m_1167/contents.do)
- ② JETRO 일본에서의 거점설립 방법, 한국어 안내(폐쇄, 해산청산)
(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1/page7/)
- ③ O-BIC(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 오사카로 진출희망 또는 소재 외국기업 등에게 정보 제공 <https://o-bic.net/j/>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 큰 시장규모, 일본어는 필수

2023년 명목 GDP가 4조2천억 달러로 미국, 중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 국가이다.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나라이며, 일본어로 모두 소통이 가능하다. 다만, 일본어를 못하면 거의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일본어가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된다.

- 상업에 적합한 장소는 한정적

일본은 면적이 약 37.7만 km²에 불과한 섬나라이자 국토의 75% 이상이 산지로 평지가 매우 적은 나라이다.(도쿄는 국토의 25%에 불과한 평지에 속한다.) 평지가 적다는 점은 일본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매장을 운영하기 적합한 곳이 한정적이라는 의미와 같다. 최근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엔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곳, 혹은 출점해야 할 도시나 좋은 입지는 어느 정도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해외 상품이나 서비스에 특별한 이미지

일본어에 '舶品(외래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해외 제품(서비스)에는 조금 비싸거나 고급스러운, 특별한 이미지가 붙는 경향이 있다.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것을 한 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며,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일단 한 번 가보자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도쿄에 매장을 열고, 그 매장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고 모이는지를 지켜보며 일본 시장에서 해당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지, 정착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볼 수 있다.

- 일본 내 주요 시장 관동, 관서지역의 지역별 차이 이해 필요

도쿄도가 포함된 관동지역(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도 포함), 오사카부가 포함된 관서지역(교토부, 효고현, 시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미에현, 후쿠이현, 돗토리현도 포함)의 식문화, 단어 차이 등 지역별 차이 이해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관동지역의 전압, 주파수는 100V/50Hz이나 관서지역은 100V/60Hz이다. 식문화의 차이 관점에서도 관동지역은 색이 진한 간장, 관서지역은 색이 옅은 간장이 친숙하다.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일본 총 인구 추정치는 1억 2,4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만 명 감소했다.

2023년 일본 총 인구(2024년 4월 발표)는 1억 2,435만 명이며 전년 대비 59만 명 감소해 13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령대별로는 15세 미만 1,417만 명(전년 대비 32만 명 감소), 15~64세 7,395만명(6천 명 감소), 65세 이상 3,622만 명(9천 명 감소), 75세 이상 2,007만 명(71만 명 증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료원 : 일본 총무성>

소비 성향

- 코로나 이후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전자상거래(EC)를 사용한 일반 소비자의 소비규모가 6.76%(2019년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기준)에 그

치는 등,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을 보여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외출 자제 및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율(EC율)은 BtoC분야가 8.08%(전년 비 1.332pt% 증가), BtoB분야가 33.5%(전년비 1.8pt% 증가) 증가하였고, 2021년 총무성의 '가계소비상황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쇼핑 이용률은 47.7%를 기록했다. 후지경제가 실시한 시장조사에 의하면 2023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3,040억 엔이며 2025년에는 3,710억 엔으로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거래시장의 온라인화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품목 또한 가구, 생활 잡화, 문구류 등 기존에는 비교적 품질 변동이 적은 제품에 한해 인터넷 쇼핑이 이루어졌던 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식료품, 화장품 등 전 품목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캐시리스(비현금결제) 및 비대면·비접촉 결제 선호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비접촉 소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 20%대에 머무르던 일본의 캐시리스(비현금결제) 도입률이 2020년 29.7%로 처음으로 30%에 육박했다(전년 대비 약 2.9% 상승). 또한 신용카드를 비롯한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 전자화폐 등 비접촉 결제 가능 매장 수도 대폭 늘어났다. 2022년 소비자청이 2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포구입 또는 캐시리스 결제에 관련된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캐시리스 결제 이용률은 96.9%이었고, 중소기업의 캐시리스 결제 도입률은 72%였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스마트폰 QR코드 결제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20년 QR코드 결제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년 사이에 약 4배가 증가했고, 2022년 소비자청 의식조사에 따르면 점포 도입율은 55%로 절반이 넘었다. 일본 1위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 'PayPay'의 2020년 총 결제액은 3.2조 엔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고, 세력이 빠르게 확장되어 2022년 5월 아마존 재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사 Visa가 출시한 비접촉식 단말기 터치 결제 서비스 'Evering'이 사전 예약 단계에서 매진되기도 하였다. 신용카드 이용 또한 큰 폭으로 늘어 2022년 소비자청의 의식조사에서 신용카드 도입율은 55%로 나타났다.

○ 다이어트·건강 기능 식품 열풍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필수 영양소 섭취가 강조되면서 식품을 통한 건강 관리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생활 습관병 예방이나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높은 중년층뿐만 아니라 몸 가꾸기 열풍 등 미용 목적을 위해 건강식품을 찾고 있는 청장년층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 및 다이어트 등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식품을 비롯한 저당질·저염·저칼로리 식품, 비건 식품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맥주회사 기린맥주(KIRIN BEER)는 2020년 10월 일본 국내 최초로 당질 제로 맥주를 출시해 판매 5일 만에 2020년 연간 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했으며, 2021년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최단 기간에 2억 개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2021년 4월에는 산토리맥주(SUNTORY BEER)에서도 당질 제로 맥주를 출시하는 등 일본 맥주 시장에 당질 제로 열풍이 불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변화된 회식 문화, 개성과 건강을 중시하는 움직임에 의해 하드셀처(Hard seltzer)가 주목받고 있다. '저 알코올, 저칼로리, 저탄수화물'을 내세우며 건강을 지향하는 소비자로부터 화제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알코올 음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일본에서도 21년 말 처음 출시되어 기린맥주, 일본 코카콜라, 아사히 음료 등 대형 주류업체도 22년도에 본격 시장 참여를 발표했다.

○ 친환경 가치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단계적 탄소세 도입, 친환경차 전환, 재활용 대책 의무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2년 4월에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자원순환의 촉진 등가 관련된 법률'을 시행했다.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일본 내에서는 친환경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그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일본 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집에서 지내는 상황이 증가하여 생활방식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본 소비자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환경과 동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 가치 소비와 관련된 상품 혹은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한다고 답한 비율이 약 80%였다. 또, 식료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윤리적 소비를 염두에 두는 소비자도 61.8%를 차지했다. 일본 기업에서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건 식품·화장품, 리사이클 제품 등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과 택배 등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고 이는 세계적으로 탈 플라스틱 움직임을 촉진시켰는데, 먹을 수 있는 그릇, 컵, 사탕으로 만든 빨대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등장했다.

○ 초고령 사회 일본, 주요 소비 세력으로 부상한 시니어층과 스마트시니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622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 75세 이상은 2,007만 8천 명으로 처음으로 2천 만명을 넘으며 16.1% 비중을 차지한다. 두 비율 모두 과거 최고치이다. 반면 2023년 출생자 수(속보치)는 전년 대비 5.1% 감소한 75만 8,631명으로 8년 연속 감속해 과거 최소가 됐다. 코로나 시기 노산이 늘어나고 미혼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혼인건수가 대폭 급감했고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임에 따라 사회 구성원 수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재의 판매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680만 명 가량의 단카이 세대(團塊世代, 인구통계에서 단과 '덩어리'처럼 뭉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가 은퇴, 연금 등으로 일본 전체 개인 금융 자산 1,700조 엔의 절반 이상을 보유, 큰 구매력을 지닌 시니어층이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고령화 상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60세 이상의 시니어층에서 스마트폰의 활용이 증가하며 스마트시니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백신 접종을 인터넷상으로 해야 하는 등 디지털 기기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는데, 2021년 3월 총무성에서 발표한 '위드코로나에 따른 디지털 활용의 실태와 이용자의식의 변화와 관련된 조사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인터넷쇼핑 이용 현황은 78%로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 소비 양극화 진행, 선별적 소비 형태

장기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에서는 소비 형태에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생활 필수품은 가급적 저렴하고 양이 많은 상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코스파(Cost Performance), 타이파(Time Performance) 등 가격이나 시간, 나아가 공간, 장소 등 모든 것에 대해 가성비를 생각한다. 라쿠텐에서 10~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Z세대(28세 이하)의 응답자 중 약 70%가 '타이파를 의식해 행동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메루카리, 지모티 등 중고거래 사이트도 활발하다.

반면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애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 경향이 공존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나 캐릭터, 아이돌 등 관련 굿즈를 소비하거나 커뮤니티 모임을 즐기는 오시카츠(推し活)가 젊은 일본 여성 사이에서 유행하며 시장 확대를 이끌고 있으며, 밸런타인 데이에 보상 심리로 나를 위한 비싼 초콜릿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매스 마케팅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선별 소비, 개별적 마케팅으로 이행되는 추세가 명확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명확한 컨셉에 입각해 개발된 '진품(혼노노 本物,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의미)'의 상품 및 서비스, 확실한 기술력에 기초한 고품질 상품,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상품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세이다.

○ 집콕 소비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 이용 확대

코로나19 이후 외출 자제 등 긴급사태 기간이 지속되면서 간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Uber Eats, Demae-can, menu, Wolt, Chompy 등 배달 앱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는 음식점도 일본 전국으로 확대됐다. 사무실 편의점(사무실 내 반찬 판매)을 운영하는 Office Okan은 2020년 재택근무자들의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위해 반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해 크게 주목받았다. 월 1회 조리된 반찬이 진공 포장된 상태로 직원들의 집으로 배달되며, 업무방식의 개혁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회사도 늘었다.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비접촉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식 디저트와 한국의 카페 인테리어가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도쿄의 한인타운 신오쿠보에서 한국식 치즈 핫도그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이 유행하면서 최근에는 시부야, 하라주쿠 등 젊은층이 모이는 지역에서도 김밥과 삼겹살, 치즈닭갈비, 치킨 등의 가게가 속속 문을 열었다. 코로나19로 한국 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음식을 재현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음식의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음식을 찾는 일본 소비자층이 젊은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한인 타운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다양한 한국 식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일본 대기업들도 이러한 추세를 발 빠르게 반영해 '무인양품'은 순두부찌개, 육개장, 김밥 등을 즉석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POP과 한국 드라마·웹툰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한국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이 2021년 6월 일본에서 발표한 앨범이 약 100만 장의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는데, 많은 기업들이 BTS의 사진이 들어간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거두었다. Planplus는 BTS 스페셜 패키지 캔커피, 롯데는 BTS 패키지 껌을 판매

하였다. 또한 일본코라콜라는 홍차 음료 구매자를 대상으로 BTS 캐릭터 'Tiny TAN'의 오리지널 굿즈를 증정하는 캠페인을 실시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식 패션과 인테리어가 '트렌디하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들에게 퍼져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보인다. 한국 패션이나 의류, 화장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한국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큐텐(Qoo10)은 2022년 이용자 수가 약 2,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카카오재팬이 일본에 출시한 웹툰 앱 '피코마(Piccoma)'가 기존 일본 만화업계에서 보기 드물던 '세로 스크롤 형식'의 컬러 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30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신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코마의 연간 매출액은 2019년 134억 엔에서 2020년 376억 엔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1년 피코마의 일본 거래액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약 695억 엔이었고, 누적거래액은 약 1,250억 엔이다. 2016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일본 시장 누적매출(구글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 기준)은 22억 5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전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푸는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식품 인기가 상당하다. 한인마트를 가지 않아도 일반 동네 대형마트에서 한국 김치, 김, 고추장, 쌈장 등 각종 조미료, 냉동식품(만두, 핫도그 등), 음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카테고리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식품을 모아둔 전용 코너를 마련해 놓은 점포도 있다. 슈퍼마켓 체인인 라이프, 이온 등에서는 한국 김치, 조미료, 음료, 냉동식품, 주류, 조리키트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23.5.9일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는 '한국 음식 페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빔밥, 인절미, 육개장 라면, 달고나 커피&밀크 푸딩, 비빔냉면, 돼지불고기 덮밥, 불고기 김밥 등을 판매하고 있다. SNS에서 여러 후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품절이다.', '달콤하고 맛있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식품 뿐만 아니라 상시 진열 판매 제품으로 한국 과자, 주류, 라면, 마스크 팩 등의 화장품도 판매한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선전하고 있는 스마트폰, 가전 등의 전자 제품 등은 일본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의 OLED TV나 컴퓨터 모니터 등 한국산 디스플레이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며, 최근 LG스타일러, 휴롬(착즙기) 등 기존에 일본에서 잘 없던 개념의 제품이 인기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22년 현대자동차가 13년만에 일본시장에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5'로 재진입했는데, 성능이 좋다는 평가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자료

상담 이전에 자사 카탈로그를 미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꼼꼼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상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인은 회사의 규모나 실적 등을 중시하므로 회사의 규모나 연혁,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회사 소개 자료나 공개해도 무방한 거래처의 리스트 등의 자료를 카탈로그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상담에 매우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거래선 중 유력 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신용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 활자는 진실에 버금가는 것이므로 무역이나 기타 분야의 정기 간행물 등에 자사나 자사 제품에 관한 소개 기사가 게재됐을 경우 이것을 보여주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이 비즈니스 상담에는 효과적이거나 별도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 영어 자료라도 준비하도록 한다.

2) 좌석

상대방 기업에 방문했을 경우 방문자는 자리를 안내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접실에서는 안내인이 자리를 지정해 줄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구 쪽에 앉아서 기다린다. 방문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직위가 높은 순서로 입구 쪽에서 먼 자리부터 차례로 앉는다. 짐, 가방은 앉은 자리에 두지 않고 발 밑에 둔다. 상담 상대가 나타나면 즉시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상담 상대가 앉기 전까지 먼저 앉지 않도록 한다.

3) 상호신뢰 관계 구축 필요

일본에서는 거래의 시작 및 유지를 위하여, 거래 조건과 개인의 신용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거래교섭은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는 소개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 성립 후에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신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거래에서 신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래 기간이나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 거래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인간관계 중시의 상거래 관습은 일본 시장에 있어 강력한 유대를 발휘하고 있으며 일본 신규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일단 기업 간의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마치 관행과 같이 장기적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많은 일본기업은 품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작은 요구사항(사양 변경, 납기, 비용 상담) 등에도 적극 검토해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즉 일본 기업은 상품 공급자와 실시간 시세에 따른 최저 가격에 의한 일시적 거래를 하기보다는 장기적, 안정적인 거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 이익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다.

한편, 거래를 시작할 때 거래조건 등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계약서에 의해 거래를 하게 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미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 처리하는 것과 달리, 일본업체는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상호 접촉이 필요하지만 일단 거래가 시작되면 주문을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계약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거래조건 전부를 명기하지는 않으며 교섭과정에서의 의견교환, 사후에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 대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4) 코로나 이후 新 비즈니스 매너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 및 만연방지 중점 조치 해제 이후 서서히 기업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나,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경단련)은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공표,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회의/명함교환은 온라인으로', '대면 회의 시에는 환기/마스크 착용'을 들고 있다.

또한, 대면 이전의 화상상담에서도 상호 간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대면 미팅과 다르게 온라인을 통한 상담 시에는 긴장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복장/머리 등에 있어 정돈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발생 중이다. 그 외에도 회의 시 필요한 자료의 사전송부 등,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며 카메라나 마이크의 위치, 광원 및 배경 등의 촬영환경에서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 이후 뉴노멀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매너"로서 공통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위드 코로나가 계속되며 점점 정착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도 상호 간의 인식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5) 피해야 할 비즈니스 출장 기간

- 연말(통상 12월 27일부터 시작)부터 1월 첫째 주까지 대부분 기업이 휴무
- 4월 29일~5월 5일까지는 골든위크 기간으로 연휴에 돌입
- 공식 휴일은 아니나 관습적으로 쉬는 기간은 오보야스미(한국의 추석에 해당)로, 보통 8월 중순에 많은 기업이 휴무
- 일본 기업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로, 연말 결산이 이루어지는 3~4월에는 미팅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 5월 말~6월 중순 시기에는 주주총회 등으로 대다수 일본기업들이 바쁜 기간이므로 비즈니스 미팅 시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음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철칙이다. 면담 시간을 비롯해 납기, 자료 제출 기한 등을 지키는 것은 일본 기업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 아울러 비즈니스에 관한 약속을 할 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성실하게 전달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을 경우는 반드시 미리 사정을 설명하면서 사죄의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즉답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대답하지 않고, 자사에 확인 후 신속하게 회신을 하겠다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성실, 정확, 신속 그리고 세심한 배려와 상담 상대에 호감을 주는 것, 성약이 될 경우 최선을 다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면담 약속은 보통 2주 전까지는 잡는 것이 상식이다. 날짜가 임박해서 약속을 잡을 경우 좋지 못한 인상을 상대방 일본인에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단 약속 시각을 잡으면 함부로 변경하는 것도 좋지 못한 인상을 상대방한테 남기는 것이다. 방문 전에는 방문 목적, 방문자 수, 방문자 이름과 직위/직책 등을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좋고, 방문 시에는 약속 장소에 5~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일본 기업과 상담 또는 면담 약속을 정하는 경우, 중간 소개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직접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면으로 연락을 취해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중요한 건의 경우는 서면 연락 후 전화나 메일로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본어로 전화 통화 시 유의할 점은 자기회사 사람에 대해서는 존칭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자기 회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님과 같은 존칭을 붙여서는 안 된다.

참고로 일본 회사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일반적이나, 토요일 오전에도 출근하는 회사가 종종 있다. 대기업의 경우 월-금 평일 근무가 많다.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는 5시 30분까지가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다.

2) 인사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는 '오지기'(お儀)이다. 오지기는 감사나 경의를 표할 때나 사과할 때, 원가를 부탁할 때에 상대방에게 허리를 구부려 하는데, 서서 하는 오지기에는 '에샤쿠(會釋)', '경례(케이레이, 敬禮)', '최경례(사이케이레이, 最敬禮)'의 3가지가 있다. '에샤쿠(會釋)'는 동료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행하는 간편한 오지기이며, 상체를 15도 정도 구부려야 하고, 목만 구부려 하는 '에샤쿠(會釋)'는 매너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도 존재한다. '경례(敬禮)'는 거래선 등과 면담할 때나 무엇인가를 의뢰할 때 하는 오지기이며, 상체를 30도 정도 구부린다. '최경례(最敬禮)'는 가장 정중한 오지기이며, 크게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할 때 상체를 45~60도 정도 구부려 행하게 된다. 남성은 허리를 굽힐 때 팔을 몸 옆에 붙이게 되고 여성은 양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포개게 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스킨십을 요하는 인사는 행하지 않으며, 악수나 포옹을 하거나 볼을 만지는 인사는 일반적이지 않다.

3) 선물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한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름에는 '오츠후겐'(お中元), 연말에는 '오세이보'(お暮)라는 선물을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끼리 교환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일본인들은 선물의 가치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는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일본 기업으로부터는 매우 간소한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선물의 대소가 비즈니스 성과와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한편 선물을 일본인들에게 건넬 경우에도 고가의 물건을 선물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간단한 식품 등을 선물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선물로는 차(전통차, 곰부차 등), 과자(아몬드 등), 화장품, 김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선물을 받을 때 바로 포장을 열기보다는 선물을 준 사람이 돌아간 후에 포장을 여는 풍습이 있다. 또한 일본인들은 선물을 받을 때 2번가량 사양의 의사를 보일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풍습의 일환으로, 선물을 받을 의지가 정말로 없다는 뜻은 아닌 경우가 많다. 선물로 적절하지 않은 품목으로는 손수건, 칼, 불과 관계있는 것(라이터, 재떨이 등) 등이 있다. 손수건은 일본말로 '테기레'(手切れ)라고도 하며, 테기레는 '절연'을 의미하는 말이고, 칼 또한 관계의 단절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물 개수가 4와 9(4=시='死', 9=구='苦'를 연상)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4) 접대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의 식사비 지불은 더치페이식으로 하지만 식사에 초대받는 경우 지불은 초대한 측이 한다. 주문은 메뉴가 일본어로 쓰여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편하다. 먹을 때는 마음껏 먹고 다 먹은 후에는 고치소-사마데스(잘 먹었습니다) 내지는 아리가또-고자이마시타(감사합니다) 등의 감사 인사를 한다. 접대 중에는 일에 관한 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적인 관계를 증진하게 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는 것이 좋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의 하나로 다짜고짜 역사 얘기나 정치 이야기를 꺼내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음식, 음주, 온천, 관광 등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무난하다. 또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은 피하고 상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인상을 준다. 기업 대 기업으로 초대받아 접대를 받을 경우 식사 후 감사의 뜻으로 과자 같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5) 복장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회색이나 남색 정장에 하얀 셔츠, 그리고 어두운 색의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정장 문화)이 보통이었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디자인과 색상이 중요시 돼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특정 업계, 공공 기관에서는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스타일의 정장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본에서 테이블이 아닌 좌식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발을 벗어야 하므로 복장뿐 아니라 양말의 색상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비즈니스맨은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긴 팔 와이셔츠에 상의를 입고 (아니면 들고라도) 다니기 때문에, 덥다고 해서 노타이 차림으로 다른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실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일본 정부의 주도로 쿨비즈(Cool-biz, 하절기 간편복

장)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반팔 와이셔츠 및 노타이 차림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중요한 상담이나 첫 대면 등에는 아무래도 정장 차림으로 나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6) 식사

종교적 이유의 음식, 음주 관련 제한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일식을 좋아하나, 일본에는 양식, 중식, 한식 등 세계 주요 음식들이 넓게 보급돼 있는 만큼 일본인과 식사할 때 일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날음식(해산물 등)이나 알레르기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본인과 식사 시 유의사항으로는 일식을 먹을 때는 물수건으로 얼굴이나 목을 닦는 것, 식탁 위에 담배를 두는 것, 식사 중에 이쑤시개를 쓰는 것, 음식을 찹찹소리 내면서 먹는 것 등이 매너 위반이다.

또한 젓가락을 쓸 때는 젓가락으로 식기를 움직이는 것, 젓가락을 핥거나 무는 것, 식기 위에 젓가락을 두는 것, 음식물에 젓가락을 찌르는 것 등은 좋지 못한 인상을 상대방한테 남길 위험이 있다. 또한 일본은 화장하고 남은 뼈를 젓가락으로 납골함에 담은 문화가 있어서 음식을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전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다. 식사 중의 좌석 배치(비즈니스 매너)는 ① 출입구로부터 가장 먼 자리, ② 일본식 방(和室)의 경우 도코노마(床の間)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상석이라 할 수 있고, ③ 초대한 사람의 경우 상대방보다 직위가 낮아도 끝자리에 앉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7) 명함

명함 교환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상담 시 명함 교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본에서 명함은 늘 충분히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또한, 명함은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순 한글로 된 명함보다는 한자와 영어로 된 명함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가족으로 된 명함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며, 깨끗한 상태의 명함을 상대방에게 건네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수첩이나, 지갑에서 때가 묻은 명함을 꺼내서 건네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명함은 일어서서 공손하게 두 손으로 건네는 것이 일본의 비즈니스 에티켓이다.

명함은 악수나 인사를 한 뒤에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명함을 건네 받은 후에는 주의 깊게 명함을 살펴본 후, 발음이 어려운 이름이거나,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 경우에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명함을 받아 확인한 후에는 명함 지갑에 넣거나 겹치지 않도록 가지런히 테이블 위에 올려 두도록 한다. 테이블 위에 올릴 시 상급자의 명함은 명함 지갑 위에 놓거나 착석 순으로 명함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함을 받고 나서 바로 바지 주머니나 재킷 안쪽에 넣는 행동이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함 위에 메모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8) 호칭

성 혹은 직책으로 호칭한다. 일본에서는 보통 이름(名)은 가족 및 친한 친구 사이에서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성(姓)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 다음에 「상(한국어의 ~씨 에 해당)」을 붙여서 호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 뒤에 그 사람의 직책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직책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 여기에 상을 추가로 붙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령 한국어로 야마다 부장님이라고 할 경우 '야마다 부초(部長)'라고 부르며 여기에 한국어의 님에 해당하는 '상' 또는 '사마'를 붙이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외부인에게 자사 직원을 소개할 때는 직위나 '상'을 붙이지 않고 이름만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9) 대화 주제 및 일본식 영어 고려

첫 대면에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일본 경제에 대한 칭찬이나 일본 스포츠(야구, 축구, 골프 등)에 대한 뉴스 등에 대한 화제를 언급해 상대방과 친밀감을 도모,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스포츠에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세계 무대에서 한 일이 경쟁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며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 등 민감한 역사 문제, 심한 농담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본인들의 특성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줄임 말과 일본식 발음의 영어를 자

주 쓴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시 영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일본 고유의 언어(일본식 외래어)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포인먼트(약속, appointment)를 줄여서 아포(アポ)라고 하거나,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프레젠(プレゼン)이라고 하는 식이다. 그러므로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표현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10) 기타

- 미국, 한국의 경우 상급자가 결정하여 하급자가 실행하는 의사결정이 일반적이거나, 일본은 현장 담당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대다수이므로 의사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일본 기업과 상담 시 윗사람을 만나서 협의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 일본의 비즈니스 메일에는 정형화된 문장이 있다. 정형화된 문장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느냐가 비즈니스 매너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첫 인사말, 다양한 표현, 기업이나 업종별 독특한 매너 등이 있어 복잡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 무모함은 역효과를 내며, 100% 확실하지 않으면 검토해 보고 다시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여유를 두는 상담 진행 방식이 중요하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라쿠텐 시장

사이트 주소	www.rakuten.co.jp
개요	일본의 인터넷 서비스 대기업 라쿠텐 그룹이 운영하는 일본 최대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2023년 12월기 연결 결산 기준 일본 전자상거래 유통 총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6조 487억 엔을 기록했다. 라쿠텐 회원 수는 2020년부터 크게 성장하여 2023년 5월 기준 1억 명을 초과하였다. 해외 3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이용자 수는 약 16억 명 이상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라쿠텐은 1994년 설립되었으며, 2023년 12월기 연결 결산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2조 713억 엔으로 27기 연속 성장을 실현했다. 인터넷 서비스, 핀테크(금융 기술), 모바일 각 사업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라쿠텐 그룹사 종업원 수는 30,173명(2024년 3월 기준)이다.
주요 판매 품목	패션, 잡화, 식품, 화장품, 서적 등 생활소비재, PC 및 가전 등의 전자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등
특징	라쿠텐 회원을 대상으로 라쿠텐 포인트 클럽(Point Club)을 운영 중이며 라쿠텐 그룹 내 다양한 서비스(여행상품, 간편결제, 전자 서적, 모바일 통신 등)와 연동해 라쿠텐 포인트를 폭넓게 사용 가능한 '라쿠텐 에코 시스템(경제권)'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연간 4회 약 일주일간 약 200만 개 이상의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라쿠텐 슈퍼 세일)를 진행하고 있다. '23년 3분기 기준 라쿠텐 그룹의 국내 월평균 액티브 사용자 수*는 4,090만 명(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이며, 지난 12개월간 전체 서비스 대비 2개 이상 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76.5%로 라쿠텐 고객 기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 해당 기간에 라쿠텐 회원 중 1포인트라도 적립된 사용자를 의미

○ 아마존 재팬

사이트 주소	www.amazon.co.jp
개요	미국 아마존 재팬의 일본 현지법인 아마존 재팬 합동회사가 운영하는 아마존재팬은 설립 초기는 도서 판매업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했으나 현재는 일본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동시에 검색 가능하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8년 설립되었으며, 2023년 기준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260억 200만 달러로, 엔 환산 시(1달러=141엔) 약 263조 6,662억 엔을 기록했다. 종업원 수는 8,500명(2023년 11월 기준) 이상이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 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 PC용품이나 가전 등의 전자제품, 식료품 등
특징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라는 회원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빠른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책(Prime reading), 영화 및 음악 감상 등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아마존 프레시'와 더불어 현지 대형 마트(라이프, 배로, 세이조이시이)와의 협업으로 '아마존 넷슈퍼'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정 제품을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타임세일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판매자들이 동 프로모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 야후쇼핑

사이트 주소	shopping.yahoo.co.jp
--------	----------------------

개요	일본 최대 검색 포털 야후재팬(Yahoo! Japan)이 운영하는 일본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다. 초기 입점 비용, 플랫폼 이용비, 판매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판매자 입장에서 입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기존 야후재팬의 보유 고객(월간 액티브 사용자 수 8,400만 명, 스마트폰/PC 사용자 포함)을 활용해 야후 쇼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타사 EC 플랫폼과 다르게 야후쇼핑에서는 판매자가 자사 독립 쇼핑몰 링크를 게재할 수 있으며 고객 이메일 수집이 가능하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23년 10월 LINE과 합병해 LINE야후 주식회사가 출범했다. 2024년 3월기 기준 그룹사 매출수익은 1조 8,146억 엔, 전자상거래 매출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8,215억 엔을 기록했다. 야후재팬 종업원 수는 8,305명(2023년 3월 말 기준)이다.
주요 판매 품목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 화장품, 패션, 식품, 여행용품 등
특징	LINE 계정과 연계된 야후 ID로 PayPay(현지 전자결제 어플) 결제 시 쇼핑 금액의 3.5%를 포인트로 부여한다. 5일, 15일, 25일에 야후쇼핑 이용 시 PayPay(현지 전자결제 어플) 혹은 야후쇼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쇼핑 금액의 4% 상당의 야후쇼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11일과 22일에는 할인 쿠폰이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조조타운(ZOZOTOWN)

사이트 주소	zozo.jp
개요	조조타운은 주식회사 ZOZO가 운영하는 일본 최대 패션 전자상거래이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남성복을 판매했으며, 현재는 약 7,500개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판매해 연간 이용자 수가 800만 명을 넘는 패션 전문 쇼핑몰로 성장했다. 그 외에도 의류 매입과 중고 의류 판매, 화장품, 광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3월기 기준 조조타운 연간 구매자 수(라인야후쇼핑 제외)는 전년 동기 대비 26만 명 증가한 1,168만 명이며, 최근 1년 내 1회 이상 구매한 액티브 회원 수는 전기 대비 59만 명 증가한 1,078만 명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98년 설립되었으며, 2024년 3월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5,743억 엔, 영업이익은 6.5% 증가한 600억 엔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조조타운 그룹 종업원 수는 1,681명(2024년 3월 말 기준)이다.
주요 판매 품목	의류, 화장품, 패션잡화, 액세서리 등
특징	조조타운은 패션 앱 'WEAR'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사용자는 1,000만 명 이상이다. 이 앱만 5억 PV(Page View)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용자 1인당 50페이지를 볼 정도로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는 계시된 코드를 참고할 수 있고,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조조타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 큐텐(Qoo10)

사이트 주소	www.qoo10.jp
개요	eBay Japan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이다. 등록 회원 수는 약 2,300만 명(2023년 기준)이며 여성 회원이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여성 의류와 화장품을 주로 취급해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코로나 시기 급성장했다. 한국에서 직배송되는 제품도 많아 타 사이트보다 다양한 제품군이 특징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한국 G마켓 운영사가 2010년 일본에 진출해 6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8년 eBay Japan 합동회사가 인수했다. 매출규모는 약 2,305억 엔(2022년)으로 추정되며 일본 국내 유통 총액 기준 라쿠텐, 아마존재팬, 야후쇼핑을 이은 4위 쇼핑몰이다.
주요 판매 품목	화장품, 의류

특징	연 4번(3월, 6월, 9월, 11월) 대상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일본판 블랙프라이데이 '메가와리(メカ割)'를 진행한다. 메가와리는 2019년 9월 시작 이래 18회 연속으로 최대 유통금액을 갱신할 정도로 일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입점 시 비용이나 월 고정비가 일절 들지 않고 판매 수수료로 6~10%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다각적인 홍보전략으로 성공한 A사

A사는 해외가전제품의 황무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시장에 이불 살균청소기라는 새로운 개념의 가전제품을 다각적인 홍보전략 통해 성공적으로 런칭했다. TV 광고, 홈쇼핑, 가전양판점, 온라인판매 등 다양한 홍보판매채널을 구축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일본에 침구살균기라는 새로운 장르의 시장을 창출했다.

2012년 본격적인 일본 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 지사를 설립. 2012년 2월에는 연예인 간접 홍보 방법을 이용한 신제품 런칭 발표회 개최 및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펼쳤다. 또한, 2012년 초 병원 및 알레르기 퇴치연구소의 공인 테스트 결과를 이용한 신문, 잡지, 온라인 매체 홍보를 통해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면서 침구살균기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2013년도에는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가전제품 최대 유통채널인 가전양판점 홍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시연이 가능한 새로운 디자인의 가판대를 제작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또한, TV 광고 제작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 체험담을 포함한 CM을 제작해 침구살균기의 효능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로 전달한 것이 일본시장에 적중했고,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면서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장기적인 홍보전략 구축으로 침구살균기는 A사라는 이미지를 일본 내 정착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2013년 말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상 최초로 닛케이 히트상품 8위에 선정되는 결과를 이뤄냈으며, 2018년 기준 일본을 비롯한 세계시장 누계 출하 대수 600만 대를 돌파,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에 성공했다.

2) 기술은 기본! 도쿄 IT 지원센터 입주까지 활용한 B사

B사는 PC 등의 단말기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원격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로 스마트폰을 일반 PC로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2001년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증진으로 2011년에는 대한민국 SW 대통령상을 받는 등 국내에서 성과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B사는 일본시장 최초로 스마트폰을 PC로 원격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NTT 도코모와 성약 성공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안드로이드)과 PC는 OS 기반이 서로 달라 원격제어를 하는 기술이 쉽지 않았으나 해당사가 이를 업계 최초로 상용화시켰다. B사는 도쿄 IT 센터 입주를 통해서 일본시장 진출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일본시장 “리모트 원격 툴” 분야 시장점유율 2006년 이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2년에는 대일 수출실적 868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일본시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이러한 성과는 일본 최대 통신사업자 NTT 도코모에게도 인정을 받아, 2012년 8월 이후 출시되는 NTT 도코모(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스마트폰에 B사 제품이 탑재되기에 이르렀다. 2012년 12월에는 NTT 도코모로부터 144억 원 투자유치가 성사됐으며, 향후 모바일 R&D 센터 공동운영 등 업무제휴를 실시 한다. 이후 정부, 공공단체, 금융, 제조사 등을 고객사로 확보, 일본 내 리모트 서비스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사가 지닌 장점은 스마트폰을 PC로 원격지원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원격 지원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반드시 OK를 해야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은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도 제고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일본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사용 중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현지에서 즉각 대응하는 이른바 유지보수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러한 점으로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고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IT 센터 입주로 안정적 비즈니스, AS 제공이 가능했다는 것도 큰 요인이었다. B사는 경쟁 원격지원 개발사 중에서도 특히 콜센터 등의 고객지원용 솔루션에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상담원이 고객의 문의를 접수해 애로사항을 처리할 때 원격지원 솔루션을 사용코자 한 사업이 큰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일본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간 B사는 2017년까지 일본 원격지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일본 사업을 추진 중이다.

3) 기업니즈를 발 빠르게 파악해 계약수주로 이어진 C사

C사는 통신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우수 통신 기업의 파트너사로 실력을 쌓아왔다. 국내에서의 실적을 발판으로 일본 진출을 노렸으나 쉽지만은 않았다. 2015년 글로벌기업의 일본 법인과 첫 미팅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줄다리기 끝에 2016년 6월 첫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6년 12월부터 개발에 돌입, 2017년 8월 첫 수주에 성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7년 도쿄 IT 지원센터에 입주하여 현지화 및 현지 대응에 힘을 쏟고 여러 조언을 얻어 개발과 미팅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개발한 제품은 해당 글로벌 기업의 단독 벤더로 매년 일 정규모의 매출이 지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본 내 통신기기 수요 증가로 최근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4)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출장불가에도 적극적인 진출노력으로 성공한 D사

유아용품 제조 중소기업 D사는 2020년부터 일본시장 첫 진출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출에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기 위축과 직접적인 미팅이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KOTRA의 긴급지사화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바이어 발굴 노력, 화상 상담 및 지속적인 고객의 니즈 파악과 대응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기업 및 KOTRA의 적극적인 연계로, 코로나로 인해 출입국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도 수주에 성공하여 처음으로 일본시장에 발을 내디디게 되었으며, 첫 수주에 따른 기업 반응 또한 긍정적으로 추가 발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동 기업은 해외수출실적이 전무했던 기업으로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기업의 기술력과 적극적인 수출의지, 국내(기업-KOTRA 전문위원) - 해외(KOTRA 무역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한 뉴노멀시대의 무역에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5)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제조로 성공한 E사

E사는 알루미늄 압출 제조사로 알루미늄 창호(커튼월), 난간 등을 전문 제조하여 관공서 등에 주로 납품을 해왔다. 일본에도 오래전부터 수출하고 있었지만 비교적 간단한 간판제작용 알루미늄 샤키가 중심으로, 수출규모는 미미했다. 이러한 E사의 일본수출이 증가하게 된 계기는 KOTRA의 인콰이어리 제공을 통해서이다. 인콰이어리 제공 당시 E사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E사의 주력 아이템이 아니었고 제조 경험도 많지 않아서 제조 대응에 난색을 표했으나, 자사의 우수한 압출제조 능력이 있으니 도전해보자고 의기투합 하여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알루미늄 루바는 정상적으로 제조되었으나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도장의 질 수준이 매우 높았다. 샘플 제작하여 합격을 받고 발주를 받아 제작에 들어갔으나 출하 전 검사에서 제품의 80% 이상이 도장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결국 도장을 전부 지우고 재작업을 한 후에 간신히 납품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난관을 겪은 이후에는 일본 바이어가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발판삼아 2019년에 수출에 처음 성공한 이래 다양한 바이어에게 추가 수주를 받아 수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제조사가 자사 주력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이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도전정신, 그리고 일본에서 원하는 질을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도 KOTRA 지사화사업을 통해 수입절차, 시장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시장확대를 노력한 점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6)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한 소통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일본 신규 거래처를 확보한 F사

F사는 차량 내/외장형 램프 개발업체로, 일본에서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나고야 GP센터에 마케팅 영업부를 설립하고 KOTRA와 함께 일본 완성차 업체 및 1차 벤더 부품업체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며 거래처와의 출장 및 대면 회의가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F사는 적극적인 화상 상담과 온라인 공장 실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바이어들과 소통했고,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20년 1월부터 일본 완성차 자회사의 사이드 미러에 장착되는 'STSL'제품 스펙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21년 5월 해당 제품의 개발 및 납품 확정에 성공하였다. STSL로 실외 램프 기준 일본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최초로 납품 수주를 받은 사례로, 관련 사업 분야로의 확장도 기대된다. 코로나로 인해 일본 기업에서 중요시하는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 방법을 모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7) 신속한 대응과 가격 경쟁력으로 업계 신뢰를 받고있는 B사

B사는 컨베이어 체인 관련 업체로 1992년 컨베이어 체인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2015년 컨베이어 관련 5종 특허를 취득하여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업체이다. 2015년부터 KOTRA 지사화 사업에 가입하여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현재 주요 거래선은 일본 업체이다. 첫 진출 시 일본에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종업계의 회사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빠른 납기, 특수 모델 주문 제작, 철저한 사후 관리 등의 강점을 어필하여 보수적인 일본 공업 설비 업계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2018년에는 현지 수요 발굴 및 빠른 대응을 위해 고베에 일본 사무소도 설립했다. B사는 이후에도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꾸준히 신규 거래선을 발굴 중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으나, B사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등 KOTRA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여 일본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8) 기술 인증 장벽을 넘어 일본 진출 활로를 개척한 K사

K사는 반도체 장비용 볼밸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이다. 기존 수출국인 대만, 중국에서 일본으로 판로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시장 보수성과 제품의 특수성으로 바이어 발굴에 애로가 있었다. 해당 품목은 첨단 소부장으로서 수출 진행을 위해 양국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가 필요했으며 기존 對日 수출실적이 전무했다. 2018년부터 KOTRA 지사화사업에 참여해 밸브 협력업체를 찾고 있던 일본 산업용 밸브 업계 규모 2위 업체를 발굴했다. 제품 채택을 위해 5년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 제조공정별 주의점 컨설팅, 인증서류 작성 등을 수행하며 바이어 요구조건에 대응했다. 그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2023년 9월 연간 300만 달러 규모 수출 MOU를 체결한 후 10월부터 1차 양산품 공급을 개시했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유망품목의 일본 진출 활로 개척에 성공했으며 향후 양

사는 산업용 밸브 분야 상호 기술제휴 및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 실패사례

1) (산업부품) 가격 차이로 인한 거래 난항

우리나라 산업부품 기업들의 경우 여러 제품을 고퀄리티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많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일본 바이어 측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가 많다.

그런데 최근 일본 바이어의 요청으로 신규 제품에 대해 협의할 때 양쪽에서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 한국 업체들은 인건비 및 에너지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상승한 반면, 일본 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 제품의 가격이 일본 바이어가 제시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신규 제품에 대한 거래가 지연 및 불발되며 시장 진출 및 확대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커다란 금액 차이를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한다.

2) (소비재) 대형 유통망 진출 시 비용 리스크 주의가 필요해

소비재 기업들은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의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진출할 때도 도큐멘즈, Loft 등 대형 유통망을 통해 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형 유통망에 들어가면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된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대형 유통망 입점을 희망하기 때문에 대형 유통망은 자신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입점할 수 있는 기업을 택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의 일종으로 제품 단가를 낮추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입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추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 요청대로 제품의 단가를 낮춰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투자한 만큼 유통망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 종류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규정된 일본의 체류자격은 총 29종류로 구분이 되며, 이 중 하나를 취득해 체류하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해야 하므로, 체류자격을 취득할 때에 각각의 어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은 29종류의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본에 상륙해 체류할 수 없다. 가령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단순 노동)을 목적으로 상륙, 체류를 신청해도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상륙도 체류도 허가받지 못한다. 또한 외국인은 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누구라도 입국 및 체류가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4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개정(2015년 4월 시행)에 의한 고도 인재를 위한 체류자격 '고도전문직'이 창설, 체류자격 '기술'과 '인문지식·국제업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일원화되었으며 체류자격 '투자·경영'이 '경영·관리'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6년 입관법 개정(2017년 9월 1일 시행)으로 체류자격 '개호'가 창설되었으며 2018년 개정(2019년 4월 1일 시행)으로 '특정기능'이 창설되었다.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이 입관법의 별표 제1의 1~5 및 별표 제2로 29종류로 구분된다.(2024년 11월 기준)

○ 별표 제1의 체류자격(활동유형자격)

- ① 6종류(취업자격) :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 ② 13종류(취업자격) : 고도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기능실습
- ③ 2종류(비취업자격) : 문화활동, 단기체재
- ④ 3종류(비취업자격) : 유학, 연수, 가족체재
- ⑤ 1종류 : 특별활동

○ 별표 제2의 체류자격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총 4종류)

※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 범위

(1) 활동 제한 없음

- 별표 제2의 체류자격(4종류) : 영주권,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의 배우자, 정주자의 총 4종류는 활동에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2) 활동 제한 있음

- 취업이 인정되는 체류자격(활동 제한)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예술, 연구, 교육 등 총 19종류가 이에 해당되며 직종에 맞는 재류자격 발급을 받아야 한다.(2024년 11월 기준)

* 고도전문직 1호, 2호 : 2015년 4월 신설된 것으로, 고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재류자격으로 출입국 관리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고도전문직 1호'는 현재 고도 인재에 부여되는 '특정활동'을 대신하는 것이다. '고도전문직 2호'는 '고도 전문직 1호'로 3년 이상 재류한 고도 인재가 대상으로 재류기간이 무기한이 된다. 또한 고도전문직 2호는 취업 재류자격으로 인정되어 거의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취업 여부는 지정된 활동에 의한 것 : '특정활동'이라 불리는 재류자격으로 '법무 대신이 각각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지정한 활동'을 뜻한

다. 예를 들어 외교관의 가족 사용자, 워킹홀리데이, 경제제휴 협정에 근거한 외국인 간호사, 개호복지사후보자 등

(3) 활동 불가

- 비취업자격으로 분류되는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총 5종류의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의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비자 발급 절차

현재 개인 사증(비자) 신청의 경우 대사관 창구 접수는 정지되어 있으며,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한다.(2024년 11월 기준)

* 사증 대리신청 기관 지정 여행사 리스트(2024년 6월 19일 기준): <https://www.kr.emb-japan.go.jp/what/visaagencylist.pdf>

o 비자의 발급

- 필요서류 준비

- 일본국 입국 사증(VISA) 신청서
 - 여권(일본 체류 예정기간보다 유효기간이 긴 상태를 권장)
 - 사진(컬러, 상반신, 가로 4.5cm×세로 4.5cm 또는 가로 3.5cm×세로 4.5cm,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 1매
 -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중에서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기타 입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교부 신청(심사 1~3개월 소요)
- 교부받은 재류 자격인정증명서를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 비자 발급

※ 사증 신청 관련해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 문의 요망(사증 상담용 주소 : visa@so.mofa.go.jp, 전화 번호: 02-739-7400)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일본은「외국환율 및 외국 무역법」에 의해 100만 엔 이상(수표·유가증권 등 포함)을 반출입할 경우 일본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 주류: 3병(760ml를 한 병으로 계산)
- 담배: 종이에 싸인 것에 한해 200개비, 가열식은 개별 장치 등 10개비 (1상자에 수량이 종이 담배 20개비에 해당하는 양), 잎담배는 50개비, 기타 파이프담배 250g
- 향수: 2온스(56ml)
- 기타: 상기 품목을 포함, 개인당 200,000엔까지 면세 대상(1만 엔 이하 품목도 면세 계산에서 제외) 세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송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지는 항공기 내, 선내, 세관에 준비되어 있다.
- 쌀: 연간 100kg의 범위 내에서 면세 (「쌀겨 등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필요)
- 금: 지금(地金, 순도 90% 이상) 중량이 1kg의 범위 내에서 면세 (초과할 경우, 「지불 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 신고서」 세관에 제출 필요)

Visit Japan Web를 통해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중부, 후쿠오카, 신치토세, 나하 공항의 세관검사장 전자신고 게이트 이용 가능(23년 4월부터)

(링크 : <https://services.digital.go.jp/ko/visit-japan-web/>)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81-3-3452-7611~9
주소	東京都港南麻布1-2-5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ko/index.do
비고	이메일: 경제관계 : economic_jp@mofa.go.kr 교육관실 : education_jp@mofa.go.kr 문화원 : postmaster@koreanculture.jp 홍보관실 : information_jp@mofa.go.kr 운영지원과 : general_jp@mofa.go.kr 정무관계 : political_jp@mofa.go.kr 재외국민 법률상담 : legal_jp@mofa.go.kr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전화번호	+81-3-3455-2601~3
주소	東京都港南麻布 1-7-32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ko/index.do
비고	이메일 : consular_jp@mofa.go.kr

○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78-221-4853~5
주소	神戸市中央中山手通2-21-5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kobe-ko/index.do
비고	이메일 : kobe@mofa.go.kr

○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52-586-9221
주소	愛知名古屋市中村名南1-19-12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nagoya-ko/index.do
비고	이메일 : nagoya@mofa.go.kr

○ 주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25-255-5555
주소	新潟市中央万代島5-1万代島ビル8F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niigata-ko/index.do
비고	이메일 : niigata@mofa.go.kr

○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11-218-0288
주소	北海道札幌市中央北2西12-1-4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sapporo-ko/wpge/m_416/contents.do
비고	이메일 : sapporo@mofa.go.kr

○ 주 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22-221-2751~3
주소	宮城仙台市青葉上杉1-4-3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sendai-ko/index.do
비고	이메일 : sendai@mofa.go.kr

○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6-4256-2345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西心橋2-3-4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osaka-ko/index.do
비고	이메일 : osaka@mofa.go.kr

○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45-621-4531~3
주소	神奈川県横浜市中山手町118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yokohama-ko/index.do
비고	이메일 : yokohama@mofa.go.kr

○ 주 히로시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82-505-2100~1
주소	島市南翠5-9-17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hiroshima-ko/index.do
비고	이메일 : hiroshima@mofa.go.kr

○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92-771-0461~2
주소	福岡市中央地行浜1-1-3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fukuoka-ko/index.do
비고	이메일 : fukuoka@mofa.go.kr

○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81-3-3357-5970
주소	東京都新宿四谷4-4-10
홈페이지	https://www.koreanculture.jp/korean/
비고	이메일 : postmaster@koreanculture.jp

○ 한국 수출입은행 동경사무소

전화번호	+81-3-3580-8702~3
주소	東京都千代田幸町1-2-2 日比谷ダイビル 19F 1904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index
비고	이메일 : extokyo@hotmail.com

○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

전화번호	+81-3-6826-5170
주소	東京都千代田永田町2-13-10 PRUDENTIAL TOWER 3F
홈페이지	https://www.koba.or.jp/
비고	이메일 : jjpp@kita.net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전화번호	+81-3-3213-6961
주소	東京都千代田丸の内3-4-1 新際ビル 8F 837
홈페이지	http://www.bok.or.kr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내각부

전화번호	+81-3-5253-2111
주소	東京都千代田永田町1-6-1
홈페이지	https://www.cao.go.jp/

○ 경제산업성

전화번호	+81-3-3501-1511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1-3-1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index.html

○ 외무성

전화번호	+81-3-3580-3311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2-2-1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index.html

○ NHK

전화번호	+81-3-3465-1111
주소	東京都谷神南2-2-1
홈페이지	https://www.nhk.or.jp/info/
비고	일본방송협회

○ 요미우리신문

전화번호	+81-3-3242-1111
------	-----------------

주소	東京都千代田大手町1-7-1
홈페이지	https://info.yomiuri.co.jp/index.html
비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신문

○ 일본은행(BOJ)

전화번호	+81-3-3279-1111
주소	東京都中央日本橋本石町2-1-1
홈페이지	https://www.boj.or.jp/index.html/
비고	일본의 중앙은행

○ 후생노동성

전화번호	+81-3-5253-1111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1-2-2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index.html

○ 법무성

전화번호	+81-3-3580-4111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1-1-1
홈페이지	http://www.moj.go.jp/

○ 총무성

전화번호	+81-3-5253-5111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2-1-2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

<자료원 : 각 기관/기업 홈페이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53.64JPY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120
2	식품	비빔밥	1인분	6.38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0.280
4	식품	신라면	1봉지	0.87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83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48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830
8	의료	항생제	12정	8.46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1.37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1.17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3.25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7.71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14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21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2.580
16	여가	담배	1갑	3.73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7.03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시급	6.87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0404.840
20	금리	국책금리정보(재무성)	%	0.250
21	식품	쌀	1kg	4.250
22	식품	식빵	한묶음	1.980
23	식품	고기	1kg	49.990
24	식품	계란	10개	1.780
25	식품	우유	1L	1.670

26	식품	식용유	1L	3.05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210
28	주거	수도세	m ³	0.810
29	주거	가스비	m ³	1.14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연 수입 500만 엔 기준)	월	202.28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19.49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21.48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kW	0.13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	분	0.72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	분	0.29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	33.390
37	서비스	TV 수신료	1개월	7.160
38	서비스	OTT 구독료(Youtube, Netflix, HBO 등)	1개월	8.33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1.650
40	기타	국경일수	연간	16.000

<자료원 : 일본은행, 일본 총무성, 도쿄도 수도국, 전철, 택시 요금, 각 사 홈페이지, 주요 음식점 평균가 참조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엔(Yen)으로 약칭은 ¥이다. 지폐로는 10,000, 5,000, 2,000, 1,000엔이 있으나 2,000엔 지폐는 유통량이 적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전 종류에는 1, 5, 10, 50, 100, 500엔이 있다.

환전방법

출국하기 전에 명동 환전소나 은행에서 환율우대를 받아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기는 하지만, 미리 환전을 하지 못했더라도 일본 주요 공항에는 모두 입국장 내에 환전소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지에서도 원을 엔으로 환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도착할 공항의 환전 방법은 각 공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혹시 현지공항에서도 환전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내의 은행, 일부 호텔에서 환전 가능하다. 은행의 경우 창구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중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하므로 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은행에 따라 ATM기기로 직접 현금을 인출할 수 있거나(유초은행, 미즈호은행, 미쓰비시 UFJ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등) 외화 현금을 직접 환전 해주는 환전 기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ATM 기기 개방시간에만 유의하면 된다.

출국 전 국내에서 환전하여 엔화를 준비하는 방법 외에도 해외결제카드를 사용하여 각 카드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율 우대를 받아 환전한 후, 일본에 입국하여 공항의 세븐일레븐이나 ATM 을 통해 환전한 엔화를 출금하는 방식도 통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에서 운영하는 월드 커런시 슝(WCS)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일본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세븐뱅크 ATM의 경우에도 Visa, Mastercard, UnionPay, American Express, JCB 등 해외발급카드의 현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편리하게 엔화 출금이 가능하다. (카드사별 수수료 상이)

신용카드 이용

일본은 현금 사용이 활발한 나라이므로 출장 시 현금을 환전 해두는 것이 좋다. 이전에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상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소규모 소매점 등 외에는 대체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지방으로 갈수록, 또한 스시, 우나기 등 일본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고, 택시의 경우 아직 현금만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분의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대응책으로 비현금결제 이용 시 이용요금할인, 비현금결제 결제단말기 보급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최근 들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한 비현금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SUICA, PASMO 등), 라인페이, PayPay 등과 같은 QR코드/바코드를 통한 전자결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라인 페이의 경우 한국의 네이버 페이와 연동되어 결제할 수 있으며, 라인 페이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QR코드 결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일본은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해있으나 한국에 비해 요금이 비싼 편이다.(도쿄 야마노테선 기준 1구간 이용요금 150엔, 23년 3월 이후 10엔 인상)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할 경우 정기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학생의 경우 각 학교에서 발행해주는 '통학증명서'를 통해 일반 정기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정기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정기권 내 구간 내에서 자유롭게(무료)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일본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 Google Map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원하는 목적지 및 출발지를 입력하면 대중교통 등을 통한 경로가 표시되어 어렵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동 거리에 비해 택시비용이 매우 비싸고 주차요금도 비싸 현지 직장인들도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Google Map, Yahoo Map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장 전 휴대폰에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버스

◦ 도영 버스(도쿄도가 운영하는 버스)

버스 앞쪽에 있는 문으로 탄 후 운전석 옆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 170~210엔을 넣는다. 내릴 때는 뒤쪽에 있는 문으로 내린다.

◦ 사영 버스(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버스)

문으로 타고 정류장 번호표를 받는다. 하차 정류장을 알려주는 안내에 따라 버스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 내릴 준비를 한다. 내릴 때 운전석 위쪽에 있는 번호표 번호에 맞는 요금 금액을 확인하고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함에 돈을 투입한다.

최근에는 도영 버스 및 사영 버스를 승차할 때 SUICA나 PASMO 등의 전자식 IC 카드를 이용 가능하며, 탑승구 오른쪽에 장착된 단말기에 터치한 후 내릴 때 운전사 옆에 장착된 단말기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되므로,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본에서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택시

일본 택시는 한국 택시에 비해 요금이 비싼 편으로, 기본요금은 1.096km에 500엔(도쿄 23구 기준)이며, 255m마다 100엔씩 가산된다. 이는 2022년 11월 부터 인상된 금액이다. 도쿄 외의 도시에서는 기본요금이 500~700엔대이다.

최근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택시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여전히 카드 사용이 불가한 택시도 있어 탑승 이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앞유리 왼쪽에 있는 표시등에 빨간색 글자로 “空車”라고 쓰여 있는 택시는 탈 수 있다.

달리는 택시의 경우 손을 들어 세운 다음 운전기사가 왼쪽 뒷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면 승차, 행선지를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내릴 때 요금을 지불한다.

일본에서는 운전기사에게 별도 팁의 제공할 필요가 없다.

기타 교통수단

일본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편리한 방법은 선불 대중교통 IC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다. 일본은 다양한 사철(私鐵)이 운영되고 있어 회사별로 다른 카드를 발급하고 있고, IC카드에 따라 특정 지역과 특정 종류의 대중교통만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카드가 혼용가능하다. SUICA 또는 PASMO가 간토지방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IC카드이다. 다만, IC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보증금(약 500엔)을 내야 하는데, 보증금을 내지 않고 이동을 원한다면 지하철 역에서 원하는 정차역까지의 구간 티켓도 끊을 수 있다. 대도시 주요 역사의 표 자동판매기에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를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므로, 노선도를 보고 목적지까지의 표를 구입하면 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는 다양한 사철

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역명이 같더라도 철도 노선의 운영회사가 다른 경우 개찰구를 빠져나와 다른 노선으로 갈아 타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상으로 나와서 다시 갈아탈 노선의 역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대중교통 에티켓 중에 특히 차내에서 통화를 하지 않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은 배차간격이 긴 경우가 많으므로 운행 일정을 미리 참고하여 계획해야 한다. 대도시 내에서는 교통이 혼잡하여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지만, 교외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렌터카 이용도 고려할 수 있다. 사전에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차량은 토요타 렌터카, 닛산렌터카, 타임즈 렌터카 등의 렌터카 업체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우 핸들 좌측통행이므로 운전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국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止まれ라고 적힌 정지사인에서는 반드시 3초 정도 멈춰다가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렌터카 요금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거리 제한이 없는 24시간 대여 시 평균 요금은 다음과 같다:

경차(1,000~1,300cc): 5,000 ~ 11,100 엔/일
소형차(1,500~1,800cc): 9,000 ~ 13,500 엔/일
중형차(2,000cc): 14,000 ~ 30,000 엔/일
준대형차(3,000cc): 29,500 ~ 31,000 엔/일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자전거 대여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렌탈 자전거 서비스 중에서 도쿄의 경우 NTT도코모 그룹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회사 "도코모 바이크쉐어"가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닛코, 오키나와 등의 관광명소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전거는 전동 자전거로 비탈길이 많은 일본에서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다. 통신

핸드폰

일본 방문 일정이 길지 않은 경우, 해외로밍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 3대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본에서 데이터, 음성, SMS 등이 사용가능한 로밍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설정에 따라 해외에 도착하면 자동 해외로밍이 되므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다만, 로밍을 하는 경우 요금이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선불 SIM 카드를 구입하는 방법이다. 일본 공항 및 가전양판점(빅카메라, 요도바시카메라 등), 그리고 편의점에서 데이터 사용 가능한 선불 SIM 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장기체류자(비자 보유자)의 경우 전화번호가 지정되는 후불 휴대전화 개통이 필수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않은 경우 통장개설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 주요 통신사 : NTT Docomo, au(KDDI), Softbank, Rakuten 및 MVNO
 - 선불SIM카드의 경우 각 공항 및 가전양판점(빅카메라, 요도바시카메라 등) 판매, 후불 SIM카드의 경우 각 통신사 대리점 및 가전양판점 등 계약 체결이 필요
- 추천 SIM 카드
 - LINE MOBILE: 최대 특징은 라인 앱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데이터 통신료가 무료인 점. 일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가 없어도 계약할 수 있어 음성통화 대신 SNS 사용이 많은 외국인에게 추천한다.
 - 라쿠텐 모바일: 이용요금이 가장 저렴한 SIM 카드

또한, e-SIM 대여도 가능하다. 유심 교체 없이 코드만 등록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나,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고 사용 가능한 기종의 제한이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 무료 Wi-Fi

도쿄도 내 주요 관광시설 및 각 공항, 전철 및 버스 등에서는 무료 Wi-Fi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메일주소나 SNS의 계정연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도쿄도 내 Wi-Fi는 Japan Connected-free Wi-Fi, Travel Japan Wi-Fi 등의 무료 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 포켓 Wi-Fi

일본 내 주요 공항에서 포켓 Wi-Fi의 렌탈(유료)이 가능하며, 데이터 이용량 등에 따라 요금제 설정이 가능하다.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 숙박처(호텔 등)까지 배달해주는 업체도 있으며, 공항세 등이 절감되어 요금이 저렴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출국 전 인터넷 사전 예약 후 한국공항에서 대여하거나, 현지 공항에서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일 대여도 가능한 경우가 있음) 주요 업체는 Wifi Rental.com, Wi-Ho! Biz, Fon Rental Wifi 등이 있다.

○ 가정 내 인터넷

장기 거주 의 경우 자택 내 인터넷 회선 개통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개통까지 2주-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주처 계약 이후 사전 계약을 통한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 건물에 따라 회선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맨션 등 집합건물에 입주할 경우에는 설치되어있는 인터넷 프로바이더의 확인이 필요하다.

라. 관광명소

○ 하우스텐보스(Huis Ten Bosch)

도시명	나가사키
주소	長崎佐世保市 ハウステンボス町1-1
운영시간	9~21시 또는 22시 / 홈페이지 캘린더 확인 필요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17세기 네덜란드의 거리를 재현해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테마파크이다. 입장료는 1DAY 패스포트 기준 성인 7,400엔(24년 5월 17일 기준)
비고	전화: +81-0570-064-110 홈페이지: https://www.huistenbosch.co.jp/

○ 나고야 성(Nagoya Castle)

도시명	나고야
주소	愛知県名古屋市 中本丸1-1
운영시간	9시~16시 30분 *건물 내부 입장은 16시까지
휴무일	12월 29일~31일, 1월 1일(4일간) 단, 행사 등으로 변경될 경우가 있다.

명소소개	161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대 기술을 결집해 축조한 성으로 도쿠가와 가문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 성내 니노마루(二の丸)정원을 포함한 주요 유적은 2차 대전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 현재와 같이 복원되면서 벚꽃 등 일본의 경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성인 개인요금 기준 500엔
비고	전화: +81-52-231-1700 홈페이지: https://www.nagoyajo.city.nagoya.jp/

○ 도쿄 디즈니 리조트(Tokyo Disney Resort)

도시명	도쿄
주소	千葉浦安市舞浜1-1
운영시간	9시~21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도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마파크 리조트로 여섯 개의 특징 있는 주제별로 구성된 디즈니랜드, 물을 테마로 만들어진 디즈니씨, 쇼핑 센터, 특급 호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전 세계 테마파크 입장객 수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1데이 패스포트 성인 기준 7,900엔 - 10,900엔(평일, 주말에 따라 가격 상이)
비고	전화: +81-570-00-8632 (디즈니 리조트 인포메이션센터) 홈페이지: https://www.tokyodisneyresort.jp/

○ 도쿄 스카이 트리(Tokyo Sky Tree)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墨田押上1-1-2
운영시간	20시~22시 * 최종입장 21시(날짜에 따라 영업시간이 다르니 홈페이지의 캘린더 참고 필요)
휴무일	휴무일이 정해져있지 않음.
명소소개	2012년 봄에 개장하였으며, 높이 634m로 전파탑으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비고	전화: +81-570-55-0634 홈페이지: http://www.tokyo-skytree.jp/

○ 아사쿠사(Asakusa)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台東草
운영시간	9시~22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옛 도쿄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서 깊은 센소지 인근의 나카미세 거리에는 전통적인 공예품 점과 길거리 음식이 있다. 19세기 중반에 문을 연 하나야시키 놀이 공원에는 탑승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카페가 있으며 강변의 쿠리츠 스미다 공원에서는 축제와 불꽃놀이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비고	홈페이지: https://e-asakusa.jp/kr/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府大阪市此花島2丁目1-33
운영시간	개장: 8시30분~9시 폐장: 19시~22시 ※운영시간이 매일 조금씩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람.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세계 최고의 라이드 어트랙션과 쇼 등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입장료는 8,600엔 정
비고	전화: +81-570-20-0606 홈페이지: https://www.usj.co.jp/

○ 오사카 성(Osaka Castle)

도시명	오사카시
주소	大阪市中央大阪城1-1
운영시간	오전9시 ~ 오후 5시 (천수각) / 입관은 4시 반까지
휴무일	연말연시 휴무(12월 28일부터 1월1일까지)
명소소개	오사카에 있는 성으로 히메지성, 쿠마모토 성과 함께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 오사카의 벚꽃 명소로 유명함
비고	https://www.osakacastle.net/english/

○ 후쿠오카 타워(Fukuoka Tower)

도시명	후쿠오카 시
주소	福岡市早良百道浜2丁目3番26
운영시간	9시 30 분 ~ 22시 (최종 입장 21:30)
휴무일	6월 마지막주 월, 화요일
명소소개	후쿠오카시 모모치하마 해변에 세워진 높이 234미터의 관광타워로, 최상층 전망대에서는 후쿠오카 거리와 하카타만 등의 절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음
비고	https://www.fukuokatower.co.jp/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오카베야(Okabeya)

도시명	교토
전화번호	+81-75-541-7111
주소	京都市東山水寺門前2丁目
가격	2,200~3,300엔
영업시간	11시~15시
휴무일	12/29,30 휴무
소개	교토의 전통있는 두부요리집 중 한 곳. 두부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비고	관광지인 키요미즈데라 바로 앞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 야바톤(Yabaton)

도시명	나고야시
전화번호	(052)252-8810
주소	名古屋市中大須 3-6-18
가격	돈까스 정식 : 약 1,420~1,900엔
영업시간	11:00 ~ 21:00
소개	나고야 명물 미소소스와 함께 나오는 돈가스
비고	오스칸논 역 3분 거리

○ 이치란 신주쿠중앙동구점(ICHIRAN)

도시명	도쿄
전화번호	+81-3-3225-5518
주소	東京都新宿新宿3-34-11 ピースビルB1F・6F
가격	1,000엔 전후
영업시간	9시~익일 오전 6시
휴무일	연중 무휴
비고	돈코츠 라면점으로 도쿄 외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도시, 미국, 대만 등 81개 점포를 전개하고 있다. 위 신주쿠 중앙 동구점은 동일본 최대규모 점포로 좌우에는 칸막이가 있어 음식에 집중, "미식중 카운터"가 특징적이다. 맛은 돈코츠라면에서 보통 나는 강한 냄새가 없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내점하고 있다. URL: https://ko.ichiran.com/index.php

○ 라브 긴자 그릇세점(Rabu)

도시명	도쿄
전화번호	+81-3-3562-5040
주소	東京都中央銀座 3-2-15 ギンザ・グラッセ 10F
가격	흑돼지 샤브샤브 2,500
영업시간	점심: 11~15시 저녁: 17~23시
휴무일	12/31~1/1 정기휴
소개	흑돼지 샤브샤브가게로, 메인 메뉴(샤브샤브 정식) + 뷔페 형식으로 먹을 수 있다.
비고	긴자 그릇세점: https://rabu-glasse.owst.jp/ 긴자 본점: https://ginza-rabu.owst.jp/ (본점은 런치 뷔페 메뉴 없음)

○ 초시마루(Chousimaru)

도시명	도쿄 지역
전화번호	+81-3-5628-3322
주소	東京都江東9-6-9 (카메이도점)
가격	2,000엔 선
영업시간	11시~21
소개	일본 유명 회전초밥 체인점. 일반 저가격대 회전초밥 체인점보다 가격대는 있으나 본격적인 초밥을 맛볼 수 있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회전초밥집이지만 자리에서 직접 신선한 초밥을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로 관동지방에만 있는 체인점이다. 홈페이지: https://www.chousimaru.co.jp/menu/

○ 마츠바(Matsuba)

도시명	시즈오카
전화번호	+81-53-421-3714
주소	岡浜松市東下石田町982-1(東名浜松IC入口)
가격	3,000~4,000엔
영업시간	11시~20시 30분
휴무일	비정기 휴
소개	일본의 우나기(장어) 전문점. 특산물인 우나쥬(장어덮밥)를 먹을 수 있다.

비고	주차장 80대까지 수용 가능함. 자리는 150석임.
----	------------------------------

○ 미즈노(Mizuno)

도시명	오사카
전화번호	+81-6-6212-6360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道頓堀1-4-15
가격	2,000~3,000엔
영업시간	11~22시 * 라스트오더 21시
휴무일	1월 1일 정기 휴일 / 비정기 휴무 있음
소개	오코노미야키의 본고지 오사카의 오코노미야키 전문점. 눈 앞에 철판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
비고	오코노미야키 체인점에서는 만들어주지 않고 직접 만들어야하는 곳도 있다.

○ 미미우(MIMIU)

도시명	오사카시
전화번호	06-6231-5770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平野町4-6-18 御神社西裏
가격	우동 스키 4,070엔 (1인분)
영업시간	11:30~15:00(ラスト오더 14:00) 17:00~21:00(ラスト오더 20:00)
휴무일	연말연시 휴일
소개	우동스키 전문점으로 샴부샤부 형식으로 우동을 즐기는 전문 요리점 1925년 오픈하여 간사이 지방에만 14개의 지점이 있고 도쿄, 나고야 등에도 체인점이 존재함. 해당 가게는 오사카 혼마치 본점임
비고	https://www.mimiu.co.jp/honten/

○ 오야마(Oyama)

도시명	후쿠오카
전화번호	+81-92-409-4286
주소	福岡市博多博多中央街1-1 JR博多シティB1F
가격	2,000~3,000엔
영업시간	11~23시
소개	후쿠오카 지역에서 유명한 모츠나베와 말 사시미를 먹을 수 있다.

비고	JR 하카타역과 연결되어 있다. 福岡以外に、東京都、神奈川県、大阪府、宮崎にも支店あり。
----	--

○ 해물주점 하지메노 잇포(Kaisen Izakaya Hajimeno Itpo)

도시명	후쿠오카시
전화번호	092-471-1850
주소	福岡福岡市博多博多前3-7-15 庄野ビル 1F
가격	점심 : 참깨 고등어회 정식 2,178엔 저녁 : 잇포나베코스 + 노미호다이 5,500엔
영업시간	11:30~13:30 17:00~23:00
소개	후쿠오카 지역에서 유명한 참깨 고등어회(고마사바) 먹을 수 있다.
비고	하카타역에서 도보 5분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레스토랑정보사이트 타베로그, 구루나비 등>

- 한국식당

○ 고궁 삼계탕()

도시명	기타규슈
전화번호	+81-93-512-3356
주소	福岡北九州市小倉北魚町1-4-16
가격	1,000엔 선
영업시간	11시 30분 ~14시 17시 30분~22시
휴무일	월요일 정기 휴
소개	간판메뉴는 삼계탕임.

○ 백제()

도시명	나고야
전화번호	+81-52-731-9886
주소	愛知名古屋市千種 仲田 2-19-16
가격	4,000~5,000엔

영업시간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 ·런치 11:30 -14:00 ·디너 17:00-23:00 (L.O22:30) 토요일 ·런치 11:30 -14:30 ·디너 16:30 - 23:00 (L.O22:30) 일 공휴일 ·런치 11:30 -14:30 ·저녁 16:30 - 22:00 (L.O21:30)
소개	불고기, 냉면 등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술집 겸 밥집이다.
비고	서비스료 210엔

◦ 요프의 왕 돼지 소금구이(Yopunooubutashioyaki)

도시명	도쿄
전화번호	+81-3-3202-3852
주소	東京都新宿大久保 1-16-21
가격	삼겹살 세트 1,780
영업시간	11:00~23:30(LO-22:45)
소개	주로 삼겹살을 포함한 한국요리를 판매. 좌석수는 120석으로 단체객도 이용 가능하다.
비고	카드사용 가능

◦ 하누리 ()

도시명	도쿄
전화번호	+81-3-3200-3955
주소	東京都新宿歌舞伎町1-18-9 WaMall 9F
가격	4,000엔 선
영업시간	[월~목] 11:30~00:00 [금,토] 11:30~05:00
휴무일	주말 휴무
소개	치즈 닭갈비 등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다.
비고	일본 유명 프로그램에 소개된 가게임.

◦ 온돌 본점(Delica Ondoru)

도시명	도쿄
전화번호	+81-3-3209-3307
주소	東京都新宿百人町1-3-20

가격	1,000~3,000엔
영업시간	11시~익일 오전 1시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갈비, 닭갈비, 불고기, 치킨, 찌개,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다.
비고	홈페이지: https://delicaondoru.com/

○ 꼬끼오)

도시명	오사카
전화번호	+81-6-6151-2654
주소	大阪府大阪市北梅田3-1-3 ルクア大阪B2
가격	2,000~4,000엔
영업시간	점심 11:00~16:00 저녁 16:00~23:00
휴무일	월요일 정기 휴무
소개	양념치킨, 치즈 닭갈비 등을 먹을 수 있는 오사카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한국 식당

○ 돈마니(Donmani)

도시명	오사카시
전화번호	06-6311-2622
주소	〒530-0057 大阪府大阪市北會根崎2丁目5 −20 お初天神ビル 西館 2F3F
가격	프리미엄 코스 -삼겹살 치즈 닭갈비 포함 3500엔
영업시간	평일, 일요일 16:00~23:00 토요일 12:00~23:00 *수요일 휴무
휴무일	없음
소개	한국 삼겹살, 닭갈비 등을 즐길 수 있는 한식 요리집
비고	https://www.instagram.com/ton_many/

○ 부산정 하카타 본점(BusanTei Hakata Honten)

도시명	후쿠오카시
전화번호	092-481-0115
주소	17 17 3丁目, 17 博多前 博多 福岡市 福岡 812-0011

가격	1000엔~5000엔
영업시간	오전 11:30 ~ 오후 22:30
휴무일	없음
소개	부대찌개, 김치찌개 등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다.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레스토랑정보사이트 타베로그, 구루나비 등>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산코인 호텔(Sancoinn Grande)

도시명	나고야
주소	古屋市中村名3丁目21番7
전화번호	052-564-1135
홈페이지	https://www.sanco-inn.co.jp/grande-nagoya/
숙박료	8,000엔부터
소개	나고야역에서 도보 12분, 무역관에서 도보 3분 거리 비즈니스 호텔

○ 신주쿠 워싱턴 호텔(Washington Hotel Shinjuku)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新宿西新宿3-2-9
전화번호	+81-3-3343-3111
홈페이지	https://washington-hotels.jp/shinjuku/
숙박료	14,000엔 이
소개	신주쿠역에서 도보 8분, 신주쿠교엔 정원과 메이지 신궁에서 2km 거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 Hotel Vischio 오사카(Hotel Vischio Osaka)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府大阪市北芝田2丁目4番10
전화번호	+81-6-7711-1111
홈페이지	https://www.hotelvischio-osaka.jp/
숙박료	14,000엔 이

소개	오사카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	----------------------------

○ 호텔 로터스(Hotel Lotus)

도시명	오사카시
주소	〒530-0027 大阪府大阪市北堂山町 1 7 −8
전화번호	06-6312-9117
홈페이지	http://hotelkinki.com/
숙박료	12,000엔 이상
소개	오사카 우메다 중심지에 위치한 호텔로 편리한 접근성과 깔끔한 시설을 보유
비고	JR '오사카 역'에서 도보 7분 한큐 '오사카 우메다 역'에서 도보 5분 Osaka Metro 미도스지 선 '우메다 역', 다니마치 선 '히가시우메다 역'에서 도보 10분 Osaka Metro 다니마치 선 '나카자키초 역'에서 도보 4분

○ 호텔 FORZA(Hotel FORZA)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福岡市博多博多中央街4-16
전화번호	+81-92-473-7111
홈페이지	https://www.hotelforza.jp/
숙박료	11,000엔 이상
소개	후쿠오카의 중심 하카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호텔 와사비(HOSTEL WASABI)

도시명	교토
주소	京都府京都市上京新白水丸町456-3
전화번호	+81-75-276-0828
홈페이지	http://guesthousejp.com/kyoto/
숙박료	1,700엔 이상
소개	저렴한 가격으로 교토의 다다미방에서 숙박할 수 있다.

○ 시탄호스텔(CITAN)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中央日本橋大馬町15-2
전화번호	+81-3-6661-7559
홈페이지	https://backpackersjapan.co.jp/citan/
숙박료	3,000엔 이상
소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쿄 중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방을 공유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한 개인실도 있다. 2017년 오픈.

○ 언플랜 카구라자카(Unplan Kagurazaka)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新宿天神町23-1
전화번호	+81-3-6384-1297
홈페이지	https://unplan.jp/kagurazaka
숙박료	2,200엔 이상
소개	카구라자카역에서 도보 3분, 관광에 편리한 도쿄 중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일본 잡화점, 일식·양식 등 레스토랑이 많다. 도미토리룸, 프라이빗 패밀리룸, 프라이빗 더블룸 등 3 종류의 객실이 있다.

○ 후쿠오카 하나 호스텔(Fukuoka Hana Hostel)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福岡市博多上川端町4-213
전화번호	+81-92-282-5353
홈페이지	https://fukuoka.hanahostel.com/index-jp.php
숙박료	2,800엔 이상
소개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와 달리 조금 더 돈을 내면 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방에 묵을 수 있다. 인기가 높은 게스트하우스로 예약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경보 단계: 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 지역에 대한 위험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다.

* 1단계 남색 경보(여행 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 일본 전역 : 1단계 남색 경보(여행 유의)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2024년 5월 현재 지속 시행중)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구급차를 불러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다음은 2차 피해와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차고 차량을 이동한다. 경찰 신고는 필수사항이며 가해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으나 피해자도 신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차량 번호, 근무처, 보험회사 등을 확인하여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사고상황을 기록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현장 처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된 경우 우선은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여권분실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그 후 사진을 준비하여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현지에서 발급하는 시간이 없을 경우 대사관의 여행증명서를 통해 귀국하는 것은 가능하다.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2장, 귀국 항공편 e-ticket(여행증명서 발급의 경우)
- 수수료
 - 여권의 경우, 5,500엔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여행증명서의 경우, 110엔

3) 응급 전화번호

- 소방서: 119
- 경찰서: 110
- NTT의 재해용 전연 다이얼 서비스: 171
- 주일 한국대사관: +81-3-3452-7611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주택 임차 개요

○ 사전 검색

-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물건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도맡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해당 지역의 임대 물건을 물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온라인매물과 실제 매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장기출장 등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부분 맨션(한국의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임차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주택 임차 시 집주인이 임차인에 대한 사전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편이므로 적합한 서류나 일본인 보증인이 없는 경우 임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협조적이고 꼼꼼한 부동산을 구하는 것이 좋다.

○ 일본만의 부동산 문화

- 부동산 업자에게 희망 임대료, 면적, 교통수단 등을 알려주면 구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맨션을 소개해 준다. 집을 빌릴 때는 집세 이외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시키킨(敷金, 보증금), 레이킨(礼金, 사례금),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료 등이 필요하며 이것을 모두 계산하면 집세의 4~6개월분이 된다. 또한, 계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필요한데, 외국인의 경우 필수 사항으로 보증 회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용은 집세의 0.5개월분이 된다.

- 이 중 레이킨의 경우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개념인데, 집주인에게 주는 사례금을 의미한다. 통상 야칭의 1-2개월분이며 계약 해지 시 반환되지 않는다. 도쿄, 후쿠오카 등지에서는 레이킹 제도가 있으며, 오사카 등지에서는 레이킹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

- 다만, UR 임대주택(UR 도시기구의 임대주택)의 경우엔 시키킨 이외의 레이킨, 갱신료, 보증인이 불필요하다. UR임대주택은 원룸부터 가족용의 주거 공간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므로 선택의 폭도 넓으며, 또한 신축 이외의 주택 대부분에 관해서는 무첨첨 선착순으로 입주 가능하다.

○ 부동산 계약 예시(야칭(월세) 10만 엔, 입주일 4월 15일, 보증 회사 미사용으로 가정)

- 야칭(월세) 선금: 4월분 50,000엔 + 5월분 100,000엔 총 150,000엔

- 레이킨: 월세의 2개월 치에 해당하므로 200,000엔

- 시키킨: 월세의 2개월 치에 해당하므로 200,000엔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월세의 1개월 치 100,000엔

= 총 소요 금액: 650,000엔

○ 방문 실사

- 부동산의 조건에 따라 레이킨과 시키킨 3개월로 높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 협의하면 대부분 2개월분 이하로 변경 가능하다. 'CHINTAI' 등의 부동산 정보지 혹은 인터넷상의 임대전문 웹사이트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물건과 시세 등을 파악한 후에 부동산업자와 접촉, 희망 물건과 추천 물건에 대해 폭넓게 한 번에 방문실사(見, 나이켄)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 역과의 거리

- 부동산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거리 80m를 도보 1분으로 환산하게 돼 있는데, 횡단보도에서의 신호대기 시간 등은 감안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2~5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보 15~20분 거리의 물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도보 15분으로 표기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동일 수준의 물건이어도 역에서의 거리가 5분 정도 차이 난다면, 월 임대료 역시 5,000-15,000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주택 임차 시 주의사항

○ 입지여건

- 도로나 철로 인근의 경우, 의외로 소음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특히 야간) 유의해야 하며, 다이에이, 이토요카도, 자스코, 세이유 등 대형 슈퍼가 인근에 있는 경우가 물가가 저렴하다. 부근에 유흥가가 있을 경우 소란스럽고 사고도 많다. 건축 연수가 오래된 경우, 임대료는 싸지만 입주 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차고 증명

-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차고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업자에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 주차장도 별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도쿄는 월 30,000~50,000엔 전후, 기타 지역은 월 15,000~35,000엔 정도이다. 자동차 등록 시 차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고 증명서를 차고지(주차장)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주차장에 대한 복비(통상 1개월 치)도 지불해야 한다.

○ 협상 내용

- 임대 조건 중 보증금은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에어컨이 방마다 부착돼 있지 않으면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월 5,000엔 정도 임차료를 올려주고 1대를 추가로 달아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협상을 해야 한다. 거주 기간을 감안해서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어느 쪽이 이익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에어컨이 설치돼 있을 경우는 에어컨이 집의 설비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설비일 경우 고장 시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다.

○ 외국인 계약 가능 여부

- 외국인(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주인이 종종 있으므로, 미리 부동산업자에게 그런 집은 보여주지 않도록 지시해 두고, 회사 계약(법인 계약이라고도 하며,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이 되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통보해 주면 집 구하기가 수월하다. 일본인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실 현지 직원의 양해를 얻어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대비도 필요하다.

○ 차후 문제 대비

- 통상 부동산업자만 만나고 집주인과 대면할 기회가 없으므로 집을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업자에게 연락해 두어야 한다. 퇴거 시 원상 복구비를 물어야 하므로, 못 구멍, 벽의 흠집, 창문의 알루미늄 창틀의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일본의 임대 주택의 경우, 위치, 입지와 함께 조망, 전경 등이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체로 고층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 기타

- 일반적으로 주택 계약과는 별도로 전기, 가스, 수도의 경우 사용 개시 및 정지를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전화

가까운 NTT 전화국 등에 신청하면 된다. 일본 전국의 기본 통신망은 한국의 KT에 해당하는 NTT가 관리하고 있다. 단,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으로 나뉘어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맞춰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같은 플랜이라도 요금은 NTT 동일본 쪽이 약간 저렴). 최근에는 빅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 코지마, 노지마, 야마다 전기 등 일본의 대형 가전제품 양판점에서 전화기 코너 옆에 유선회선 가입 코너가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접 가서 문의하는 것도 좋다. 단, 계약을 위해서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통장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전화 신청 시에 인터넷 회선을 함께 신청하면 기본요금이 저렴해지는 요금제가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신청방법: NTT(116)에 연락해서 가입(거주지에 따라 전화 회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전압/플러그

전압은 100V, 주파수는 50/60Hz를 겸용하며 플러그는 A형 2구 콘센트로, 한국의 220V, 60Hz, C형 2구 콘센트로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제품의 일본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100V 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과 다른 50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역(주로 동일본)에서는 한국제품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제품은 50Hz/60Hz 겸용 제품이 많으나 사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식수

기린, 산토리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한 편으로 100엔 전후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치할 경우나 요리를 할 경우에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한편 국토교통성의 자료"2018년도 일본 수자원 현상에 대해"에 의하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10개국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 일본의 수돗물은 고도의 정수시설을 바탕으로 수질이 높아 "음용불가"라는 표기가 없는 한 마셔도 무방하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신차 구입 시, 흥정이 가능하므로 여러 딜러를 돌아보고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메이커 직계의 판매망이 판매 회사별로 나뉘어 있어 일부 메이커의 경우, 원하는 차종이 있는 전문 매장에 가야 구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요타의 전문매장은 도요타, 카로라, 도요핏, 넷츠, 렉서스(5종류) 등이다. 인기 차종의 경우 최근 반도체 수급 등의 문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장기간 대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근 구넷, 쿠루메라비, 야후재팬 중고차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알아본 뒤, 근처의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해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과는 달리 온라인과의 연동이 빠르지 않아 실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메이커 직계 중고차 전문 매장이 있으며, 중고차임에도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이 많으므로 구입 시 문의하는 것이 좋다.

1)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거주하는 시구정촌(市町村)에서 발급)
- 인감 및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 급여소득의원천징수표(대출이 필요할 경우)
- 보증인(대출을 받아 첫 구입 시)
- 차고증명서(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차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신청서
-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 보관장소 소재지, 배치도
- 신분증
- 운전면허증

2) 각종 세금

- 차량 가격 이외에도 자동차 취득세와 소비세가 부과
 - 자동차 취득세는 신차-중고차를 불문하고 구입했을 때의 취득 가격에 과세되는 것으로, 자가용은 3%, 영업 차량과 경자동차는 2%가 세액이 된다. 또한 취득 가격 50만 엔 이하는 면세이다. 저공해 차 등에 대해서는 특례조치가 존재하며, 소비세가 10%로 상승하면 자동차 취득세는 폐지되고 환경성능비율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 자동차 종량세와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차 종량세와 자동차세 (경차는 경자동차 세)가 있다. 자동차 종량세는 자동차 무게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으로, 세액은 0.5톤당 연간(경차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납세자는 차량 검사 시에 유효 기간 분을 선납한다. 자동차세(경차는 경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고 중간에 폐차한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며,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기간만큼 분이 반환된다. 그러나 경차 세금은 월할 제도는 없다.

- 차고 증명 및 차량 주차비

- 차를 세워둘 곳이 있다는 차고 증명이 없으면 일본에서는 차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준비하거나 차를 구매할 때 딜러에게 대행을 맡긴다.
- 일본은 교통 규칙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차량 주차비 월 30,000-50,000엔이 소요된다.

차량가격

한국에서도 익숙한 일본 자동차 가격은 일반적인 모델로 봤을 때 250~500만엔 정도이다.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 닛산, 스즈키, 혼다의 현지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도요타: <https://toyota.jp>
- 닛산: <http://www.nissan.co.jp/>
- 스즈키: <http://www.suzuki.co.jp/>
- 혼다: https://www.honda.co.jp/auto/?from=navi_header

운전면허 취득

일본의 교통법은 한국과 달라 철길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정차할 것,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유턴 가능, 청색 신호 시 직진뿐만 아니라 좌·우회전도 가능 등의 차이점이 있다. 운전석도 한국과 반대이다.

1) 면허 취득 이외의 방법

- 국제면허증

- 한국인의 경우 국제면허증으로 최대 1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일본 면허를 따거나 전환해야 한다.

2) 면허 취득

- 외국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한국 운전면허증은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수속은 거주지 근처의 운전면허 센터 및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다.
-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시에는 외국 면허증을 취득한 후 그 나라에 통산해 3개월 이상 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여권 등 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또한 외국 면허증이 유효기간 이내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신청서, 병력, 사진, 주민표 혹은 여권,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혹은 재류카드, 외국 면허증, 면허증 일본어 번역본, 수수료 등이 필요함.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1) 일본 주요 은행

- 미쓰비시도쿄UFJ은행(三菱東京UFJ): 일본 최대 규모 은행
- 유초은행(ゆうちょ): 한국의 우체국은행과 비슷하다. 우정민영화로 인해 2006년 우체국과 분리되어 유초은행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 일본 내 3위 은행으로 일본 재벌기업인 미쓰이그룹(사쿠라은행) 과 스미토모 그룹(NEC의 모회사)의 스미토모 은행이 합병
- 미즈호은행(みずほ): 일본 최초의 은행인 제1 국립은행이 전신으로, 제일권업은행(제일국립은행), 후지은행, 일본흥업은행의 3개 은행이 합병되어 2002년 발족

2) 한국계 은행

한국계 은행으로는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한국 주요 은행의 지점이 존재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SBJ은행이라는 일본 은행법에 따라 현지 은행업을 전개하고 있다.

3) 기타 참고사항 : 라쿠텐은행, 세븐은행 등 기존 금융업 이외 기업의 은행업 진출, 무점포 온라인 운영 등을 시행 중

계좌 개설방법

1) 일본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주의사항

- 체재 기간 : 단기체제(90일 이내)의 경우 일본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장기체재비자(90일 이상)를 소지하고 있어도 실제 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주소 : 사는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이유를 자세하게 묻거나 개설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 근처 은행 또는 직장 근처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한다.
- 기타 :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미리 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필수 서류를 안내해주므로 해당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필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더라도 계좌 개설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2) 준비물

- 본인확인서류 : 운전면허증, 재류카드 등 본인의 얼굴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
 - * 은행에 따라 사원증, 학생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및 준비 필요
 - ** 재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인감(도장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인 사인으로 대체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도 가능)

3) 추천은행

유초은행은 외국인이 계좌를 만들기 쉬운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개설이 가능하나 입출금 및 저금만 가능하고 송금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단,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송금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나고야 국제 중고등학교 (名古屋際中高等学校)

도시명	나고야
커리큘럼	중고 연계 코스와 국제교양학과 3학년 선택과목으로 모의유엔 활동을 하는 등 특수교육으로 국제인재를 육성한다.
학비	2024년 기준 ○ 입학금 220,000엔 ○ 수업료 287,400엔/기 * 전기,후기 분할 납입 ○ 입학금 제외 수업료 포함 기타 제반비용 합계 전기 304,750엔, 후기 294,150엔
홈페이지	http://www.nihs.ed.jp/

○ 나고야 인터내셔널 스쿨(NIS)

도시명	나고야
커리큘럼	유치부, 초, 중, 고등부로 구성. 고등학교 졸업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취득 가능
학비	ELC (Preschool &Kindergarten) ¥1,960,000 Elementary School (Grades 1-5) ¥2,445,000 Secondary School (Grades 6-10) ¥2,840,000 Secondary School (Grades 11-12) ¥2,910,000
홈페이지	https://www.nis.ac.jp

○ 도쿄도립 국제 고등학교 (東京都立際高等学校)

도시명	도쿄
커리큘럼	일반 국제코스과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코스로 구분. 일반과목과 더불어 국제이해에 관한 수업을 진행한다.
학비	수업료 118,800엔/년 (취학지원금제도 인정자는 면제) 학년별 약 10만엔 정도의 학비 발생
홈페이지	http://www.kokusai-h.metro.tokyo.jp/index.html

○ St.Mary'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도쿄
커리큘럼	남학교로, 유치원 및 초, 중 고등 과정을 보유, 교육언어는 영어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취득 가능
학비	2024년 기준 수업료 초등학교2,540,000엔/연 중학교2,630,000엔/연 고등학교2,680,000엔/연
홈페이지	https://www.smis.ac.jp/
비고	가톨릭계 학교

○ 센리 오사카 인터내셔널스쿨 (SIS)

도시명	오사카
커리큘럼	중등부와 고등부로 구성,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과정 도입 학교
학비	학비(수업료 및 기타 교육비) 1,240,000엔/연 입학금 300,000엔
홈페이지	https://www.kwansei.ac.jp/sis/sis_016613.html

○ 후쿠오카 인터내셔널스쿨 (FIS)

도시명	후쿠오카
커리큘럼	초, 중, 고등부로 구성.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하며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취득 가능
학비	유아원(3세 및 4세) 1,501,000엔/연 유치원 - 5학년 1,529,000엔/연 6~8학년 1,652,000엔/연 9-10학년 1,775,000엔/연 11~12학년 1,848,000엔/연
홈페이지	https://www.fis.ed.jp/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아이치현립 아사히가오카고등학교 (愛知立旭丘高等学校)

도시명	나고야
-----	-----

커리큘럼	보통과와 미술과가 있음.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요소 도입 등 문부과학성 슈퍼 글로벌 하이스쿨(SGH)로 지정
학비	입학금 5,650엔 수업료 118,800엔(연간)
홈페이지	https://aichi-asahigaoka.ed.jp/

○ 동경한국학교 (東京韓校)

도시명	도쿄
커리큘럼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구성.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
학비	중등부 1학년 기준으로 보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쳐 266,900엔 정도
홈페이지	http://www.tokos.ed.jp/smain.html
비고	한인학교

○ 사립 후타바중고등학교 (私立雙葉中高等学校)

도시명	도쿄
커리큘럼	일본인 현지학교이지만 입시를 봐야 입학이 가능한 사립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계 교육으로 학년에 구속받지 않는 수업과 고등학교 입시를 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다.
학비	중학교 1학년 기준 초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1,012,800엔(2024년도)
홈페이지	https://www.futabagakuen-jh.ed.jp/
비고	카톨릭학교, 여중여고

○ 금강학원 (金剛園)

도시명	오사카
커리큘럼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구성. 동경한국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
학비	○ 연간 수업료 (2023.5. 확인) - 초등부: 468,000엔 (학생 전원에게 수업료 지원 실시, 실질 연간 부담액은 240,000엔) - 중등부: 540,000엔 (학생 전원에게 수업료 지원 실시, 실질 연간 부담액은 285,000엔) - 고등부: 483,360엔
홈페이지	http://www.kongogakuen.ed.jp/

비고	한인학교
----	------

○ 후쿠오카현립 후쿠오카고등학교 (福岡立福岡高等学校)

도시명	후쿠오카
커리큘럼	후쿠오카 지역 명문 고등학교.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따른다. 특색있는 교육으로는 캠프 브릿지 대학과의 교류 등이 있다.
학비	수업료 9,000엔 등
홈페이지	http://fukuoka.fku.ed.jp/intro/pub/list.aspx?c_id=87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 나고야시립대학병원 (名古屋市立大病院)

도시명	나고야
주소	名古屋市瑞瑞町川澄1番地
전화번호	+81-52-851-5511
진료과목	종합병원

○ 게이트타워 스완치과 (ゲートタワースワン科)

도시명	나고야
주소	名古屋市中村名1-1-3 JRゲートタワー 26F
전화번호	+81-52-562-1700
진료과목	치과

○ 우에노 내과 클리닉 (うへの科クリニック)

도시명	나고야
주소	名古屋市熱田八番2丁目2-17
전화번호	+81-52-659-1501

진료과목	내과
------	----

○ JR 도쿄 종합 병원 (JR東京総合病院)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谷代木2-1-3
전화번호	+81-3-3320-2210
진료과목	종합병원

○ 김치과 의원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新宿歌舞伎町2-41-8 植木ビル201
전화번호	+81-3-3207-8461
진료과목	치과
비고	한국어 대응 가능

○ 치요다구 휴일 응급 진단소 (千代田休日急診療所)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千代田九段北1丁目2-14 千代田保健所"
전화번호	+81-3-5211-8202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비고	휴일 영업

○ 에바라 병원 (荏原病院)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大田東雪谷4-5-10
전화번호	+81-3-5734-8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도쿄도보건의료공사 한국어 대응 가능

○ 오사카 시립 종합 의료센터 (大阪市立合療センター)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市都島都島本通2-13-22
전화번호	+81-6-6929-1221
진료과목	종합병원

○ 아이치과 나가호리바시원 (あい科 長堀橋院)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南船場 1 - 10 - 12 ラインビルド 南船場
전화번호	+81-6-6267-0102
진료과목	치과
비고	22시까지 진료

○ 고토 내과 클리닉 (後藤科クリニック)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谷町1-3-5 アンフィニ天橋2F
전화번호	+81-6-6946-8778
진료과목	내과

○ 오사카 중앙 병원

도시명	오사카시
주소	〒530-0001 大阪府大阪市北梅田 3 丁目 3 −30
전화번호	06-4795-550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osaka-centralhp.jp/

○ 규슈대학병원 (九州大病院)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市東馬出3-1-1

전화번호	+81-92-641-1151
진료과목	종합병원

○ 하타노 치과의원 (はたの科院)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福岡市博多比町5-2 野原ビル1F
전화번호	+81-92-481-2418
진료과목	치과

○ 하카타 히노키 클리닉 (博多ひのきクリニック)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市博多博多南1丁目8-34 博多FRビル7階
전화번호	+81-92-477-7216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건강검진
비고	한국어, 중국어 대응 가능

○ 규슈종합진단클리닉 (九州合診クリニック)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市博多博多前3-25-21 博多前ビジネスセンター1F
전화번호	+81-92-482-1600
진료과목	내과

○ 유 멘탈클리닉 (ゆうメンタルクリニック)

도시명	후쿠오카현 이토시마 시
주소	島市前原中央2-5-18ビル2階
전화번호	092-332-9524
진료과목	심장내과 정신과
비고	한국어 진료 및 심리상담 대응 가능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나고야 사카에 미츠크시 백화점 (MITSUKOSHI)

도시명	나고야
주소	名古屋市中3-5-1
홈페이지	https://mitsukoshi.mistore.jp/store/nagoya/index.html
비고	도쿄 니혼바시에 본점을 두는 미츠크시 백화점의 나고야 분점

○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渋谷2-24-12
홈페이지	https://www.shibuya-scramble-square.com/
비고	도쿄 관광명소 시부야에 신규 건립된 쇼핑몰로, 쇼핑, 레스토랑과 함께 옥상 전망시설을 통해 도쿄 전경을 관람 가능하다.

○ 도쿄 소라마치 (Tokyo soramachi)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墨田押上一丁目1番2
홈페이지	http://www.tokyo-soramachi.jp/
비고	도쿄 스카이트리 부근에 위치한 쇼핑몰로 관광과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다.

○ RAYARD Miyashita Park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谷神宮前6-20-10
홈페이지	https://mitsui-shopping-park.com/urban/miyashita/
비고	시부야 옥상공원으로 유명한 쇼핑몰. 럭셔리 브랜드, 스트리트 브랜드, 음식점, 카페 등이 많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 오사카 타카시마야 (大阪タカシマヤ)

도시명	오사카
-----	-----

주소	大阪市中央難波5丁目1番5
홈페이지	https://www.takashimaya.co.jp/osaka/
비고	오사카 난바지역의 랜드마크 겸 대규모 쇼핑몰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 아베노 하루카스 킨테쓰 백화점

도시명	오사카시
주소	大阪市阿倍野阿倍野筋1-1-43
홈페이지	https://www.abenoharukas-300.jp/index.html
비고	일본 최대의 빌딩, 전망대, 미술관 등 복합 관광 단지임

○ 채널시티 하카타 (キャナルシティ博多)

도시명	하카타
주소	福岡福岡市博多住吉1-2
홈페이지	https://canalcity.co.jp/
비고	후쿠오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쇼핑몰. 중앙광장에서는 분수 쇼를 볼 수 있다.

<자료원 : 각 시설 홈페이지>

- 식품점

○ 세이쥬 이시이 (成城石井)

도시명	나고야지점
주소	名古屋市 中村名1-1-4 名古屋うまいもん通り (나고야 지점)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및 수입식품
비고	전국구 슈퍼마켓. 다소 가격대가 높은 수입식품도 판매.

○ 이토 요카도 (Ito Yokado)

도시명	오사카지점
주소	大阪府大阪市阿倍野阿倍野筋1丁目6-1 (아베노 지점)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비고	세븐일레븐 계열사. 본사는 도쿄.
----	--------------------

○ 이온(AEON)

도시명	치바 마쿠하리신도심점
주소	千葉千葉市美浜豊砂1-1他(마쿠하리신도심점, 도쿄 지역 최대 규모)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및 생활용품
비고	일본 국내 175개 점포가 있음.

○ 마루쇼쿠(マルショク)

도시명	후쿠오카지점
주소	福岡市博多博多南2-8-16(하카타점)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비고	서일본 지역 슈퍼마켓

<자료원 : 각 시설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 나고야 골프 클럽 (名古屋ゴルフ部)

도시명	나고야
주소	愛知愛知郡東町大字和合ドンドロ35
홈페이지	http://nagoyagolfclub-wago.com/
소개	나고야 인근에 소재한 골프장

○ 나고야 스포츠 센터 (名古屋スポーツセンター)

도시명	나고야
주소	名古屋市中門前町1-60
홈페이지	http://nsc-osuskate.jp/
소개	나고야에 소재한 스케이트장
비고	아사다 마오 선수 등 일본의 유명 피겨 선수들의 연습장

○ 도쿄 다츠미 국제 수영장 (東京辰巳際水泳場)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江東辰巳2丁目8-10
홈페이지	https://www.tef.or.jp/ttisc/
소개	도쿄에 소재한 수영장
비고	국제 경기가 열리는 유명한 수영장

○ 도쿄 국제 골프 클럽 (東京際ゴルフ部)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町田市下小山田町押沼1668番地1
홈페이지	http://www.kokusai-net.co.jp/tkgc/
소개	도쿄에 소재한 골프장

○ 메이지스포츠프라자 중앙옥내풀(明治スポーツプラザ中央屋プール)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島之2丁目7-8
홈페이지	https://meijisp.jp/chuo-pool/
소개	오사카에 소재한 수영장

○ 코가 골프 클럽 (Koga Golf Club)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古賀市鹿部1310-1
홈페이지	http://www.kogagc.co.jp/
소개	후쿠오카에 소재한 골프장

○ 스포츠 클럽 NAS 하카타 (スポーツクラブNAS博多)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市博多東那珂1丁目14-46 フォレオ博多 (クイズモール博多) 3F

홈페이지	https://www.nas-club.co.jp/hakata/
소개	후쿠오카에 소재한 피트니스센터

<자료원 : 각 시설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년 휴일	2024-01-01	2024-01-01
대체휴일(신년)	2024-01-02	2024-01-02
대체휴일(신년)	2024-01-03	2024-01-03
성년의 날	2024-01-08	2024-01-08
대체휴일(건국기념의 날)	2024-02-12	2024-02-12
천황탄생일	2024-02-23	2024-02-23
춘분	2024-03-20	2024-03-20
쇼와의날	2024-04-29	2024-04-29
헌법기념일	2024-05-03	2024-05-03
녹색의날	2024-05-04	2024-05-04
어린이 날	2024-05-05	2024-05-05
대체휴일(어린이날)	2024-05-06	2024-05-06
바다의날	2024-07-15	2024-07-15
대체휴일(산의날)	2024-08-12	2024-08-12
경로의날	2024-09-16	2024-09-16
대체휴일(추분의날)	2024-09-23	2024-09-23
체육의날	2024-10-14	2024-10-14
대체휴일(문화의날)	2024-11-04	2024-11-04
근로감사의날	2024-11-23	2024-11-23
연말연시 연휴	2024-12-29	2024-12-29
연말공휴일	2024-12-30	2024-12-30
영사관 휴무일	2024-12-31	2024-12-31

10. KOTRA 무역관 안내

○ 도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東京都千代田丸の3-4-1 新際ビル 9F(〒100-0005)
- 전화번호: +81-3-3214-6951 (FAX: +81-3-3214-6950)
- 홈페이지: <http://kotra.or.jp/>

공항-무역관 이동

JR 유라쿠초역 국제포럼 출구/ 도에이 미타센 히비야역 B3 출구/ 도쿄 메트로 유라쿠초선 유라쿠초역 D3 출구

나리타 공항에서 오는 법

1) 리무진버스 이용 도쿄역 하차

- 도쿄역까지의 약 75분 소요, Airport Limousine Bus : 1인 3,100엔(편도), 10~20분 간격, Airport Bus TYO-NRT : 1인 1,300엔(편도), 20분 간격
- 공항 입국장을 나오면, 정면에 공항 리무진 버스 매표소
- 동경역에서 하차하신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무역관 이동 가능, 택시비는 약 660~1,000엔 소요

2) JR나리타익스프레스(JR NARITA EXPRESS) 이용 경우

(http://www.jreast.co.jp/kr/nex/index.html?src=t_info)

- 약 50분 소요, 1인 약 3,070엔(편도), 매시간별 2~3대 운행
- 입국장을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가면 JR역으로 가는 안내 표지 확인
- 지하 2층 전철역에서 JR 이동, 창구에서 유락초(有楽町驛)역까지 승차권 구매
- 도쿄역 하차, 반드시 야마노테선으로 환승
- 야마노테선(山手線 Yamanote-Line 연두색 라인)의 시나가와(品川 Shinagawa) 방면 전철을 탑승, 한 정거장인 유락초역(有楽町驛)에서 하차
- 국제포럼출구 (진행방향 맨 뒤쪽 출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가전판매점 빅카메라(BIC CAMERA)를 따라 직진하면 첫 교차로의 사선방향에 보이는 미쯔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은행) 입주 건물이 신국제빌딩

하네다 공항에서 오는 법

1) 모노레일 이용 경우

- 약 40분 소요, 670엔(편도)
- 국제선 도착로비에서 모노레일 승강장이 있는 승차장으로 이동(동일층). 하마마츠초 행을 타고 종점 하마마츠초역에서 하차
- 하마마츠초역에서 JR 야마노테선(山手線) 도쿄 방면 탑승 후 유라쿠초역 하차

2) 케이큐(京急線) 전철 이용

- 약 40분 소요, 500엔(편도), 5~10분 간격 운행
- 하네다공항 국제선 도착로비에서 케이큐 전철 시나가와 방면 개찰구 이용, 시나가와행 열차 탑승, 시나가와역 하차
- 시나가와역에서 JR 야마노테선(山手線) 도쿄 방면 탑승 후 유라쿠초역 하차

3) 택시

- 약 30분 소요(도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000엔 정도
- 하네다공항 국제선 도착로비에서 탑승 후 국제포럼 정문 현관 앞에서 하차

○ 도쿄 IT 지원센터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3-2-5 霞がビル5F(〒100-6005)
- 전화번호: +81-3-5501-2847 (FAX: +81-3-5501-2850)
- 홈페이지: <http://www.kotrait.or.jp/>

공항-무역관 이동

○ 나리타 공항에서 IT센터 오시는 방법

- 1) 리무진버스(Airport Limousine Bus) : Andaz Tokyo 하차, 도보 10분
- Andaz Tokyo 정류장까지 약 80~145분 소요, 10~20분 간격 운행, 1인 3,600엔

- 2) 케이세이(京成) 전철 : 약 90~120분 소요, 1인 약 1,500엔
- 케이세이선 나리타공항역(成田空港)에서 탑승 후 니혼바시역(日本橋) 하차
- 긴자선(노란색)으로 환승 후 토라노몬역(虎ノ門) 하차, 11 출구에서 도보 3분

○ 하네다 공항에서 IT센터 오시는 방법

- 1) 리무진버스(Airport Limousine Bus) : Andaz Tokyo 하차, 도보 10분
- Andaz Tokyo 역까지 약 40~55분 소요, 2시간 간격 운행, 1인 1,150엔

- 2) 케이큐(京急線) 전철 : 약 40분 소요, 편도 660엔
- 하네다공항 국제선 도착로비에서 케이큐 전철 시나가와(나리타 공항) 방면 개찰구 이용, 신바시역(新橋) 하차
- 신바시역(新橋)에서 긴자선(노란색) 시부야(谷)방면 탑승 후 토라노몬역(虎ノ門)하차, 1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 도쿄 수출 인큐베이터(BI)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東京都港新橋6-14-3 御成門PREX 8階(〒105-0004)
- 전화번호: +81-3-5425-7047 (FAX: +81-3-3432-2075)
- 홈페이지: http://www.kotra.or.jp/bi/BI_Center_top.html

공항-무역관 이동

○ 나리타 공항에서 BI 오시는 방법

- 1) 케이세이(京成) 스카이라이너 : 게이세이우에노역(京成上野) 하차 (도쿄 메트로로 환승 필요)
- 게이세이우에노역까지 약 45분 소요, 1인 2,580엔 + 전철 요금 210엔

- 도쿄 메트로 긴자선으로 환승 후 도라노몬역(虎ノ門) 하차, 도보 약 6분

○ 하네다 공항에서 BI 오시는 방법

1) 케이큐(京急線) 전철 : 약 41분 소요, 편도 660엔

- 하네다공항 국제선 도착로비에서 케이큐 전철 시나가와(나리타 공항) 방면 개찰구 이용, 히가시긴자역(東銀座) 하차

- 히가시긴자역(東銀座)에서 히비야선 나카메구로(中目)방면 탑승 후 도라노몬힐스역(虎ノ門ヒルズ) 하차

○ 오사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安土町2-3-13 大阪際ビルディング20階(〒541-0052)

○ 전화번호: +81-6-6262-3831 (FAX: +81-6-6262-4607)

○ 홈페이지: <http://kotra.or.jp/>

공항-무역관 이동

미도스지선(御堂筋線) 혼마치역(本町) 3번 출구 · 주오선(中央線) 사카이스지혼마치역(堺筋本町) 17번 출구

○ 전철 이용 시 (약 1시간 소요, 편도 1,160엔)

- (공항 → 난바) 간사이국제공항 2층에서 전철 난카이선(南海線) RAPIT호를 타고 종점인 난바역(難波) 하차

- (난바 → 혼마치) 난바역(難波)에서 지하철 미도스지선(御堂筋) 센리추오(千里中央)방면 열차를 타고 혼마치역(本町) 하차

- (혼마치 → 무역관) 3번 출구로 나온 후 좌측으로 직진*하여 흰색 건물 오사카 국제빌딩의 20층, 오사카무역관 도착

* 대한항공 건물 → MetLife 건물 → 1층 Family Mart가 있는 빌딩으로 도착

○ 택시 이용 시 (약 40~50분 소요, 요금 14,000~16,000 엔)

-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로비 앞에서 탑승 후 혼마치 국제빌딩 앞에서 하차

○ 공항 리무진 이용 시 (제1터미널 기준, 환승 필요, 1시간 이상 소요)

- 오사카역행 5번 탑승장(약 50분, 편도 1,800엔) - 신한큐호텔 하차 - 택시 이용 또는 미도스지선 우메다역에서 혼마치역 이동

- 난바행 11번 탑승장(약 50분, 편도 1,300엔) - 난바 OCAT 하차 - 택시 이용 또는 미도스지선 난바역에서 혼마치역 이동

* 리무진 버스 시간표 : <https://www.kate.co.jp/timetable/index>

○ 후쿠오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福岡福岡市博多博多前3-2-1 日本生命博多前ビル11F(〒812-0011)

○ 전화번호: +81-92-473-2005 (FAX: +81-92-473-2007)

○ 홈페이지: <http://kotra.or.jp/>

공항-무역관 이동

JR 하카타역 하카타 출구

※ 후쿠오카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자동차로 15분 정도 소요되어 공항-도심 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무역관은 하카타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이외에 버스, 지하철을 이용해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 택시

- 이용방법: 국제선 청사 앞 택시 승차장에서 탑승
- 소요시간: 약 15분
- 요금: 약 1,500엔(2024. 5. 기준)

○ 버스

- 이용방법: 국제선 청사 앞 4번 정류장에서 하카타역행(博多行き) 버스 탑승 → 하카타 버스터미널 (博多バスターミナル) 하차 → 도보 7분
- 소요시간: 약 25분
- 요금: 310엔(2024. 5. 기준)

○ 지하철

- 이용방법: 국제선 청사 앞 1번 정류장에서 공항 연락 버스 탑승(무료) → 국내선 터미널 하차 → 지하철 후쿠오카공항역(福岡空港) 이동 → 쿠코센(空港線) 탑승(중점이므로 행선지 무관) → 하카타역(博多) 하차 (2 정거장) → 하카타 출구(博多口) 도보 5분
- 소요시간: 약 30분
- 요금: 260엔 (2024. 5. 기준)
- 소요시간 약 30분 (도보 5분)

○ 나고야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愛知名古屋市中村那古野1-47-1 名古屋際センタービル 23F(〒450-0001)
- 전화번호: +81-52-561-3936 (FAX: +81-52-561-3945)
- 홈페이지: <http://kotra.or.jp/>

공항-무역관 이동

사쿠라도오리선 국제센터역 2번 출구 / JR 나고야역 사쿠라도오리 출구

○ 택시

- 중부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인근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탑승 가능
- 운전기사에게 다음 주소를 제시하고 무역관으로 이동
- * 名古屋中村那古野1丁目47-1名古屋際センタービル
(Nagoya International Center Bldg, 47-1, 1-Chome, Nagono, Nakamura-Ku, Nagoya-Shi, Aichi-Pref, JAPAN)
- 나고야국제센터빌딩 도착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3층으로 이동
- 소요시간은 약 60분이며 요금은 약 18,000엔

○ 공항버스 (메이테츠 공항버스, 名空港バス) 시내 선 임시 운휴 중

- 중부국제공항 1층 버스정류장에서 나고야역행 메이테츠 버스 탑승
- 나고야역 남쪽 소재 메이테츠 버스센터 도착 후 나고야역 방향 이동
- 나고야역 내 Uni Mall 지하상가를 따라 동쪽으로 약 7-8분 보행 후

국제센터역(지하철 사쿠라도오리선, 櫻通線) 2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나고야국제센터빌딩 23층 이동

- 버스는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10시 15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

*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나고야 시내선은 임시운행 중이나, 도요타선은 운행 중이므로 사전에 스케줄표 확인 필수

- 소요시간은 약 1시간 15분이며 요금은 1,300엔

○ 열차

- 중부국제공항 2층 액세스플라자(アクセスプラザ)에서 메이테츠 열차

나고야역 행 탑승, 뮤티켓(쾌속) 발권 시 탑승 시간 단축 가능

- 나고야역 내 Uni Mall 지하상가를 따라 동쪽으로 약 7-8분 보행 후

국제센터역(지하철 사쿠라도오리선, 櫻通線) 2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나고야국제센터빌딩 23층 이동

- 7 ~ 30분 간격으로 운행

- 소요시간은 쾌속 약 30분, 특급 및 급행 약 45분

- 요금은 쾌속 1,250엔, 특급 및 급행 890엔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International Cosmetics Trade Fair 2024	2024-01-17 ~ 2024-01-19	도쿄 빅사이트	RX Japan
Japan IT Week Osaka	2024-01-17 ~ 2024-01-19	INTEX OSAKA	RX Japan
Smart Factory Expo 2024	2024-01-24 ~ 2024-01-26	도쿄 빅사이트	RX Japan
Robot Development & Application Expo 2024	2024-01-24 ~ 2024-01-26	도쿄 빅사이트	RX JAPAN
Japan CampingCar Show 2024	2024-02-02 ~ 2024-02-05	마쿠하리 멧세	재팬 캠핑카쇼 실행위원회
Japan IT Week Spring 2024	2024-04-24 ~ 2024-04-26	도쿄 빅사이트	RX Japan
Data center & storage expo (spring) 2024	2024-04-24 ~ 2024-04-26	도쿄 빅사이트	RX Japan
Beauty World Japan Tokyo 2024	2024-05-13 ~ 2024-05-15	도쿄 빅사이트	Messe Frankfurt Japan
AGRI WEEK KYUSHU	2024-05-22 ~ 2024-05-24	Grandmesse Kumamoto	RX Japan
KENTEN 2024	2024-05-30 ~ 2024-05-31	INTEX OSAKA	KENTEN 사무국
Japan Drone 2024	2024-06-05 ~ 2024-06-07	마쿠하리 멧세	JUIDA
Mechanical Components & Materials Technology Expo 2024	2024-06-19 ~ 2024-06-21	도쿄 빅사이트	RX Japan
Japan Marketing Week 2024 (Summer)	2024-07-03 ~ 2024-07-05	도쿄 빅사이트	RX Japan
TOKYO International Stationery & Office Products Fair 2024	2024-07-03 ~ 2024-07-05	도쿄 빅사이트	RX Japan
Japan Jewelry Fair 2024	2024-08-28 ~ 2024-08-30	도쿄 빅사이트	INFORMA MARKETS
TOKYO GAME SHOW 2024	2024-09-26 ~ 2024-09-29	마쿠하리 멧세	Computer Entertainment Supplier's Association ;
BioJapan 2024	2024-10-09 ~ 2024-10-11	Pacifico Yokohama	Bio Japan 조직위원회
Japan Home & Building show 2024	2024-11-20 ~ 2024-11-22	도쿄 빅사이트	JMA
SDGs Week EXPO 2024	2024-12-04 ~ 2024-12-06	도쿄 빅사이트	Nikkei Messe

SEMICON JAPAN 2024	2024-12-11 ~ 2024-12-13	도쿄 빅사이트	SEMI JAPAN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